

Pitch

Pitch by Magazine — Special Issue

Cana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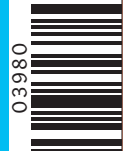
Culinary Adventure & Wellness Retreats

Pitch by Magazine

Travel Commentary

Canada

피치 바이 매거진 특별호 : 캐나다
ISBN 979-11-984097-6-8
ISSN 2714-092X
9,800원



Pitch by Magazine

Pitch by Magazine Special Issue :
Canada, Culinary Adventure & Wellness Retreats
2025년 6월 30일 발행
Published on June 30th, 2025

피치바이피치(주) pitch by pitch ltd.
웹사이트 pbp.co.kr
인스타그램 pbp.seoul
네이버블로그 [/pitchbypitch](http://pitchbypitch)
카카오채널 /피치바이피치
콘텐츠 · 기사 · 온라인 서비스 hello@pbp.co.kr
협업 · 문의 with@pbp.co.kr



Publisher & Editorial Director	허태우 Hur Taewoo @blueles
Brand Director & Editor	표영소 Pyo Youngso @bukkumi
Editor	박진명 Parc Jinmyoung @parcnotpark , 유선우 Ryu Sunwoo @sunw_0.o
Art Direction & Design	제너럴그래픽스 Generalgraphics generalgraphics.kr
Online Service	그루트 커뮤니케이션즈 Groot Communications groot.co.kr
Travel Manager	김명희 Chloe Kim
Cover Photographer	Tourism PEI/Stephen Harris, Mount Logan EcoLodge
Back Cover Photographer	Tourism Nova Scotia/Adam Hill
Contributing Illustrator	김은빈 Kim Eunbin
Printing	대한프린테크 02-2635-5171
Distribution	성운도서유통 bookmanager.co.kr 인디펍 indiepub.kr

Registration Number	마포, 바 00195
Issn	2714-092X
Isbn	979-11-984097-6-8(03980)
Size	182×258mm
Paper	량데뷰 240g/m ² , 앙상블E클래스 100g/m ²
Color	CMYK
Font	Zangezi Sans, SD 펄트라, Brown Cond, Yukyokasho Yoko

캐나다 특별호는 캐나다관광청과의 협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책에 담긴 캐나다의 정보는 2025년 6월 기준이며, 가격 정보는 별도의 표기가 없는 경우 세금 불포함 가격입니다.

매거진의 저작권은 캐나다관광청과 피치바이피치(주)에 있으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동의 없이 본지 내용을 어떠한 형태나 수단으로 무단 사용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itch by pitch ltd. All rights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part prohibited without permission.

본지는 한국도서잡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Contents

Savour & Stay : Canada at Its Best 캐나다 최고의 여행 경험	미식과 웰니스 테마로 떠나는 캐나다 여행	2
A Journey to Discover My Own Canada 나만의 캐나다를 찾아서	캐나다관광청 한국사무소 이영숙 대표가 알려주는 캐나다의 진짜 매력	8
Flavours of Canada 캐나다의 맛	로컬 식자재와 별미부터 미식 축제까지, 풍요로운 맛의 세계로	14
British Columbia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태평양 연안에서 찾은 치유의 시간	20
Alberta 알버타 주	로키와 대평원이 선사하는 건강한 맛과 쉽	42
Québec 퀘벡 주	다채로운 자연 속 휴식과 다문화가 어우러진 풍성한 식탁	56
Gourmet Trains across Canada 미식이 있는 기차 여행	레일 위에서 발견하는 캐나다의 매력	78
Ontario 온타리오 주	수많은 호수와 세계적인 폭포 그리고 아이스와인	84
Atlantic Canada 아틀란틱 캐나다	대서양 연안에서 경험하는 여유와 신선한 해산물의 품미	106
Yukon 유콘 준주	야생의 땅에서 즐기는 웰니스 경험	122
Essential Information 캐나다 여행 필수 정보	캐나다 여행 전 알아두면 좋은 필수 정보	128

Savour & Stay : Canada at Its Best

캐나다 최고의 여행 경험

로키산맥의 장엄한 봉우리, 반짝이는 호수, 신비로운 원시림, 수천 개의 섬이 흩어진 대서양 연안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평원. 이토록 경이로운 대자연을 품은 캐나다에서 자연과 교감하고 각 지역의 맛과 향을 음미하는 것만큼 매혹적인 경험이 또 있을까? 미식과 웰니스를 주제로 캐나다의 가장 반짝이는 순간을 찾아 여행을 떠나야 하는 이유다.

각 지역의 로컬 음식과 문화를 한층 깊이 들여다보고 현지인만의 숨은 맛집과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고 싶은 호기심 많은 여행자라면, 전문가와 함께하는 푸드 투어만큼 좋은 기회도 없다. 더불어, 캐나다 곳곳의 특색 있는 웰니스 숙소와 시설은 자연이 품은 다채로운 매력과 여유를 만끽하기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다. 이번 호 <피치 바이 매거진>은 흥미로운 모험과 힐링이 어우러지는 여정의 첫 발을 내딛으며 캐나다를 대표하는 풍경 속으로 들어가본다.

© Victor Aerden



© GouvQc Stéphane Poulin



© Destination Canada



© Destination BC/Jeremy Koreski



© Thompson Okanagan/@meghan_reading



© Destination Canada

© Destination Québec cité

© Destination Canada

A Journey to Discover My Own Canada

Interview

나만의 캐나다를 찾아서

생각보다 훨씬 쉽고, 가깝고, 특별한 곳. 캐나다관광청 이영숙 대표는 캐나다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웅장한 대자연부터 다채로운 문화, 색다른 미식, 따뜻한 사람들이 있는 캐나다는 나만의 취향을 찾아 떠나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최적화된 여행지이기도 하다. 20년 가까이 캐나다만 바라봐 온 그녀가 생각하는 캐나다의 매력은 무엇일까.

인터뷰이

캐나다관광청 한국사무소
이영숙 대표

인터뷰어

피치바이피치

❶ 최근 한국인 여행자들이 캐나다에서 특히 선호하는 여행지나 테마는 무엇인가요?

예전에는 캐나다의 유명 명소 여러 곳을 짧은 시간 안에 모두 둘러보는 ‘체크리스트’ 스타일의 여행이 많았다면, 이제는 한 지역에 오래 머물면서 나만의 관심사에 맞는 활동을 천천히 즐기려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대자연 속에서 하이킹이나 러닝을 즐기고 멋진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하기도 하고, 아이스하키 종주국이니만큼 아이스하키를 직접 배우거나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직관하려는 이들도 있죠. 기차를 타고 광활한 풍경을 느긋하게 감상하는 여정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을 품은 캐나다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신선하고 건강한 식자재가 풍부한데요, 여기에 다양한 이민자 문화가 어우러져 정말 다채로운 미식 경험을 선사합니다. “캐나다 대표 음식이 뭐지?” 하고 갔다가 캐나다만의 미식 체험에 매료되어 돌아오는 한국 여행자가 많아요.

가을철 캐나다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됩니다. 동부 지역은 물론이고, 캐나다 로키산맥을 따라 이어지는 황금빛 단풍, 북부 툰드라 지대에서 펼쳐지는 드라마틱한 가을빛까지. 자연이 만들어내는 놀라운 풍경에 많은 이들이 가을 단풍 시기에 맞춰 캐나다를 찾습니다. 매년 10월과 11월이면 ‘북극곰의 수도’라 불리는 처칠(Churchill)로 야생 북극곰을 보러 떠나는 여행자도 늘고 있어요. 비록 아주 잠시 그리고 조용히 그들의 서식지를 방문하는 것이지만, 야생의 대자연 속 북극곰과의 만남은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이지요.

A Journey to Discover My Own Canada



데이터를 보면, 한국인 여행자가 가장 많이 찾는 곳은 나이아가라 폭포와 토론토 그리고 캐나다의 수도 오타와가 있는 온타리오 주입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는 변함없는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입니다. 오로라 여행지로 잘 알려진 노스웨스트 준주의 엘로나이프도 인기가 높아요. 한국은 전 세계에서 이 지역에 두 번째로 많은 여행 경비를 지출하는 시장이기도 하죠.

최근 많은 여행자의 관심이 나이아가라 폭포나 로키산맥 외에 캐나다 전역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은 무엇보다 반가운 변화입니다. 드넓은 땅, 끝없이 펼쳐진 자연을 만나러 가는 여정이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어요!

❷ 한국인 여행자들은 캐나다의 주요 관광지는 익숙하지만, 다양한 지역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숨은 보석 같은 지역을 알리고 홍보하기 위한 한국사무소만의 전략이 있다면?

캐나다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로, 대한민국 면적의 약 100배에 달하는 방대한 영토를 품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지형과 기후, 문화가 달라, 하나의 나라 안에 수십 개의 서로 다른 여행지가 공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캐나다 로키, 나이아가라 폭포, 드라마 <도깨비>로 더욱 친숙해진 퀘벡 시티처럼 많은 분에게 잘 알려진 명소도 있지만, 그 너머에는 아직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매력적인 여행지가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 동쪽 끝 대서양을 품은 아틀란틱 캐나다는 우리에게 익숙한 <빨강머리 앤>의 배경이자, 타이타닉호와도 관련 있는 지역이에요. 포근한 전원 풍경과 따뜻한 사람들의 환대를 통해 캐나다의 또 다른 얼굴을 만날 수 있죠. 유콘 준주의 화이트호스는 엘로나이프만큼이나 캐나다를 대표하는 오로라 여행지로, 캐나다 최고봉인 마운트 로건을 품고 있어요. 오로라 관측뿐 아니라 온천, 레트로 감성의 기차 여행, 롯지 스테이까지, 색다른 캐나다를 만날 수 있는 보석 같은 곳입니다. 게다가 밴쿠버에서 비행기로 2시간 반이면 갈 수 있어 접근성도 좋아요. 이스턴 타운십은 퀘벡 시티와 몬트리올 사이에 위치한 지역으로, 감히 말하면 캐나다 최고의 가을 단풍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 괜찮은 숙소가 많고, 훌륭한 로컬 먹거리와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정말 매력적입니다.

올해 캐나다관광청 한국사무소는 이러한 여행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한국인 여행자에게 이미 익숙한 대표 여행지를 기준으로 주변의 숨은 여행지를 엮은 80개의 맞춤형 여행 일정을 소개했어요. 대자연, 미식, 아웃도어 액티비티, 기차 여행, 오로라 등 10개의 테마로 나뉘어져 있어, 여행자가 자신의 취향에 맞춰 캐나다 여행을 계획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남들 다 가는 유명 여행지가 아니라, 진짜 캐나다를 발견하는 여정을 시작할 때입니다. 걱정 마세요. 캐나다 여행은 생각보다 훨씬 쉽고, 훨씬 가깝고, 훨씬 특별합니다.





⑬ 지속 가능한 여행을 위한 캐나다관광청의 전략이나 시행 중인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캐나다관광청은 지역 사회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지속적으로 발전해가는 재생 관광(Regenerative Tourism)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선, ‘캐나다 관광의 재생적 접근(A Regenerative Approach to Tourism in Canada)’이라는 가이드를 통해 관광이 소비가 아닌 지역과 생태계를 회복시키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도시 계획자, 투자자 등 여러 분야의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해 지역 맞춤형 개발을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춘 가이드예요. 이를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콜렉티브(National Data Collective)를 구축해 지역별 성장을 가능하고 방향성 설립에 도움을 주는 세밀한 지표를 제공하고 있죠.

또한, 단순 방문객 수나 지출액 중심의 평가 방식을 넘어 관광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경제·사회·환경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관광의 경제적 가치와 웰빙 지수(Tourism Wealth & Wellbeing Index)’를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커뮤니티 역량 강화, 환경 보호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관광의 진정한 가치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관광청은 캐나다 선주민 관광 활성화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선주민관광협회(Indigenous Tourism Association of Canada)와 장기 협약을 맺어 선주민 커뮤니티의 문화와 전통 보존, 경제적 자립 지원 그리고 화해와 상생을 지향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지속 가능성 강화를 위해 국제지속가능관광위원회(Global Sustainable Tourism Council)에 가입하고, 탄소 발자국 측정 및 개선, 사회적 조달 정책 도입 등 다양한 지속 가능성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지역 간 관광 자산을 연결해 지속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투어리즘 코리도 전략 프로그램(Tourism Corridor Strategy Program)입니다. 아틀란틱 캐나다 지역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따라가는 문화 여행지로, 캐나다 북부 지역을 독특한 곳에서의 숙박과 야생 체험 중심으로, 온타리오 주와 퀘벡 주를 연결하는 자전거길 여행지로 새롭게 개발하고, 사스카추완 주와 마니토바 주를 농업 관광(Agri-tourism) 테마로 연결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커뮤니티 주도의 관광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은 단순한 관광 활성화를 넘어 지역 사회의 번영과 환경의 회복을 함께 이끌어내려는 캐나다관광청의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⑭ 미식과 웰니스에 관심 있는 여행자에게 추천할 만한 캐나다 지역은 어디인가요?

캐나다가 세계적인 미식 여행지로 단번에 떠오르는 곳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어떤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캐나다다운’ 미식의 매력을 품고 있는 것 같아요. 드넓은 대지와 청정한 바다가 키워낸 건강한 식자재, 다양한 이민자 문화가 어우러져 완성된 다채로운 미식 세계, 자연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접목된 식탁이 캐나다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청정 자연이 선사하는 최상급 해산물과 고품질 축산물부터 지역 농장에서 수확한 제철 채소, 전통 방식으로 빚어낸 수제 치즈와 메이플 시럽, 오랜 세월 이어져 내려오는 캐나다 선주민의 전통 음식, 지역별 특색을 담은 크래프트 맥주까지, 한 입 한 입이 대자연과 사람, 문화가 엮어낸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개인적으로 새로운 여행지에 가면 꼭 로컬 푸드 투어를 경험하는데요, 와이너리, 맥주 양조장, 치즈 공방, 퍼블릭 마켓, 로컬 맛집을 따라가는 여정은 단순한 미식 체험을 넘어, 현지인의 역사와 삶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웰니스 측면에서 캐나다는 그야말로 자연이 빛을 발하는 치유의 땅입니다.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야생의 자연 속에서 영혼까지 맑아질 것 같은 순도 백퍼센트의 청량한 공기를 들이마시고, 바다와 숲이 어우러진 풍경을 바라보며 하루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는 경험이지요. 고요한 숲속 롯지, 호숫가에 자리한 리조트, 야생을 품은 글램핑 등 독특한 숙소에서 머물며 건강한 식사를 즐기고 스파와 요가, 명상 등을 통해 진정한 웰니스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과 온전히 연결되는 순간, 캐나다가 가진 진정한 매력을 느끼게 될 거예요.

⑮ 20년 가까이 캐나다관광청 한국사무소를 운영하시면서 체감하는 한국 시장의 변화가 있다면?

지금의 캐나다는 많은 한국인이 꿈꾸는 ‘버킷리스트 여행지’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제가 캐나다관광청 업무를 처음 시작했던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분위기는 지금과 많이 달랐어요. 1994년 캐나다가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이후 여행보다 조기 유학이나 투자 이민을 목적으로 찾는 나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었죠. 여행의 형태는 단체 패키지가 주를 이뤘고요. 여행 정보도 정말 한정적이어서, 관광청에서 여행 가이드북을 제작했다는 소식이 신문에 단 몇 줄만 실려도 며칠 동안 책자 요청 전화가 끊이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은 정말 많은 게 달라졌어요. 여행 정보와 후기, 다양한 경험이 온라인에 넘쳐나고, OTA나 항공사 웹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손쉽게 예약을 할 수 있죠. 이제는 본인의 취향대로 개별 여행을 계획하는 한국 여행자가 주를 이룹니다. 캐나다 방문 목적도 여행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항공편은 밴쿠버 직항 노선을 시작으로 캘거리, 토론토, 몬트리올까지 4개의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직항편으로 확장돼 훨씬 편하게, 더 다양한 캐나다 지역을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20년 전과 비교하면 여행 정보를 얻는 것 자체가 중요했던 시대를 지나, 넘쳐나는 정보를 바탕으로 각자의 취향에 맞는 나만의 여행을 만들어가는 시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죠.

③6 앞으로 한국인 여행자가 더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캐나다 지역은 어디이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특정 지역이 주목받기보다 여행자 각자의 관심사에 따라 다양한 지역으로의 여행이 확장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유명한 관광지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자연과 문화를 느끼고 사람들과 교감하며 현지의 먹거리를 깊이 경험하는 여행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를 들어, 대자연 속에서 하이킹이나 캠핑을 즐기고 싶은 사람은 캐나다의 로키 지역과 유콘 준주를, 와이너리 투어나 미식 여행을 원하는 사람은 브리티시컬럼비아 주나 나이가가라 지역을 선택할 수 있어요. 문화와 예술을 가까이에서 느끼고 싶은 여행자라면 몬트리올이나 퀘벡 시티처럼 오랜 역사와 현대적 도시의 매력이 조화를 이루는 곳으로 떠날 수 있죠. 한마디로 캐나다는 ‘어디를 가느냐’보다 ‘어떤 경험을 원하느냐’에 따라 끝없이 다양한 얼굴을 보여주는 나라입니다.

③7 개인적으로 캐나다 여행에서 경험한 잊지 못할 순간이 있다면?

캐나다의 아름다운 대자연, 맛있는 음식, 독특한 체험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며칠 밤을 새워도 모자랄 거예요. 하지만 진짜 잊지 못할 순간은 결국 캐나다인의 따뜻한 마음을 느낀 경험인 것 같아요.

몇 해 전 가족 여행으로 밴쿠버를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도시의 번화가 중 한 곳인 롭슨 스트리트(Robson Street)에서 맛있게 식사를 한 뒤 다른 장소로 이동했는데, 한참 후에야 메고 있던 배낭이 열려 있고 여행용 지갑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신용카드와 현금도 걱정이었지만, 무엇보다 여권을 잃어버린 상황이 너무 막막했습니다. 다음날 한국으로 돌아가는 일정이었거든요. 다급하게 왔던 길을 되짚어가며 길가의 쓰레기통까지 뒤졌고, 인도 주변 상점을 일일이 찾아가 물어봤어요. 누군가 주워서 가게에 맡겨두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 하나만 붙잡고요. 그러다가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누군가가 제 지갑을 롭슨 스트리트 한가운데에서 주워, 그 앞 상점에 맡겨놓고 갔던 거예요. 이름도,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말이죠. 그저 ‘근처에 사는 사람’이라고만 전해졌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또 감동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맞은편 상점을 둘러보던 남편에게도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 들른 펍에서 사정을 들은 직원들이 다 같이 나와 근처 가게를 함께 방문해준 거예요. 지갑을 찾고 나서 감사 인사를 전하러 갔더니, 펍 안이 환호성과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저희 가족에게는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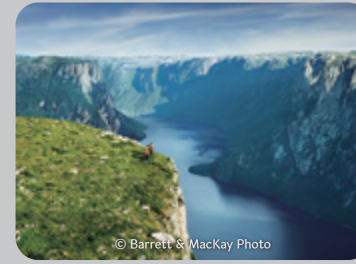
이 에피소드는 제가 20년 넘게 캐나다를 방문하면서 경험한 여러 일들 중 하나에 불과해요. 캐나다 여행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건 단연코 캐나다인들의 따뜻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늘 생각하죠. 캐나다는 대자연만큼이나 사람들의 따뜻함이 빛나는 나라라고요.



③8 캐나다에서 수많은 지역을 다녀오셨겠지만, 아직까지 ‘미지의 지역’으로 남아 있는, 언젠가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캐나다는 총 10개의 주와 3개의 준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주와 준주를 다 여행해봤지만 단 한 곳, 대서양 쪽에 위치한 뉴펀들랜드 앤 래브라도 주는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가본 주와 준주 내에서도 방문하지 못한 지역이 훨씬 많지만, 제게 미지의 지역을 묻는다면 가장 먼저 이곳을 떠올리게 됩니다. 뉴펀들랜드 앤 래브라도 주는 세계적으로 사랑받은 뮤지컬 <컴 프롬 어웨이(Come From Away)>의 무대가 된 곳이기도 합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 테러 공격 직후, 미국 영공이 폐쇄되면서 38대의 항공기가 뉴펀들랜드 앤 래브라도 주의 작은 마을 갠더(Gander)에 비상 착륙하게 된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한 작품이에요. 당시 갠더 주민들은 발이 묶인 약 7,000명의 승객을 따뜻하게 맞아주며 본인들의 집을 숙소로 내놓고 음식, 의약품 등을 제공했습니다. 현지인들이 보여준 연대와 환대, 깊은 인간애를 감동적으로 그려낸 이 이야기는 제게 큰 울림을 주었고, 더욱 이곳에 꼭 가보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되었어요.

뉴펀들랜드 주는 놀라운 대자연을 품은 곳이기도 합니다. 피오르를 포함해 경이로운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그로스몬 국립공원(Gros Morne National Park)이 있고, 북극 지역의 빙하에서 떨어져 나온 빙산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이색 투어도 유명해요. 빨강, 노랑, 파랑 등 형형색색으로 칠한 집들이 웅기종기 모여 있는 어촌 마을은 마치 그림책 속 한 장면처럼 아름답습니다. 이곳을 특별하게 만드는 명소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포고 아일랜드 인(Fogo Island Inn)입니다. <아키텍처 다이제스트(Architectural Digest)> <포브스(Forbes)> <콘데 나스트 트래블러(Conde Nast Traveler)> 등 세계적인 매체가 ‘세계에서 가장 독특하고 아름다운 호텔 중 하나’로 극찬한 곳입니다. 숙박을 넘어 문화, 예술, 자연, 지역 공동체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경험을 제공하고 모든 수익은 지역 사회에 환원됩니다. 숙소 내부를 장식한 가구와 공예품 또한 지역 장인들의 손에서 탄생했죠. 대서양과 환상의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 자체도 볼거리예요. 객실에는 커다란 창문이 있어 바다가 한눈에 내다보이고요. 가족 여행으로 이곳을 방문하는 게 제 버킷리스트 중 하나예요. 언젠가 꼭 따뜻한 사람들과 거대한 자연, 특별한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뉴펀들랜드 앤 래브라도를 직접 경험하고 싶어요. 한 가지 더. 이곳에 간다면 그들의 독특한 방언을 배우는 것도 잊지 마세요. 우리나라의 제주도 방언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Who knit ya?”는 ‘너는 어디에서 왔니?’라는 뜻이고 “Whadd’ya at?”은 ‘너 뭐하고 있어?’라는 뜻이라고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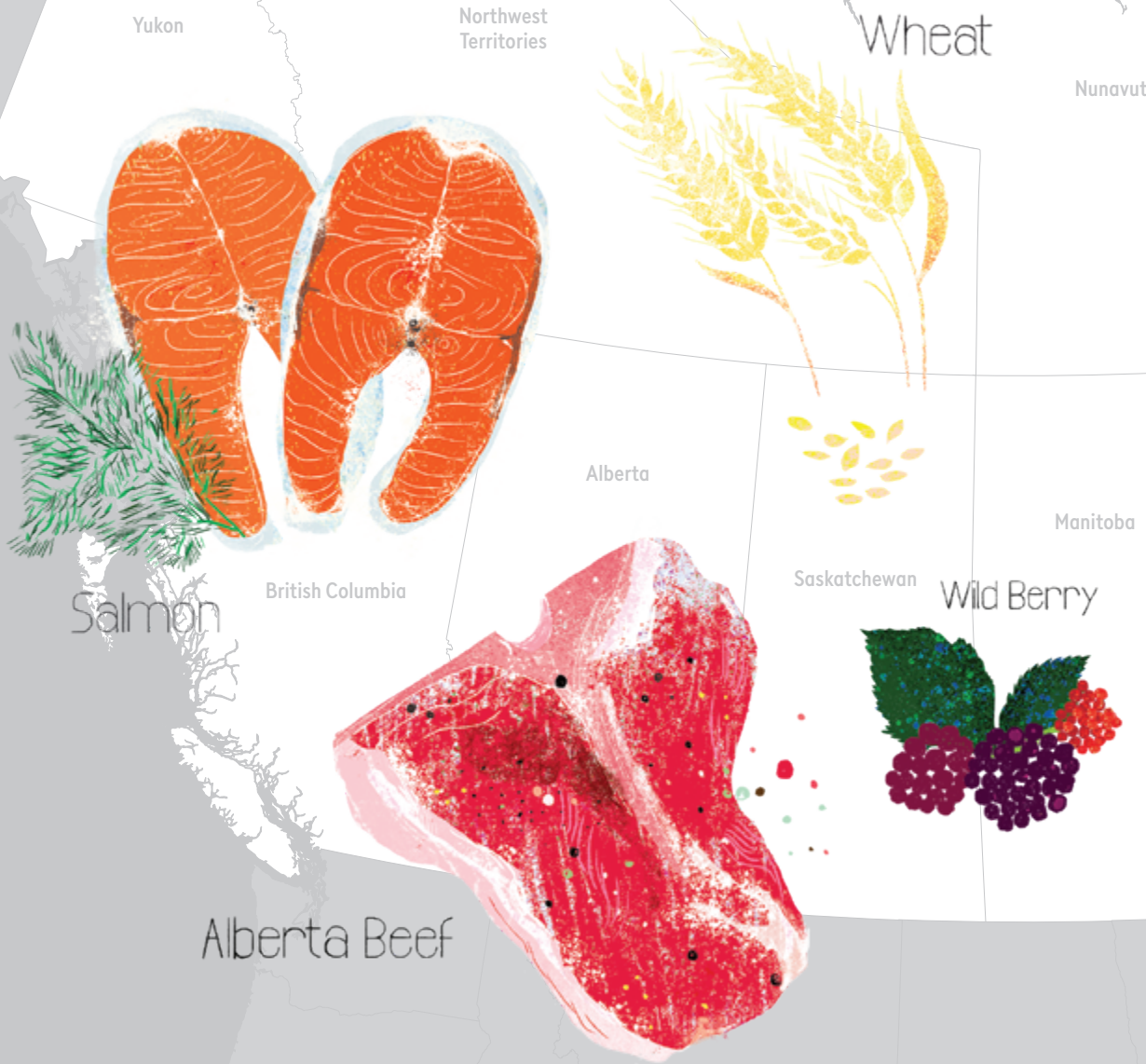


Flavours of Canada

Flavours of Canada

캐나다의 맛

캐나다는 방대한 국토 안에
다채로운 자연 풍광, 여러
문화와 인종이 어우러진
나라인 만큼 음식 역시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
달리 말하면, 그만큼 폭넓은
다양성과 개성을 지니고
있다는 뜻이다. 음식 문화도
마찬가지. 바다와 육지, 산과
들에서 나고 자란 풍성한
식자재는 맛과 건강을 담백
채운 다국적 요리로 변신한다.
여행의 즐거움을 한층 더해줄
캐나다의 풍요로운 맛의
세계로 안내한다.



Hudson Bay

Maple Syr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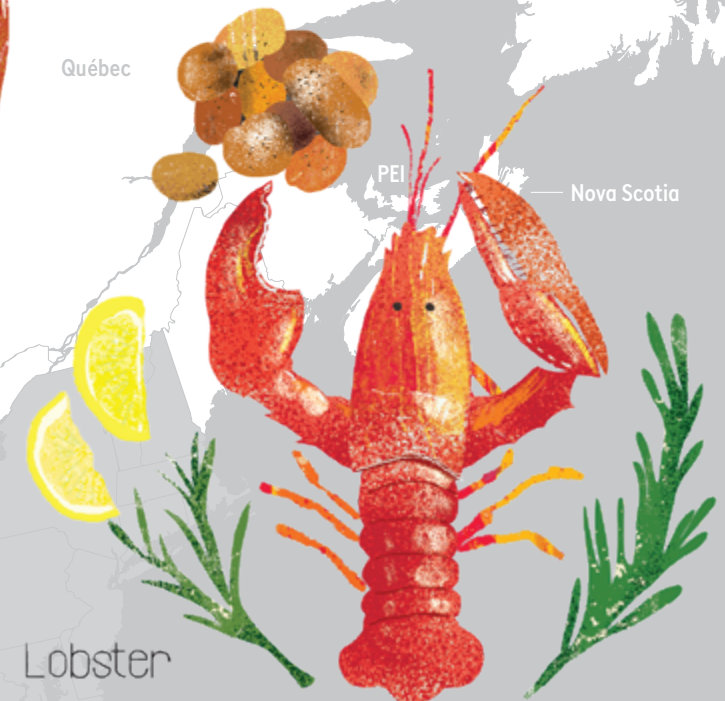
Newfoundland and Labrador

Potato

Québec

PEI

Nova Scotia



지역별 대표 식자재와 별미



지역과 자연환경에 따라 특색이 뚜렷하다는 점이 캐나다 음식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이다. 브리티시컬럼비아에서는 프레이저강(Fraser River)과 컬럼비아강(Columbia River), 태평양 연안 등지에서 잡히는 연어가 오래 전부터 중요한 식자재였고, 대서양 연안의 노바스코샤에서는 랍스터와 킹크랩 같은 신선한 해산물이 별미로 꼽힌다. 프랑스의 식문화 전통과 현지 식자재가 조화를 이룬 음식은 퀘벡만의 매력이다. 감자튀김에 치즈 커드와 그레이비소스를 얹은 푸틴(Poutine)이나 참깨나 양귀비 씨를 뿌려 장식물에 굽는 몬트리올 베이글도 꼭 맛봐야 할 음식이다. 알버타와 사스카추완, 마니토바 등을 아우르는 대초원 지대(Prairies)는 농업이 발달해 육류와 곡물이 풍부하고, 캐나다 동부는 전 세계 메이플 시럽의 70퍼센트 이상이 생산되는 최대 산지로, 자연에서 얻은 순수하고 진한 단맛이 즐거움을 선사한다.



© GouvQc/Jean-François Frenette

선주민 음식부터 파인 다이닝까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발전해온 선주민 전통 음식(Indigenous cuisine)은 캐나다의 식문화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연어부터 무스나 사슴 고기, 야생 베리까지 자연에서 얻은 식자재를 활용한 것이 특징인데, 최근에는 건강과 환경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식문화로도 주목받고 있다. 캐나다를 여행하는 동안 접할 수 있는 전통 빵 배넉(bannock)이나 말린 고기에 베리를 섞은 저장식 페미컨(pemmican) 같은 전통 음식은 색다른 경험이 될 것이다. 한편, 최근 몇 년 사이 토론토와 밴쿠버는 차례로 미쉐린 가이드에 이름을 올리며 세계적인 미식 여행지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 도시를 중심으로 몬트리올, 퀘벡 시티, 캘거리, 오타와, 할리팩스 등 여러 지역에서 로컬리티와 지속 가능성, 다문화를 키워드로 한 파인 다이닝을 즐길 수 있다.



©Destination Ontario/Ryan Lee

와인과 주류 문화



브리티시컬럼비아의 오키나간 벨리와 온타리오의 나이아가라 반도는 캐나다의 대표 와인 산지다. 특히 나이아가라 반도는 세계 최대의 아이스와인 생산지로 유명한 곳. 이와 함께 소규모 부티크 와이너리에서 생산되는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와인도 점점 더 주목받고 있다. 캐나다 전역에 1,350여 개의 브루어리가 있을 정도로 수제 맥주 문화 또한 급성장 중이다. 특히 밴쿠버와 토론토에서는 특색 있는 소규모 독립 양조장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와인 애호가라면 반일 혹은 하루 일정으로 와이너리 투어, 맥주 애호가라면 브루러리 투어를 계획해보길 추천한다. 이외에 위스키, 진, 보드카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증류주와 사이더도 미식을 사랑하는 여행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Destination Ontario/Ryan Lee

미식 축제 캘린더

1월

Dine Out Vancouver Festival

다인 아웃 밴쿠버 페스티벌

2002년 처음 시작된 밴쿠버의 대표 음식 축제로, 매년 1월 말~2월 초 사이에 17일간 열린다. 도시 전역의 레스토랑 수백여 곳이 참여해 합리적인 가격에 코스 메뉴를 제공한다.
www.dineoutvancouver.com

2월

Montreal en Lumiere

몬트리올 앙 뤼미에르

유명 셰프들과 협업해 선보이는 미식 프로그램은 물론, DJ 부스, 푸드 마켓, 조명 장식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가득한 축제. 몬트리올 도심의 문화 지구 카르티에 데 스펙타클(Quartier des Spectacles)에서 열린다.
montrealenlumiere.com



© Explore Edmonton/Intwined Studios

4월

Elmira Maple Syrup Festival

엘미라 메이플 시럽 페스티벌

메이플 시럽 생산지로 유명한 온타리오 남부의 소도시 엘미라에서 열리는 유서 깊은 축제. 메이플 시럽을 활용한 먹거리와 각종 공예품을 판매하고 현지 농장을 방문해 단풍나무 숲을 방문하는 투어도 운영한다.

elmiramaplesyrupfestival.com

6월

Mondial de la Biere

몽디알 드 라 비에르

몬트리올 도심, 윈저 스테이션(Windsor Station) 일대에서 열리는 30여 년 전통의 맥주 축제. 3일간 100개 이상의 브루어리와 생산자가 참여해 새롭고 독창적인 맥주의 세계로 안내한다.
festivalmondialbiere.qc.ca

7월

Taste of Edmonton

테이스트 오브 에드먼튼

1984년부터 매년 여름 개최되는 캐나다 서부 최대의 야외 미식 축제. 현지 레스토랑과 셰프, 푸드 트럭이 모여 다양한 미식을 선보이고 지역 장인의 공예품과 아티스트의 무대도 만날 수 있다.

tasteofedm.ca

8월

Taco Fest

타코 페스트

토론토에서 3일간 열리는 멕시코 미식 축제. 타코와 테킬라, 라틴 음악 등을 즐길 수 있는 자리다. 도시 최고의 멕시코 요리사와 푸드 트럭이 참여해 '베스트 타코 어워드'를 두고 경쟁을 벌인다.

www.thetacofest.com

9월

PEI International Shellfish Festival

PEI 세계 조개 축제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의 조개류 산업을 기념해 샬럿타운에서 열리는 축제. 4일간 요리 시연과 굴 까기 대회 같은 이벤트가 펼쳐지고, 섬에서 채취한 굴과 조개로 만든 신선한 로컬 음식을 즐길 수 있다.

peishellfish.com

10월

Niagara Grape & Wine Festival

나이아가라 포도 & 와인 페스티벌

70년이 훌쩍 넘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캐나다 최대의 와인 축제. 세인트 캐서린스(St. Catharines) 도시의 몬테벨로 공원(Montebello Park)에서 열리며, 축제 기간 내내 현지 와인과 요리는 물론, 라이브 음악이 끊이지 않는다.

niagarawinefestival.com



© Destination Ontario

11월

Devour! The Food Film Fest

디바우어! 푸드 필름 페스트

노바스코샤 주 울프빌(Wolfville)에서 음식과 와인을 테마로 열리는 영화제. 음식 영화 상영과 함께 푸드 트럭, 요리 워크숍, 미식 투어, 특별 디너 등 이색 프로그램이 마련돼 전 세계 음식과 영화 애호가를 유혹한다.

devourfest.com

농치지 말아야 할 캐나다의 미식 루트



British Columbia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오카나간 밸리 와인 루트



거대한 오카나간 호수 주변의 완만한 구릉 지대를 따라 포도밭이 이어지는 오카나간 밸리는 캐나다의 대표적인 와인 산지다. 200개 이상의 와이너리가 자리하며 레드와 화이트는 물론, 로제와 내추럴 와인까지 다양한 품종의 와인이 생산된다. 그중에서도 켈로나는 오카나간 밸리 와인 지역의 관문이자 중심지로, 셀프 가이드 형식으로 즐길 수 있는 와인 루트를 따라 여행하기 좋은 지역이다. 언덕 위의 소규모 부티크 와이너리를 둘러보는 사우스이스트 켈로나 벤치(Southeast Kelowna Bench)부터 호숫가를 따라가며 전통 있는 와이너리를 만나는 레이크쇼어 와인 트레일(Lakeshore Wine Trail), 와이너리와 함께 크래프트 맥주 브루어리, 사이더 양조장 등을 방문할 수 있는 다운타운 그레이프 & 그레인(Downtown Grapes & Grains), 가족이 운영하는 유서 깊은 와이너리와 오래된 포도나무가 있는 웨스트사이드 와인 트레일(Westside Wine Trail) 그리고 멋진 전망을

자랑하는 계곡 북쪽의 와이너리를 찾아가는 레이크 컨트리스 시닉 sip(Lake Country's Scenic Sip)까지, 각자의 일정과 취향에 맞게 자유롭게 선택하면 된다.

Ontario

온타리오 주



애플 파이 트레일



캐나다산 사과의 40퍼센트 이상이 온타리오 주에서 생산된다. 당도가 풍부한 이 지역 사과를 활용한 음식도 발달했는데, 그중 하나가 애플 파이다. 사과 수확철이면 온타리오 전역에서 애플 파이를 만날 수 있을 정도. 토론토에서 차로 90여 분 떨어진 사우스 조지안 베이(South Georgian Bay)는 온타리오 주의 주요 사과 산지 중 하나로, 과수원과 사이더리, 애플 파이를 모두 경험할 수 있는 애플 파이 트레일로 유명하다. 블루 마운틴 타운(Town of the Blue Mountains), 미퍼드(Meaford), 비버 밸리(Beaver Valley) 등을 여행하며 직접 사과를 수확하고 수제 사이더를 맛보고, 애플 파이를 비롯한 사과 디저트를 즐기는 루트다. 수공예 마켓과 갤러리 등을 방문하고 팜투테이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며 지역 예술과 미식이

어우러진 여행을 경험할 수 있다. 봄과 여름에는 카야킹과 카누잉, 가을에는 하이킹, 겨울에는 스노슈잉 등의 야외 액티비티도 곁들일 수 있어 사계절 다른 매력을 선사하는 여정이다.

버터 타르트 투어



진한 단맛을 사랑하는 디저트 러버라면 버터 타르트 투어가 제격이다. 버터 타트는 파이 반죽에 버터와 설탕, 달걀, 시럽으로 만든 필링을 채워 구운 캐나다의 대표 페이스트리. 토론토에서 차로 1시간 30분 정도 떨어진 피터버러(Peterborough)와 코워사 레이크(Kawartha Lakes), 노섬벌랜드 카운티(Northumberland County)를 중심으로 40여 곳의 카페와 베이커리가 자리해 다양한 레시피의 버터 타르트를 섭렵할 수 있다.

Alberta

알버타 주



캘거리 & 에드먼튼 와인 루트

알버타 주는 전통적인 와인 대신 과일 와인과 벌꿀주로 유명하다. 캘거리 & 에드먼튼 와인 루트는 이러한 로컬 와인을 즐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Flavours of Canada



산딸기, 체리, 사과, 블랙커런트, 복숭아 등 현지 농산물의 맛과 향을 살려 색다른 와인을 만드는 소규모 와이너리를 방문하고 꿀을 발효시켜 만드는 전통 벌꿀주 미드(Mead)를 시음하는 여정. 알버타의 자연과 미식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다. 캘거리와 에드먼튼, 두 도시를 중심으로 인근의 양조장을 둘러보고 농작물 수확, 팜 투어 등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다. 여름철에는 일정에 피크닉을 추가하고, 가을에는 다양한 축제와 이벤트 기간에 맞춰 여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핫초콜릿 트레일



매년 겨울, 밴프와 레이크 루이스 지역의 레스토랑과 카페에선 시즌 한정 핫초콜릿 메뉴를 선보인다. 보통 11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운영되며, 20~30곳의 매장이 참가한다. 이 기간에 밴프와 레이크 루이스를 방문한 이들은 다양한 종류의 핫초콜릿을 맛보는 자신만의 루트를 완성할 수 있다. 도보 거리의 쇼핑 스폿과 갤러리를 탐방하며 여행을 이어가도 좋다.

Québec

퀘벡 주



치즈 트레일

캐나다 전역에서 수많은 종류의 수제 치즈를 맛볼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퀘벡 주의 치즈는 단연 최고로 꼽힌다. 목가적 풍경의 전원 속에서 500여 종의 치즈를 맛보고 현지 생산자들을 만나 교류하며 퀘벡 주의 진정한 맛을 경험하는 로드 트립을 즐길 수 있다. 이스턴 타운십과 샬브와, 베생폴 등 퀘벡 주 곳곳에 전통 방식으로 치즈를 만드는 공방이 자리해 언제든지 투어와 시식, 구입까지 가능하다. 치즈 장인을 만나 전통 치즈 생산 과정을 알아보고 다양한 수제 치즈를 맛본 뒤에는 퀘벡 시티로 돌아와 미식 경험을 이어갈 수 있다. 세인트로렌스강이 내려다보이는 1608 와인 & 치즈 바에서 최고급 와인과 퀘벡산 프리미엄 치즈의 페어링을 즐기며 여정을 마무리하면 완벽하다.



British Columbia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태평양과 맞닿은 캐나다 서부의 브리티시컬럼비아 주는 긴 해안선과 장엄한 로키산맥이 선사하는 드라마틱한 자연 경관과 현대적 도시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자연환경 덕분에 신선한 해산물과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음식이 발달했고, 오카나간 밸리(Okanagan Valley)를 필두로 프레이저 밸리(Fraser Valley), 밴쿠버 아일랜드(Vancouver Island) 등 캐나다의 대표 와인 지역에서 생산되는 와인과 밴쿠버의 오랜 크래프트 맥주 문화가 더해져 풍성한 미식 문화를 자랑한다. 광대한 자연에서는 하이킹, 카야킹, 스키 등의 아웃도어 액티비티와 흥미진진한 모험, 색다른 힐링 경험이 기다린다.



Culinary Adventure

푸드 투어 프로그램으로 떠나는 미식 여행

Vancouver 밴쿠버	01	A Taste of the Valley Tour 테이스트 오브 더 밸리 투어
	02	An Eco-Tour with Wild Food Tastings 야생의 맛을 즐기는 에코 투어
	03	Gastown Food Tour 개스타운 푸드 투어
	04	Granville Island Market Tour 그랜빌 아일랜드 마켓 투어
	05	North Vancouver Brewery Tour 노스 밴쿠버 브루어리 투어
	06	Vancouver Brewery Tour 밴쿠버 브루어리 투어
Victoria 빅토리아	07	Chinatown, Old Town & Inner Harbour Food Tour 차이나타운, 올드타운, 이너하버 푸드 투어
Whistler 휘슬러	08	Hidden Gems Dinner Tour 숨은 맛집을 찾아가는 디너 투어
Okanagan 오카나간	09	West-East Kelowna Wine Tour 켈로나 서부·동부 지역 와인 투어

Wellness Retreats

자연 속 휴식처로 떠나는 웰니스 여행

Vancouver 밴쿠버	01	Wedgewood Hotel & Spa 웨지우드 호텔 & 스파
	02	Circle Wellness Granville Island 서클 웰니스 그랜빌 아일랜드
	03	Brentwood Bay Resort & Spa 브렌트우드 베이 리조트 & 스파
	04	Clayoquot Wilderness Lodge 클레오포트 월더니스 롯지
	05	Havn 하븐
Vancouver Island & Victoria 밴쿠버 아일랜드 & 빅토리아	06	Kingfisher Pacific Resort & Spa 킹피셔 퍼시픽 리조트 & 스파
	07	Wickannish Inn 위카니시 인
	08	Four Seasons Resort Whistler 포시즌스 리조트 휘슬러
Whistler 휘슬러	09	Scandinave Spa Whistler 스칸디나브 스파 휘슬러
	10	Sparkling Hill 스파클링 힐
Okanagan 오카나간	11	Nimmo Bay Wilderness Resort 넴모 베이 월더니스 리조트
Great Bear Rainforest 그레이트 베어 레인포레스트	12	Echo Valley Ranch & Spa 에코 밸리 랜치 & 스파
Clinton 클린턴		

Culinary Adventure

01 Vancouver

밴쿠버에서 당일 여행으로 방문할 수 있는 와인 지역은?

A Taste of the Valley Tour

테이스트 오브 더 밸리 투어



밴쿠버 여행 일정 중 한나절 정도만 할애해 로컬 와인을 경험하고 싶은 여행자!



밴쿠버에서 동쪽으로 약 50킬로미터 떨어진 프레이저 밸리는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의 와인 지역 중 하나로, 규모는 작지만 풍부한 강수량과 쾌청한 기후 덕분에 품질 좋은 와인이 생산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도심에서 프레이저 밸리 와인 지역까지 차로 1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당일 와인 여행을 즐기고 싶은 이들에게

알맞다. 강을 따라 산과 계곡, 너른 들판이 어우러진 자연 풍광을 배경으로 지역 와인을 음미할 수 있다. 이 투어는 프레이저 밸리에서 와인 생산량이 가장 많은 채버튼 와이너리(Chaberton Winery)를 포함해 3곳의 와이너리를 방문하고 와인 제조 과정과 특성, 페어링 등에 대한 전문 소믈리에의 설명을 들으며 와인을 시음하는 코스로 구성된다.

일정	매일 10:30~15:30, 약 5시간 소요
미팅 장소	1088-1098 Melville St, Vancouver (주요 장소 픽업 서비스 제공)
포함 사항	치즈와 크래커, 과일 등으로 구성된 간단한 식사와 물, 교통편
가격	1인 125캐나다달러
웹사이트	foodietours.ca

02 Vancouver

숲에서 식탁까지, 자연에서 경험하는 현지 선주민 식문화

An Eco-Tour with Wild Food Tastings

야생의 맛을 즐기는 에코 투어



평범한 미식 투어는 싫다, 밴쿠버 로컬 식문화의 뿌리가 궁금하다면.



자연 해설가이자 야생 음식 전문가가 이끄는 ‘어 테이스트 오브 네이처(A Taste of Nature)’는 400헥타르의 방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도심 속 휴식처 스탠리 파크에서 ‘포레스트투테이블(Forest

British Columbia

to Table)’을 콘셉트로, 지역 선주민의 식문화 경험을 제안한다. 전문 가이드의 안내로 숲과 해변을 산책하고, 다양한 종류의 훈제 연어, 야생 베리로 만든 타르트, 바다 아스파라거스와 야생 버섯을 곁들인 유콘식 사워도, 해산물 플레이트, 가문비나무 새순차 등 일반적인 미식 투어에서 경험하기 힘든 식재료와 요리를 맛볼 수 있다. 투어는 최소 5인부터, 최대 15인 규모로 진행된다.

일정	매일 11:30~13:30, 약 2시간 소요
미팅 장소	픽업/드롭 서비스 제공
포함 사항	점심 식사를 대신할 충분한 양의 테이스팅 메뉴, 자유 시간 15분
가격	1인 150캐나다달러(픽업 비용 별도)
웹사이트	www.atasteofnature.ca

03 Vancouver

미식가와 역사 애호가를 위한 최고의 워킹 투어!

Gastown Food Tour

개스타운 푸드 투어



칼로리 걱정 없이 미식을 즐기고 개스타운의 대표 명소도 보고 싶다면!

개스타운은 밴쿠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동네로, 이 도시의 발상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 고풍스러운 건축물은 물론, 개성 있는 상점과 레스토랑, 바, 카페 등이 모여 있어 구석구석 걸어 다니며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한 곳이기도 하다. 개스타운 푸드 투어는 현지 맛집 탐방을 통해 이 동네의 매력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로컬 와인을 곁들인 시칠리안식 토르텔리니부터 일본식 닭튀김, 클래식 프렌치 어니언수프, 정통 푸틴까지, 개스타운의 다국적 먹거리를 두루 맛볼 수 있다. 자갈 깔린 개스타운의 골목을 누비는 동안 가이드가 들려주는 흥미진진한

지역의 역사 이야기가 더해져 15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오르는 경험을 선사한다. 투어 중에 증기 시계(Steam Clock), 메이플 트리 스퀘어(Maple Tree Square) 등 개스타운의 랜드마크도 함께 둘러볼 수 있다.

일정	매일 14:00~17:00 / 15:00~18:00, 약 3시간 소요
미팅 장소	Waterfront Station, 601 W Cordova St.
포함 사항	음식 6종 시식 & 주류 3종 시음 (논알코올 음료 선택 가능)
가격	1인 128캐나다달러부터
웹사이트	tastevancouverfoodtours.com

04 Vancouv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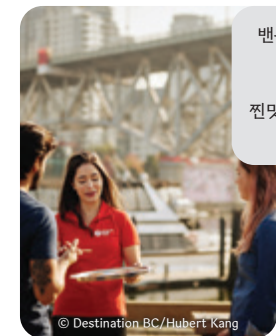
신선한 과일부터 스페셜티 커피까지, 현지 시장에서 맛보는 로컬 미식

Granville Island Market Tour

그랜빌 아일랜드 마켓 투어



밴쿠버의 인기 마켓을 현지인처럼 구석구석 누비고 찐맛집을 모두 경험하고 싶은 사람!



미식에 정통한 전문가와 함께 그랜빌 아일랜드 마켓에서 가장 인기 있는 매장을 방문하고 오직 밴쿠버에서만 즐길 수 있는 현지 미식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투어에 참여하면 매장 방문 시, 줄을 서지 않고 우선 입장 할 수 있다. 현지에서 생산된 치즈, 훈제 연어, 사워도, 싱글 오리진 커피 등 20여 종의 로컬 먹거리를 맛보는 것은 물론, 시장의 생산자나 판매자들과도 소통하게 된다. 실내 마켓이라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도 이 투어의 장점. 그랜빌 아일랜드의 풍부한 역사, 생동감 넘치는 문화와 건축에 대해서도 자세히

들어다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최대 12인까지 참여 가능한 소그룹 투어로 진행되고, 아이들을 포함해 모든 연령대가 즐길 수 있다.

일정	매일 10:30~12:30, 약 2시간 소요
미팅 장소	Granville Island Public Market
포함 사항	밴쿠버 현지 미식으로 구성된 식사와 음료
가격	1인 125캐나다달러
웹사이트	foodietours.ca

05 Vancouver

밴쿠버 크래프트 맥주계의
신흥 강자가 궁금하다면!

North Vancouver Brewery Tour

노스 밴쿠버 브루어리 투어



© Destination Vancouver/Craft Beer Market/Blair Hill



© Destination BC

밴쿠버의 전통적인
로컬 브루어리와
수제 맥주는 파악 완료,
최신 트렌드가 궁금한
맥주 애호가!

1800년대 후반부터 형성된 브루어리 크릭(Brewery Creek)가 밴쿠버에서 가장 오래된 브루어리 지역이라면, 신생 크래프트 브루어리가 모여 있는 노스 밴쿠버 지역은 최근 뜨고 있는 지역이다. 밴쿠버 항구 맞은편에 위치해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전망 속에서 맥주를 즐길 수 있는 것도 매력 요소. 노스 밴쿠버 브루어리 투어에 참여하면 커피 로스터리를 함께 운영하는 하우스 오브 펑크(House of Funk), 99퍼센트

제로 웨이스트를 추구하는 브릿지 브루잉(Bridge Brewing), 새로운 스타일의 맥주를 시도하는 비어 브루잉(Beere Brewing) 등 이 지역의 특색 있는 브루어리 3곳을 방문해 도시의 수제 맥주 트렌드를 살펴볼 수 있다.

일정	매일 12:00~15:00, 약 3시간 소요
미팅 장소	픽업/드롭 서비스 제공
포함 사항	브루어리 3곳 방문 및 시음, 교통편(14인승 전용 밴)
가격	1인 130캐나다달러
웹사이트	vancouverbrewerytours.com

06 Vancouver

밴쿠버의 크래프트 맥주 문화를
즐기는 법

Vancouver Brewery Tour

밴쿠버 브루어리 투어



© Destination Vancouver/Nelson Mourelle

현재 밴쿠버에서
가장 핫한
로컬 맥주와
로컬 브루어리가
궁금한 여행자!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의 로컬 브루어리와 와이너리, 디스틸러리를 전 세계에 소개해온 전문 투어 업체 캐네디언 크래프트 투어즈(Canadian Craft Tours)가 운영하는 투어. 지역과 테마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중에서도 ‘밴쿠버 브루어리 투어’는 지역 맥주가 만들어지는 생생한 현장으로 안내한다. 미니버스를 타고 브루어스 로(Brewers Row)와 브루어리 크릭, 이스트 밴(Yeast Van) 등 맥주 양조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을 돌아보며 개성 넘치는 로컬 맥주를 선보이는 최고의 양조장 3곳을 방문할 수 있다. 전문 가이드가 동행해 맥주에 관한 풍부한 지식을 공유해주며, 맥주 제조 과정도 엿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다.

일정	매일 12:00~15:30 / 16:00~19:30, 약 3시간 30분 소요
미팅 장소	맞춤 픽업/드롭 서비스 제공
포함 사항	브루어리 3곳 견학과 맥주 시음, 교통편(미니버스)
가격	1인 110캐나다달러
웹사이트	www.canadiancrafttours.ca

Tip

미식 그 이상의 경험을 선사하는
이색 쿂� 클래스

음식을 통해 밴쿠버의 다문화로 좀 더 제대로 경험하고 새로운 맛에 도전하고 싶은 모험심 강한 여행자라면, 인 마이 키친(In My Kitchen)에서 운영하는 쿂� 클래스를 눈여겨봐도 좋겠다. 인 마이 키친은 밴쿠버에 거주하는 요리 전문가 파울라 모하메드(Paula Mohammed)가 이끄는 쿂� 클래스 전문 회사로, 음식과 여행을 키워드로 독특한 미식 체험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요리에 열정을 가진 밴쿠버 현지 호스트가 여행자를 집으로 초대해 자신만의 레시피와 다양한 문화 이야기를 나누는 온오프라인 워크숍과 프라이빗 클래스를 진행한다. 그리스, 이탈리아, 인도 북부, 페르시아, 스페인, 시리아, 베트남 등 다양한 나라의 요리를 다루는 그룹 클래스가 마련돼 있고, 채식 요리 수업도 있다. 관심 있는 수업을 선택해 개별 문의하면 된다. 새로운 요리법과 레시피는 물론, 각 요리에 담긴 문화적 이야기와 여행 팁까지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클래스에 참가하기에 앞서 파울라 모하메드가 진행하는 인기 팟캐스트 인 마이 키친 위드 파울라(In My Kitchen with Paula)를 들어봐도 좋을 듯.

inmykitchen.ca

07 Victoria

먹고 걸으며 발견하는
빅토리아의 매력

Chinatown, Old Town, Inner Harbour Food Tour

차이나타운, 올드타운, 이너 하버 푸드 투어



© Destination BC/@viranlly



© Destination BC/Reuben Krabbe

다른 여행자와
함께 어울려
빅토리아 도심을
걸고 로컬 먹거리를
즐기고 싶다면!

빅토리아 곳곳을 거닐며 도시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고 현지의 음식과 문화에 빠져들기에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빅토리아 퍼블릭 마켓에서 출발해 차이나타운, 마켓 스퀘어(Market Square), 이너 하버를 비롯한 도시의 유서 깊은 동네를 걸으며 로컬 미식을 즐길 수 있는 투어다. 현지 지식이 해박한 가이드가 동행해 방문하는 지역과 장소의 역사와 특징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고, 미트볼, 페로기(Perogy), 수제 맥주와 디저트 등 투어 중간중간 맛보는 로컬 먹거리는 색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2016년에 처음 시작되었고, 2020년부터 매년 캐나다 최고의 푸드 투어로 선정될 정도로 인기 프로그램이다. 일정이 끝난 뒤에는 QR코드를 통해 제공되는 빅토리아 시티 가이드를 추가로 구입해 도시 탐방을 이어갈 수도 있다.

일정	화~토요일 11:00~13:00 / 14:00~16:00, 약 2시간 소요
미팅 장소	Victoria Public Market
포함 사항	현지 음식 시식
가격	89,95캐나다달러
웹사이트	atasteofvictoriafoodtours.com/thetour-872533.html

08 Whistler

휘슬러의 숨은 보석을 찾아
떠나는 로컬 미식 탐험

Hidden Gems Dinner Tour

숨은 맛집을 찾아가는 디너 투어

휘슬러의 숨은
로컬 레스토랑을
발굴하고 싶은
여행자!



© Destination BC/@viranlly



휘슬러 현지인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로컬 미식의 세계가 궁금한가? 로컬 가이드와 함께 휘슬러의 숨은 보석으로 여겨지는 레스토랑 4곳을 방문하고 4코스 디너 요리를 즐기는 투어를 추천한다. 캐나다 전통 요리부터 신선한 해산물과 제철 채소를 활용한 메뉴, 캐나다 최초의 쇼콜라티에르에서 맛보는 디저트까지, 각 레스토랑의 시그니처 요리를 모두 경험할 수 있다. 인기 레스토랑을 사전 예약하거나 줄을 서지 않고도 편하게 방문할 수 있으며, 도보로 이동하며 휘슬러 구석구석도 돌아본다. 45캐나다달러 상당의 주류 페어링을 추가하면 브리티시컬럼비아 지역의 와인 또는 로컬 브루어리의 크래프트 맥주를 곁들일 수 있어 더욱 풍성한 미식 경험이 가능하다.

일정	매일 16:45~20:15, 약 3시간 30분 소요
미팅 장소	Whistler Public Library
포함 사항	휘슬러 레스토랑 4곳에서 저녁 식사와 디저트
가격	1인 155캐나다달러
웹사이트	www.whistlertastingtours.com/whistler-dining-tours/hidden-gems-dinner-tour

09 Okanag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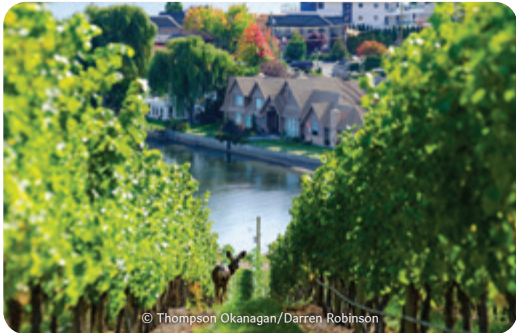
이탈리아 토스카나가
부럽지 않은 와이너리

West-East Kelowna Wine Tour

켈로나 서부·동부 지역 와인 투어



오카나간 호수 일대의 아름다운 풍광을 즐기며 캐나다 와인 지역의 매력을 살펴보고 싶은 여행자!



아름다운 오카나간 호수가 펼쳐진 켈로나 지역은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와인 산업의 중심지다. 이 투어는 켈로나에 자리한 세계적 수준의 와이너리 중 5곳을 탐방하고 현지 와인을 시음한다. 오카나간 호수 동쪽에 자리한 미션 힐 와이너리(Mission Hill Family Estate Winery)에서 시작해 서쪽의 서머힐 피라미드 와이너리(Summerhill Pyramid Winery)에서 끝나는 일정이다. 이탈리아 토스카나 못지않은 너른 포도밭과 호수를 품은 자연 풍광을 배경으로, 가이드의 자세한 설명이 곁들여져 각 와이너리의 특징과 역사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다. 전 일정 교통편이 제공되고 와인 시음과 점심 식사가 포함돼 있어 편리하고 알찬 시간을 보내기에 제격. 특히 오카나간 일대 최초의 포도 재배지부터 피라미드에서 숙성되는 유기농 와인 농원까지, 이 지역 와이너리의 흥미로운 이야기도 접할 수 있어 와인 애호가라면 지적 호기심을 채우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일정	매일 10:30~15:00, 약 4시간 30분 소요
미팅 장소	Mission Hill Family Estate Winery
포함 사항	와이너리 5곳 견학과 와인 시음, 점심 식사, 교통편
가격	1인 150캐나다달러
웹사이트	westkelownawinetours.com/choose-a-tour/west-east-kelowna-wine-tour

Deep Dive

밴쿠버 미식 여행 추천 코스

반나절 혹은 하루를 할애하는 푸드 투어만으로는 왠지 아쉽다면? 밴쿠버에 머무는 동안 로컬 미식을 속속들이 경험하고 싶은 여행자를 위해 미식을 테마로 한 3일 여행 코스를 추천한다. 도시의 주요 명소, 유서 깊은 동네, 인기 카페와 레스토랑을 고루 방문하며 태평양 북서부 연안의 맛에 취하는 미식 여행 코스다.

www.destinationvancouver.com/itineraries/flavours-of-vancouver



DAY 1

- 그레이 라인 웨스트코스트 관광 버스
- 그랜빌 아일랜드
- 밴쿠버 브루어리 투어
- 혹스워스 레스토랑



그레이 라인 웨스트코스트 관광(Gray Line Westcoast Sightseeing)에서 운영하는 투어 버스를 이용해 일정을 시작해보자. 1일 혹은 2일권 티켓을 구입하면 해당 기간 동안 자유롭게 승하차가 가능해 밴쿠버의 주요 명소를 편리하게 둘러볼 수 있다. 첫 목적지는 낙후된 산업 단지에서 미식과 예술의 중심지로 거듭난 그랜빌 아일랜드. 특히 로컬 생산자와 상인을 만나고 다양한 먹거리를 맛볼 수 있는 퍼블릭 마켓은 필수 코스다. 마켓에서 구입한 음식으로 야외에서 점심 식사를 한 뒤에는 다운타운으로 이동, 다수의 수상 경력을 자랑하는 벨라 젤라테리아(Bella Gelateria)에 들러 지역에서 생산된 우유와 과일 등으로 만든 젤라토로 입가심을 한다. 오후에는 밴쿠버 브루어리 투어에 참여해 밴쿠버의 크래프트 맥주 문화를 즐길 차례. 워터프론트 스테이션(Waterfront Station)에서 출발해 밴쿠버의 인기 브루어리 몇몇 곳을 둘러보고 시음도 할 수 있다. 첫날의 여정은 밴쿠버를 대표하는 파인 다이닝 혹스워스 레스토랑(Hawthorn Restaurant)에서 프렌치 요리법에 웨스트코스트만의 지역색을 더한 최고급 요리와 함께 마무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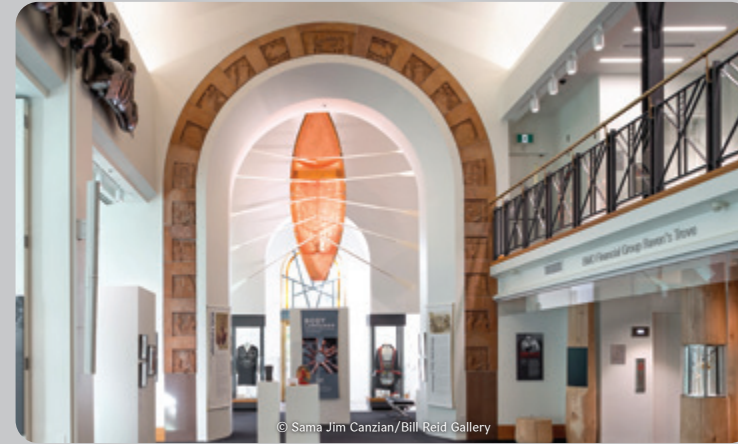
© Destination Vancouver/Nelson Mouellic



© Destination Vancouver/Devin Manky



© Destination Vancouver/Grouse Mountain



© Sama Jim Canzian/Bill Reid Gallery

DAY ②

- 카페 메디나
- 밴쿠버 아트 갤러리
- 개스타운 미식 투어
- 더 보태니스트



© Destination Vancouver/Nelson Mouellic

밴쿠버의 인기 카페 중 한 곳인 카페 메디나(Café Medina)에서 벨기에 리에주(Liège) 스타일의 와플이나 중동식 타진 요리로 아침을 시작한다. 이후 도심에 자리한 밴쿠버 아트 갤러리(Vancouver Art Gallery)로 이동, 현지 선주민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예술에 초점을 맞춘 전시를 관람한다. 다시 출출해질 때쯤 로컬 미식 전문 투어 업체 밴쿠버 푸디 투어스(Vancouver Foodie Tours)가 진행하는 개스타운 미식 투어(Gastronomic Gastown Tour)에 참여하면 개스타운의 유서 깊은 역사와 로컬 먹거리를 동시에 즐길 수 있다. 저녁에는 페어몬트 퍼시픽 림 호텔(Fairmont Pacific Rim Hotel) 내에 자리한 레스토랑 더 보태니스트(The Botanist)로 걸음을 옮기자. 신선한 지역 해산물과 플레이저 밸리에서 생산한 지속 가능한 식자재를 활용해 모던한 캐나다 요리를 선보인다.

DAY ③

- 차이나타운
- 캐나다 플레이스
- 그라우스 마운틴
- 더 옵저버토리



© Destination BC/Hubert Kang

1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차이나타운은 밴쿠버의 다문화를 확인할 수 있는 장소다. ‘어 워к 어라운드 차이나타운(A Wok Around Chinatown)’ 투어에 참여하면 가이드와 함께 차이나타운을 돌아보며 이 지역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접하고 점심 식사로 덤섬을 맛볼 수 있다. 오후에는 밴쿠버의 랜드마크 중 하나인 캐나다 플레이스(Canada Place)를 찾아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한 뒤 무료 셔틀버스에 올라 노스쇼어(North Shore) 지역으로 이동한다. 곤돌라로 해발 1,231미터 높이의 정상까지 연결된 그라우스 마운틴(Grouse Mountain)은 노스쇼어의 인기 명소. 곤돌라에서 내리면 탁 트인 도시 전경이 펼쳐지고, 산에 서식하는 야생동물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하이킹에 나설 수도 있다. 정상에 자리한 고급 레스토랑 더 옵저버토리(The Observatory)에서 3일간의 미식 여행을 마무리한다. 밴쿠버의 야경을 배경으로 프랑스 요리에서 영감을 받은 태평양 북서부 요리를 즐기는 경험은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Deep Dive

교통카드 한 장으로 즐기는
밴쿠버 미식 투어

스카이트레인을 이용해
밴쿠버 각 동네별 최고의
미식을 찾아 떠나는
여행은 어떤가? 밴쿠버
내 여러 지역과 협력해
웨스트코스트푸드(West
Coast Food)가 제안하는 미식
가이드를 소개한다.

westcoastfood.ca

Millennium Line

수제 맥주와 다국적 미식 즐기, 밀레니엄 라인

밀레니엄 라인은 이스트 밴쿠버(East Vancouver)와
코퀴틀람(Coquitlam), 포트 무디(Port Moody) 등 교외 지역을 잇는
노선으로, 2002년 개통했다. 밀레니엄 라인이 지나는 커머셜
드라이브(Commercial Drive) 일대와 브렌트우드(Brentwood)
지역에는 크래프트 브루어리와 특색 있는 음식점이 모여 있고,
코퀴틀람 지역에서는 일식, 중식 등 아시아를 비롯해 다국적
음식을 즐길 수 있다.

① Strange Fellows Brewing

브루어리, VCC-Clark Station, 도보 13분

② Astro's Kitchen

브런치 식당, Holdom Station, 도보 12분

③ Dageraad Brewing

브루어리, Production Way-University Station, 도보 4분

④ The Taphouse Coquitl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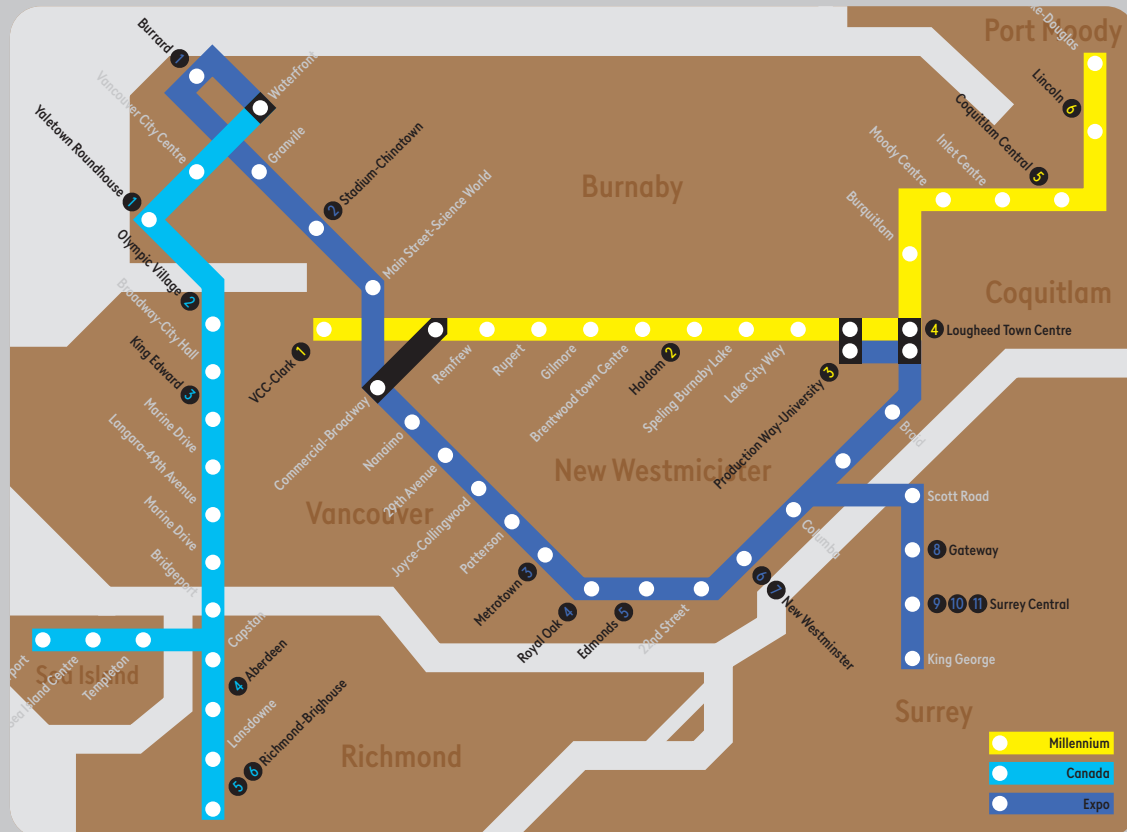
탐하우스, Lougheed Town Centre Station, 도보 7분

⑤ Mariner Brewing

브루어리, Coquitlam Central Station, 도보 10분

⑥ Legend House Chinese Restaurant

중식당, Lincoln Station, 도보 6분



Canada Line

덤섬에서 파인 다이닝까지, 캐나다 라인

다운타운 밴쿠버와 밴쿠버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캐나다 라인은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을 기념해 완공됐다. 다운타운
남쪽에서 리치먼드(Richmond) 지역을 잇는 캄비 스트리트
(Cambie Street)를 따라 다양한 시도를 하는 도시의 새로운
음식점을
만날 수 있다.

① Blue Water Cafe

해산물 전문점, Yaletown Roundhouse Station, 도보 3분

② Craft Beer Market

캐주얼 식당, Olympic Village Station, 도보 11분

③ Seasons in the Park

태평양 연안 요리 전문점, King Edward Station, 도보 19분

④ Chef Tony

중식당, Aberdeen Station, 도보 5분

⑤ 75 West Coast Grill

태평양 연안 북서부 그릴 요리 전문점, Richmond-Brighouse
Station, 도보 7분

⑥ Richmond Public Market

시장, Richmond-Brighouse Station, 도보 6분

밴쿠버 교통카드 사용법

대중교통을 이용해 밴쿠버를
여행하려면 충전식 교통카드
컴패스 카드(Compass Card)를
구입하는 것이 좋다. 카드
하나로 스카이트레인(Sky
Train)과 시버스(SeaBus),
웨스트코스트 익스프레스(West
Coast Express) 등 메트로
밴쿠버 전역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다. 최초 카드 구입
시 보증금 6캐나다달러가
부과되는데, 카드 반환 시
환불받을 수 있다. 컴패스 카드
구입과 충전은 스카이트레인
역이나 시버스 터미널, 일부
드럭스토어에 설치된 컴패스
판매기 또는 온라인(compass
card.ca)에서 가능하다. 요금은
1~3존으로 나뉘어 적용되며,
1존 기준 성인 요금은
현금과 신용카드 결제 시
3.20캐나다달러, 컴패스 카드
이용 시 2.60캐나다달러다.
www.translink.ca

Expo Line

세계 음식 기행, 익스포 라인

1985년 개통한 밴쿠버 최초의 스카이트레인 노선. 다운타운에서
출발, 버나비(Burnaby) 지역과 뉴웨스트민스터(New Westminster)
지역을 통과하고 프레이지강을 가로지르는 스카이트릿지를 지나
서리(Surrey) 지역까지 35분이면 갈 수 있다. 뉴웨스트민스터에는
워터프론트 레스토랑이, 서리에는 세계 각지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음식점이 모여 있다.

① Cincin Ristorante Bar

이탈리안 식당, Burrard Station, 도보 9분

② Medina

지중해 식당, Stadium-Chinatown Station, 도보 10분

③ Cafe La Foret

파티세리 카페, Metrotown Station, 도보 9분

④ Hanwoori Korean Restaurant

한식당, Royal Oak Station, 도보 10분

⑤ Anatolia's Gate Restaurant

터키 식당, Edmonds Station, 도보 10분

⑥ El Santo

멕시코 식당, New Westminster Station, 도보 5분

⑦ Longtail Kitchen

태국 식당, New Westminster Station, 도보 5분

⑧ Manis Restaurant

동남아시아 식당, Gateway Station, 도보 10분

⑨ Dominion Bar Kitchen

캐나다 식당, Surrey Central Station, 도보 1분

⑩ Sushi King George

일식당, Surrey Central Station, 도보 4분

⑪ Mahaveer Chef's Choice

인도 식당, Surrey Central Station, 도보 5분

Deep Dive

캐나다의 와인의 심장,
오카나간 밸리

반짝이는 호수와 푸른 하늘,
굽이치는 언덕을 따라
이어지는 포도밭 행렬.
오카나간 밸리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포도 재배 면적의
8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와인 산업 심장부이며, 영화
같은 풍경 속에서 세계적
수준의 와인을 음미할 수 있는
여행지다. 가족 경영 부티크
와이너리부터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대규모 와이너리까지
200여 곳의 와이너리는
저마다의 전통과 개성을 자랑
한다. 미국의 나파 밸리나
프랑스의 보르도처럼
여행객으로 붐비지 않는
덕분에 안목 있는 미식
여행자에게는 보석과 같은
매력을 선사한다.

포도의 성장을 돕고, 단순히 잘 익은 과일의
맛을 넘어서 우아하고 상쾌한 풍미를
이끌어낸다. 오카나간 밸리는 11개의
공식 하위 지역으로 나뉘며, 각 지역은
고유한 토양 구성과 미기후를 가지고
있어 와인 특성에 기여한다. 예를 들어,
켈로나와 레이크 컨트리에 속하는
북부 밸리는 서늘한 기후 덕에 화이트
와인 재배에 적합하다. 올리버(Oliver),
오소유스(Osoyoos), 블랙 세이지 벤치(Black
Sage Bench)가 속한 남부 밸리는 더 뜨겁고
건조하며 깊고 배수가 잘 되는 사질 토양이
특징으로, 레드 와인이 강점이다. 이러한
환경 덕분에 오카나간 밸리에서는 60여
가지의 다양한 포도 품종이 재배된다.
특히 피노 그리, 피노 누아, 시라로 양조된
레드 와인과 리슬링, 샤르도네가 주축이
된 화이트 와인은 오카나간의 검증된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스파클링
와인, 주정 강화 와인, 디저트 와인, 아이스
와인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스타일의
와인이 생산된다.

오카나간 와인의 발자취

오카나간 와인 산업의 역사는 1859년에
프랑스 마르세유 출신 선교사 펠릭스
판도시(Félix Padosy)가 켈로나 근처의
교회에서 성찬용 와인을 만들기 위해
첫 포도나무를 심으면서 시작했다. 20세기
전반기의 오카나간은 베리, 사과, 체리 같은
과일 와인이나 프랑스-미국산 하이브리드
포도로 만든 와인에 국한되어 있었다.
이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와이너리 칼로나
빈야드(Calona Vineyard)의 창업 파트너 중
한 명인 W.A.C. 베넷이 주지사에 당선되면서
오카나간의 와인 산업은 전환점을 맞이한다.
1960년대에는 'B.C. 와인'으로 표기된
와인에 브리티시컬럼비아산 포도 함량을
늘리는 의무 규정이 시행됐고, 1990년에는
브리티시컬럼비아 와인 협회(B.C. Wine
Institute)가 설립되어 와인 품질의 기준이
마련됐다. 1994년에는 오카나간 밸리의
미션 힐 와이너리가 국제 와인 대회에서
'최고의 샤르도네' 상을 수상해 캐나다
와인의 저력을 전 세계에 알렸다. 21세기
들어 오카나간 밸리의 와이너리 수는
꾸준히 늘어났고, 와인 투어에 대한 노력도
이어졌다. 오늘날 오카나간 밸리는 지속
가능한 와인 관광에 힘을 쏟고 있다. 전통을
지키며 환경을 보호하는 와인 관광을
추구하는 것. 노블 릿지(Noble Ridge),
헤이와이어 와이너리(Haywire Winery),
포플러 그로브 와이너리(Poplar Grove
Winery) 등의 와이너리는 지속 가능한
관광을 실천하는 바이오스피어 인증을
받아 책임감 있는 포도 재배와 여행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추천 와이너리 리스트

Hainle Vineyards
Estate Winery

하인레 빈야드 이스테이트 와이너리

북미 최초의 아이스와인 생산자이자, 1988년
캐나다 최초의 유기농 인증 와이너리.
hainle.com

Upper Bench
Winery & Creamery

어퍼 벤치 와이너리 & 크림러리

수상 경력에 빛나는 와인과 수제 장인 치즈로
유명한 곳. upperbench.ca

Hillside
Winery & Bistro

힐사이드 와이너리 & 비스트로

약 8만 1,000제곱킬로미터 면적의 포도밭
에서 수확한 최고 품질의 포도로 소량의
와인을 생산하는 곳. www.hillsidewinery.ca

Burrowing Owl
Estate Winery

버로잉 아울 이스테이트 와이너리

최상급 포도 재배지에 위치하며,
2022년 캐나다 와인 어워드에서 수상.
www.burrowingowlwine.ca

Poplar Grove
Winery

포플러 그로브 와이너리

카베르네 프랑과 '더 레거시' 블렌드 와인
으로 유명하며, 가족 중심의 경영 철학을
지속하는 곳. www.poplargoive.ca

Quails' Gate

퀘일스 게이트

멋진 포도밭에서 생산되는 수준 높은 피노
누아와 샤르도네로 명성 높은 와이너리.
www.quailsgate.com

오카나간 여행의 최적기와
와인 투어 노하우

오카나간을 방문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봄과 가을이다.
이 시기에는 온화하고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며, 형형색색으로
변화하는 포도밭에서 투어와
테이스팅을 경험할 수 있다.
늦여름부터 초가을 사이에는 포도
수확의 활기찬 에너지를 직접
느낄 수 있다.

기후, 포도 그리고 매혹의 와인



© Destination BC/Boomer Jerritt

오카나간 밸리에서 생산되는 높은 품질의
와인은 지리적 특성과 기후에서 비롯된다.
250킬로미터 길이의 광활한 계곡은
아열대성 기후와 서늘한 기후가 공존하는
독특한 환경에 둘러싸여 있다. 낮 기온은
섭씨 40도에 달할 정도로 뜨겁다가도
밤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데, 이러한
일교차는 브리티시컬럼비아 와인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발랄한 산미의
바탕이 된다. 긴 일조 시간과 건조한 날씨



© Destination
Vancouver
/Nelson Mouellic



© Destination BC/@Vancouverfoodie



© Wickaninnish Inn

© Nimmo Bay Resort

Wellness Retreats

British Columbia

01 Hotel

Wedgewood Hotel & Spa

웨지우드 호텔 & 스파



© Wedgewood Hotel & Spa

꼭 도시를 벗어나야만 힐링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웨지우드 호텔 & 스파에 있다면 밴쿠버에 머물면서도 차분하고 조용하게 휴식할 수 있다. 1984년 캐나다 최초의 여성 오너 부티크 호텔로 문을 연 이래 현재 까지 2대째 가족 경영으로 운영되는 유서 깊은 곳. 앤틱 가구와 고급스러운 패브릭으로 꾸민 내부는 클래식한 멋이 느껴지며, 총 83개 객실과 스위트룸에서는 도시 전망을 즐길 수 있다. 밴쿠버 도시 탐방과 함께 고요한 휴식도 놓칠 수 없는 여행자라면 최적의 선택이 될 듯하다.

Wellness Experience



© Wedgewood Hotel & Spa

‘도심 속 오아시스’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최신 장비를 갖춘 피트니스

센터부터 일대일 요가 수업, 유칼립투스 스팀룸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심신을 돌볼 수 있다. 좀 더 활동적인 신체 활동을 원하는 이들은 컨시어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자전거를 이용해 주변의 자전거 루트로 여행을 떠날 수도 있다.

가격	1박 344캐나다달러부터
웹사이트	wedgewoodhotel.com

02 Spa

Circle Wellness Granville Island

서클 웰니스 그랜빌 아일랜드



© Circle Wellness Granville Island

세계 최초의 셀프 가이드 온열 스파 시설. 한 번에 최대 2인까지 입장 가능하고, 별도의 안내 없이 자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이라 완벽하게 프라이빗한 체험이 가능하다. 한국, 일본, 유럽의 스파 문화에서 영감을 받아 노천 샤워, 열탕, 사우나, 냉탕, 리버스톤 온열 찜질의 5단계 과정으로 진행되며, 시간은 90분, 120분 중 선택할 수 있다. 그랜빌 아일랜드에 위치해 밴쿠버 여행 중 부담 없이 방문하기에 좋다.

가격	이용권 219캐나다달러부터
웹사이트	circlewellnesspas.com

03 Resort

Brentwood Bay Resort & Spa

브렌트우드 베이 리조트 & 스파

빅토리아에서 차를 타고 북쪽으로 30여 분 달리면 밴쿠버 아일랜드 남동부의 길고 좁은 만 사니치 인렛(Saanich Inlet)에 이른다. 바다의 풍량을 막아주는 입지 덕분에 한때 선원들의 쉼터였던 곳으로,



오늘날에는 브렌트우드 베이 리조트 & 스파가 진정한 휴식을 찾아 온 이들의 은신처 역할을 하고 있다. 온전한 쉼을 목표로 만 16세 이상만을 위한 성인 전용 공간으로 운영되며, 프라이빗 파티오와 월풀 욕조, 벽난로가 마련된 33개의 객실과 풀서비스 스파 시설이 마련돼 있다.

Wellness Experience

고요한 바다를 배경으로 몸과 마음의 균형을 되찾는 웰니스 경험을 선사한다. 다양한 테마의 테라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브렌트우드 베이 스파부터 온수 욕조가 딸린 야외 수영장과 레스토랑, 펍까지 부대시설을 두루



© Brentwood Bay Resort & Spa

갖췄다. 리조트 주변에 카페와 레스토랑, 브루어리, 와이너리 등 로컬 미식을 즐길 수 있는 스폿이 많은 것도 장점이다.

가격 1박 300캐나다달러부터

웹사이트 brentwoodbayresort.com

04 Lodge

Clayoquot Wilderness Lodge

클레요콧 월더니스 롯지



© Clayoquot Wilderness Lodge



© Clayoquot Wilderness Lodge

밴쿠버 아일랜드 서해안, 클레요콧 사운드(Clayoquot Sound)에 위치한 럭셔리 에코 롯지다. 강과 바다, 원시림을 아우르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구에 속해 있고 주변에 검은곰, 바다사자, 흰머리독수리 등 다양한 야생동물이 서식해 자연의 숨결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야생과 웰니스가 공존하는 이상적인 은신처인 셈. 섬의 야생에서 공수한 지속 가능한 식자재를 활용해 진정한 로컬의 맛을 선사하며, 캐녀닝, 하이킹 등의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통해 온몸으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다.

Wellness Experience

수상 비행기나 보트로만 접근이 가능해 클레요콧 월더니스 롯지에 발을



© Calyquot Wilderness Lodge

들이는 순간부터 외부와 단절된 완벽한 휴식이 시작된다. 힐링 그라운드스 스파(Healing Grounds Spa)는 트리트먼트룸과 해변 마사지 텐트, 요가와 명상을 위한 공간, 삼나무 온수 욕조, 사우나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선라이즈 모닝 요가와 베드웰강(Bedwell River)에 몸을 담그는 글레이셜 플런지(Glacial Plunge) 등의 이색 웰니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3박 또는 4박 올인클루시브 패키지도 예약 가능하다.

가격 1박 3,300캐나다달러부터(최대 4인)

웹사이트 clayoquotwildernesslodge.com

05 Spa

Havn

하븐



© Havn



© Havn

빅토리아 내항에 정박한 1940년대 미 해군 바지선을 현대적으로 개조해 오픈한 이색 노르딕 사우나. 2023년 6월 문을 연 이래 도심 속 웰니스 경험을 제안하는 장소로 주목받고 있다. 온수와 냉수 입욕을 반복하며 전신의 순환을 개선하는 하이드로테라피를 내세우며, 수온과 전망에 따라 선택 가능한 3개의 사우나, 2개의 수영장, 2개의 미네랄 온수 욕조를 갖췄다. 이외에 실내외 라운지와 도서관, 식음료 서비스 등도 마련돼 있다.

가격 일반 이용권(3시간) 89캐나다달러부터, 심야 이용권(2시간) 79캐나다달러부터

웹사이트 www.havnsaunas.com

06 Resort

Kingfisher Pacific Resort & Spa

킹피서 퍼시픽 리조트 & 스파



© Kootenay Rockies Tourism/Mitch Winton

정면으로는 조지아 해협(Georgia Strait)이, 뒤로는 밴쿠버 아일랜드 동부의 숲이 펼쳐지는 약 2,000제곱미터 면적의 부지에 들어선 부티크 해안 리조트. 1979년에 소박한 롯지에서 출발해 2005년 대대적인 리노베이션을 거처며 현재의 모습에 이르렀다. 특히 호화로운 펜트하우스 스위트와 바다를 마주한 채 수준 높은 미식을 즐길 수 있는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 오션 7(Ocean 7)은 이곳의 자랑이다.

Wellness Experience

리조트 내 퍼시픽 미스트 스파(Pacific Mist Spa)는 2023년 캐나다 최고의 스파 25선에 선정되는 등 수많은 수상 경력을 자랑한다. 사막, 얼음, 소금 등 6개 테마로 나뉘는 최첨단 힐링 케이브(Healing



Caves™)를 비롯해 야외 온수 수영장과 온수 욕조, 적외선 사우나 등 다양한 시설을 통해 한 차원 수준 높은 웰니스 경험을 제안한다.

가격	1박 280캐나다달러부터
웹사이트	kingfisherresort.ca

07 Hotel

Wickaninnish Inn

위카니니시 인
위카니니시 인은 밴쿠버 아일랜드 서해안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는 또 다른 휴식처다. 토피노 인근 체스터맨 비치(Chesterman Beach) 북쪽 끝 바위 위에 자리한 2개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현지 목재와 돌 등 자연친화적 자재를 사용해 주변 환경과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현지 선주민 예술가의 작품을 활용해 지역의 전통을 담아낸 인테리어와



탁 트인 바다 전망은 토피노 지역의 자연과 문화를 제대로 체험하며 진정한 휴식을 경험하도록 돕는다.
Wellness Experience
자연과의 연결은 위카니니시 인이 추구하는 웰니스 경험의 핵심 키워드다. 피트니스 센터는 바다를 마주하고 있고, 웰니스 센터 앤센트 시더스 스파(Ancient Cedars Spa)에서는 주변 해변과 숲에서 영감을 받은 트리트먼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식이다. 파도 소리, 바람 소리 등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자연의 소리부터 명상과 요가 체험, 토피노의 신선한 지역 식자재를 활용한 건강식까지, 머무는 동안 모든 체험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완벽한 몰입감을 선사할 것이다.



가격	1박 540캐나다달러부터
웹사이트	www.wickinn.com

08 Resort

Four Seasons Resort Whistler

포시즌스 리조트 휘슬러



북미 최고의 스키 리조트 지역으로 손꼽히는 휘슬러 블랙콤(Whistler Blackcomb). 그중에서도 블랙콤산 기슭에 자리한 포시즌스 리조트 휘슬러는 사계절 내내 모험과 힐링, 두 가지를 원하는 여행자의 발길이 이어지는 산악 리조트다. 겨울에는 설원을 가르며 스키를 타고, 여름에는 초원과 숲을 통과하는 하이킹에 나선다. 산악자전거 타기, 오프로드 드라이빙 같은 짜릿한 액티비티에 도전할 수도 있다. 짙은 색 나무와 편안한 뉴트럴 톤으로 꾸민 인테리어는 객실 창밖으로 펼쳐지는 멋진 산악 풍광과 어우러져 안락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Wellness Experience
수준 높은 웰니스 프로그램과 다이닝은 포시즌스 리조트 휘슬러의 강점이다. 목적과 취향에 맞게 선택 가능한 스파 패키지를 운영하고, 프라이빗 요가 클래스와 삼림욕 체험, 퍼스널 트레이닝 등 다양한 활동도 마련돼 있다. 야외 온수 수영장과 월풀 욕조에 몸을 담근 채 바라보는 휘슬러산과 블랙콤산의 전경 또한 환상적이다.

가격	1박 1,775캐나다달러부터
웹사이트	www.fourseasons.com/whistler

09 Spa

Scandinave Spa Whistler

스칸디나브 스파 휘슬러



휘슬러의 원시림과 산악 풍경에 둘러싸인 스파 시설로, 1만 2,000제곱미터의 부지에 냉·온탕, 건습식 사우나, 휴식 공간 등이 자리한다. 디지털 디톡스를 위해 와이파이를 제공하지 않고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하며, 사일런스 존(Silence Zone)을 운영해 고요한 쉼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특징. 전통 스웨디시 마사지를 비롯해 다양한 마사지 프로그램도 갖췄다. 이용권은 현장 구매와 예약 구매 모두 가능한데, 예약 구매 시 대기 없이 모든 시설 입장이 가능하고 가운을 무료로 대여해준다.



가격	이용권 현장 구매 118달러부터, 예약 구매 138달러부터
웹사이트	www.scandinave.com/whistler

10 Resort

Sparkling Hi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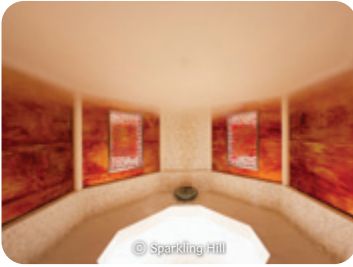
스파클링 힐



오카나간 호수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야트막한 능선 위에 자리한 스파클링 힐은 브리티시컬럼비아 최대 규모의 스파 시설을 보유한 성인 전용 리조트다. 2010년 문을 연 이래 브리티시컬럼비아를 대표하는 스파 여행지로 자리 잡았다. 모던한 외관과 약 350만 개의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털로 장식한 인테리어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149개의 객실과 3개의 펜트하우스 스위트는 시원한 전망을 자랑하는 통유리창과 개방형 구조가 특징이고, 리조트 내 식음료 공간도 다양하게 마련돼 있다.

Wellness Experience
약 3,700제곱미터 면적의 쿠르스파(KurSpa)는 스파클링 힐이 제안하는 웰니스 경험의 핵심이다. 의학적으로

접근하는 유럽의 웰니스 문화에서 영감을 받아 자연요법, 온천수 테라피, 냉 치료 요법 등을 선보이며, 리조트에 머무는 동안 7개 테마의 사우나와 스팀룸을 포함해 실내외 수영장과 온수 욕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가격 1박 499캐나다달러부터
웹사이트 www.sparklinghill.com

11 Resort

Nimmo Bay Wilderness Resort

님모 베이 월더니스 리조트

님모 베이 월더니스 리조트는 세계 최대의 온대 해안 우림으로 꼽히는 그레이트 베어 레인포레스트의



풍요로운 생태계를 배경으로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추구한다. 수상 비행기 또는 헬리콥터를 이용해 리조트에 이르면, 총 9개의 캐빈형 객실을 둘러싼 울창한 숲과 해안 풍경이 반긴다. 모든 객실은 침실 2개와 욕실 1개, 아늑한 라운지를 갖췄으며, 야생의 맛을 경험할 수 있는 식사는 물론 하이킹, 야생동물 관찰, 해안 사파리 등의 액티비티를 통해 재충전의 시간을 보장한다.

Wellness Experience



은은한 삼나무 향과 상쾌한 폭포 소리를 벗삼은 하룻밤만으로도 확실한 힐링을 선사하지만, 삼림욕 명상으로 시작해 맞춤 마사지로 마무리되는 시그니처 트리트먼트는 자연의 리듬에 완전히 녹아드는

경험이 될 것이다. 운동과 명상, 야생 체험이 결합된 3~4일 일정의 웰니스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가격 3박 패키지
1인 8,099캐나다달러부터
웹사이트 nimmobay.com

12 Ranch

Echo Valley Ranch & Spa

에코 밸리 랜치 & 스파



자연환경과 선주민의 문화 유산, 그리고 웰니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북부의 카리부 칠코틴(Cariboo-Chilcotin) 지역에 자리한 에코 밸리 랜치 & 스파는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특별한 휴양지다. 산과 강, 사막, 고원이 공존해 풍요로운 생태계를 간직하고 있으며 선주민 부족의

전통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체험 기회도 기다린다. 카리부 산맥 기슭, 약 65헥타르 면적의 대지에 완벽하게 복원한 옛 목장 저택에 머물며 야생 속에서의 편안한 모험을 실현해볼 수 있다.

Wellness Experience



에코 밸리 랜치 & 스파에서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이 지역의 자연과 문화에 깊이 연결되는 웰니스 경험을 할 수 있다. 태국식 전통 치유 요법과 현대적인 스파 트리트먼트를 결합한 스파 프로그램, 명상·요가 같은 치유 활동은 물론, 승마 등의 액티비티와 선주민 전통 체험을 제공하고 실내수영장과 사우나, 피트니스 시설도 갖췄다.

가격 시그니처 익스피리언스 패키지
1박 1인 840캐나다달러부터
웹사이트 evranch.com

Tip

삼림 테라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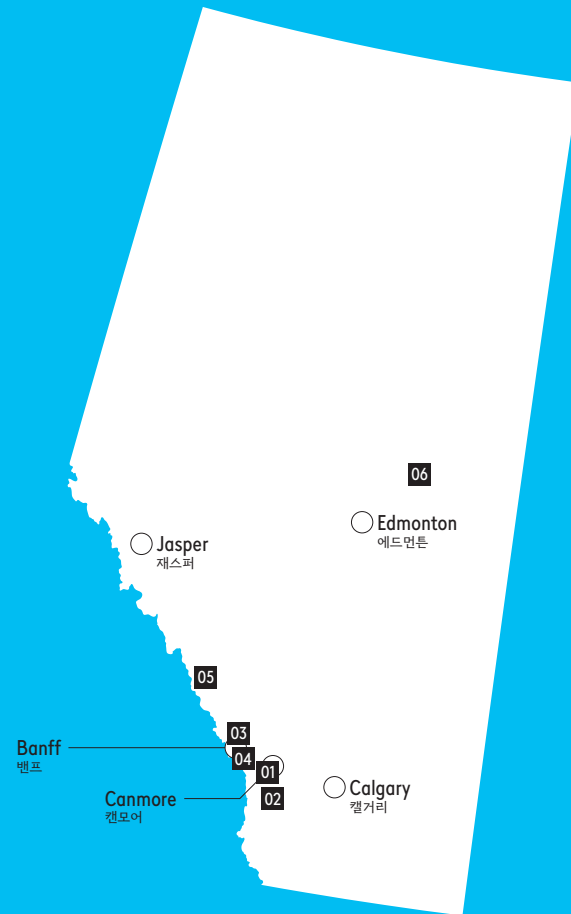
울창한 숲이 곳곳에 자리한 브리티시컬럼비아 주는 삼림욕을 즐기기에 더할 나위 없는 여행지다. 밴쿠버 도심 공원은 물론, 근교의 숲과 산악 지대에서 가벼운 산책부터 트레킹까지 난도에 맞게 코스를 선택해 삼림욕을 경험할 수 있다. 좀 더 체계적인 숲 산책과 힐링 체험을 원한다면 삼림 테라피 전문 가이드와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좋은 선택이다.

www.naturewithhaida.ca



Alberta

알버타 주



캐나다 서부에 위치한 알버타 주는 거대한 로키산맥과 드넓은 대평원이 공존하는 대자연과 풍부한 자원을 자랑한다. 세계적인 관광지 밴프 국립공원(Banff National Park)과 재스퍼 국립공원(Jasper National Park)을 중심으로, 자연 속 아웃도어 액티비티와 힐링을 경험하며 몸과 마음을 돌보려는 여행자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알버타 주의 광활한 초원과 깨끗한 자연환경은 품질 좋은 지역 먹거리가 만들어지는 밑거름이기도 하다. 특히 알버타 소고기(Alberta Beef)는 뛰어난 육질과 풍미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대표적인 지역 특산품. 캘거리와 에드먼튼 같은 현대적 도시에선 지역 식자재를 창의적으로 활용해 색다른 미식을 선보이는 레스토랑과 팜투테이블, 크래프트 브루어리 등 다채로운 미식 문화가 여행의 즐거움을 더한다.

Culinary Adventure

푸드 투어 프로그램으로 떠나는 미식 여행

Calgary 캘거리	01	Brunch at the Calgary Farmers' Market West 캘거리 파머스 마켓 웨스트 브런치 투어
	02	Calgary Mash up Tour 캘거리 매시 업 투어
	03	Eau Claire Distillery Experience 오클레어 디스틸러리 익스피리언스
	04	Iconic Eats of Calgary Food Tour 캘거리 대표 음식 투어
	05	Inglewood Walking Brewery Tour 캘거리 잉글우드 지역 로컬 수제 맥주 투어
Canmore 캔모어	06	Alberta Food Finder Self-Guided Food Tour 알버타 미식 셀프 가이드 투어
	07	Canmore Food Bike Tours 캔모어 푸드 바이크 투어
Banff 밴프	08	Blend Your Own Gin 진 블렌딩 워크숍 & 디스틸러리 투어
	09	Eat the Castle at The Fairmont Banff Springs Hotel 페어몬트 밴프 스프링스 호텔에서의 잇 더 캐슬 투어
Jasper 재스퍼	10	Downtown Foodie Tour 다운타운 미식가 투어
Edmonton 에드먼튼	11	Savour Strathcona Food Tour 스트래스코나 푸드 투어

Wellness Retreats

자연 속 휴식처로 떠나는 웰니스 여행

Canmore 캔모어	01	Kananaskis Nordic Spa 카나나스키스 노르딕 스파
	02	MTN House by Basecamp MTN 하우스 바이 베이스캠프
Banff 밴프	03	Fairmont Banff Springs 페어몬트 밴프 스프링스
	04	The Rimrock Resort Hotel 더 림록 리조트 호텔
Lake Louise 레이크 루이스	05	Fairmont Chateau Lake Louise 페어몬트 샤토 레이크 루이스
Smoky Lake 스모키 레이크	06	Métis Crossing 메티스 크로싱

Culinary Adventure

01 Calgary

캘거리 로컬 파머스 마켓에서 아침을

Brunch at the Calgary Farmers' Market West

캘거리 파머스 마켓 웨스트 브런치 투어



로컬 식자재에 관심이 많고, 현지 시장을 구석구석 탐험하고 싶은 여행자!



© Tourism Calgary/Cailin Charles

일요일 오전, 캘거리 도심에서 15분 거리에 자리한 캘거리 파머스 마켓 웨스트를 방문해 여유롭게 브런치를 즐겨보자. 현지 음식 전문 가이드와 함께 5,000여 제곱미터 규모의 마켓을 편리하게 둘러보고 다양한 먹거리를 맛보며 캘거리는 물론, 알버타 주의 로컬 음식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브런치를 즐긴 뒤에는 현지 로스터리 카페의 커피, 주민들이 만든 페이스트리, 수제 치즈, 지역 농부가 생산한 과일, 알버타 주 로컬 브루어리의 수제 토닉 등 12가지 이상의 현지 먹거리를 시식한다. 요리책 저자의 현지 음식 레시피 강연이 포함되고, 신선한 캘거리 로컬 식자재도

구입할 수 있는 덕분에 요리에 관심 있는 여행자라면 일석이조다.

일정	일요일 10:00~13:00, 약 3시간 소요
미팅 장소	Calgary Farmers' Market West
포함 사항	브런치 식사, 로컬 푸드 시식과 시음
가격	95캐나다달러
웹사이트	albertafoodtours.ca/tours/chef-guided-tour-calgary-farmers-market

02 Calgary

와인부터 위스키까지, 캘거리 주류 완전 정복!

Calgary Mash up Tour

캘거리 매시 업 투어



© Tourism Calgary/Brendan Klem



© Ken Smith Brown

캘거리에서 핫한 로컬 주류의 모든 것을 알고 싶은 애주가!

애주가라면 절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투어! 캘거리의 와이너리, 디스틸러리, 브루어리를 방문해 다양한 스타일의 로컬 주류를 골고루 시음하다 보면 취향에 맞는 술 한 가지쯤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캘거리 매시 업 투어에 참여하면 맥주 양조장에서 시작해 와이너리, 디스틸러리를 차례로 거치며 캘거리의 로컬 주류 전반에 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현지 브루어리 업계에서 활동하는 가이드가 함께해 전문적인 설명을 들려주고 각 주류의 양조 과정에 대한 교육도 진행하며 시음 요령까지 전수해준다.

투어가 진행되는 동안 10여 종의 주류를 시음할 수 있는데, 마음에 드는 것은 그 자리에서 구매도 가능하다. 여행할 때마다 로컬 술을 구입하는 여행자에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 8인 이상이면 프라이빗 투어를 신청할 수 있고 전용 밴으로 캘거리 전역에서 픽업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정	매일 11:30~15:00 / 15:00~18:30 / 19:00~22:30 약 3시간 30분 소요
미팅 장소	Fairfield Inn & Suites by Marriott Calgary Downtown
포함 사항	와이너리, 디스틸러리, 사이더리, 브루어리 견학과 시음 코스
가격	125캐나다달러
웹사이트	canadiancrafttours.ca/products/calgary-brewery-distillery-tour

03 Calgary

알버타 최초의 크래프트 증류소를 찾아서

Eau Claire Distillery Experience

오클레어 디스틸러리 익스피리언스



© Travel Alberta/Roth and Ramberg

알버타 주의 금주법 시대로 떠나는 시간 여행에 호기심을 느끼는 여행자!

캘거리에서 차를 타고 남쪽으로 1시간 정도 달리면 터너 밸리(Turner Valley)에 자리한 오클레어 디스틸러리에 이른다. 알버타 주에 금주법이 시행되던 20세기 초 밀주 제조의 역사를 간직한, 이 지역 최초의 크래프트 증류소다. 설립 이래 약 8헥타르 면적의 보리밭을 전통 농법으로 직접 재배하며 팜투글래스(farm-to-glass) 철학을 지켜온 것으로도 높이 평가받는 곳. 1920년대의 분위기를 간직한 오클레어 디스틸러리를 방문하면 개척 시대의 분위기를 엿보고 이곳의 대표 증류수도 맛볼 수 있다. 투어는 위스키 라운지에서 시작해 증류소 전 부지와 여러 공간을 둘러보며 증류소의 역사와 철학에 대해 알아본 뒤 가이드 테이스팅으로 이어진다.

일정	토요일 11:00 / 15:00, 약 1시간 소요
미팅 장소	113 Sunset Boulevard SW, Turner Valley
포함 사항	가이드 투어, 대표 증류주 세트 시음,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5달러 바우처, 특별 제작한 기념 핀
가격	29.99캐나다달러
웹사이트	eauclairdistillery.ticketspice.com/prohibition-experience

04 Calgary

수제 맥주와 라이브 음악의 만남

Inglewood Walking Brewery Tour

캘거리 잉글우드 지역 로컬 수제 맥주 투어



© Tourism Calgary/2015 Kelly Hofer Studios

여유 넘치는 도시 분위기를 수제 맥주와 함께 즐기고 싶다면!



© Tourism Calgary/Roth and Ramberg

잉글우드는 캘거리에서 가장 오래된 동네로 알려져 있다. 유서 깊은 건축물과 소규모 문화 예술 공간, 개성 넘치는 카페와 레스토랑, 상점이 어우러져 예술과 미식의 중심지로 통한다. 펍과 브루어리 또한 밀집해 있어 로컬 맥주 문화와 수제 맥주를 경험하고 싶은 여행자라면 한 번쯤 찾아가볼 만하다. 이 투어에서는 잉글우드 출신 가이드와 함께 현지에서 인기 있는 3곳의 브루어리를 둘러보고, 각 양조장의 대표 수제 맥주를 시음해볼 수 있다. 야외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수제 맥주와 라이브 연주를 즐기며 여유로운 분위기를 만끽하다 보면 마치 현지인이 된 듯한 색다른 기분을 느낄 수 있을 듯. 동시에 캘거리에서 가장 오래된 거리를 거닐며 잉글우드의 흥미로운 역사와 문화도 살펴볼 수 있는 투어다.

일정	매일 오후 또는 저녁 시간대, 약 2시간 30분~3시간 소요
미팅 장소	Fort Calgary
포함 사항	브루어리 3곳 견학과 시음 코스
가격	69캐나다달러
웹사이트	calgarysipandstroll.com/copy-of-tours

05 Calgary

럭셔리 호텔부터 활기 넘치는 도시 중심가까지, 캘거리 미식 세계 탐험

Iconic Eats of Calgary Food Tour

캘거리 대표 음식 투어



캘거리 여행을 기억할
색다른 투어를
찾고 있다면!

© Tourism Calgary/Colin Way



© Tourism Calgary/Brad Saville

캘거리 다운타운 중심부의 상징적인 장소 2곳에서 도시를 대표하는 음식을 맛보는 색다른 미식 투어. 시식은 식사 메뉴와 디저트 각각 2가지로 구성되고, 캘거리의 역사와 예술, 문화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으며 럭셔리 호텔의 미식과 초콜릿 장인의 수제 초콜릿을 즐길 수 있다. 캘거리의 럭셔리 호텔 페어몬트 팰리서(Fairmont Palliser)에서 셰프의 요리 시연과 함께 세 가지 음식을 시식하는 자리와 집에서 만들 수 있는 요리를 주제로 한 레시피 강연은 이 투어의 인기 요인. 강연 후에는 캘거리의 대표 쇼핑 거리 스티븐 애비뉴(Stephen Avenue)에서 쇼콜라티에의 디저트를 맛보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일정	토요일 15:00~17:30, 약 2시간 30분 소요
미팅 장소	133 9 Ave. SW
포함 사항	캘거리 현지 미식으로 구성된 식사와 음료, 레시피 강연
가격	159캐나다달러
웹사이트	albertafoodtours.ca/tours/iconic-eats-of-calgary-food-tour

06 Canmore

자유롭게 즐기는 캔모어 푸드 어드벤처

Alberta Food Finder Self-Guided Food Tour

알버타 미식 셀프 가이드 투어



© Travel Alberta/Dusty Cressey

나만의
일정대로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은
여행자!



© Travel Alberta/Cakewalk

GPS 기반의 인터랙티브 게임을 활용한 셀프 가이드 미식 투어. 미션형 게임 방식으로 캔모어 지역의 음식과 역사, 문화를 탐험할 수 있는 색다른 체험이다. 게임 내 단서를 따라 지도상에 표시된 장소를 차례로 방문해 퀘스트를 수행하고, 로컬 음식점에서 마련해주는 특별 시식 메뉴를 즐길 수 있다. 앱을 통해 레스토랑 정보, 메뉴 소개, 길 안내 등 유용한 정보도 제공해준다. 따로 정해진 일정 없이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이 투어의 가장 큰 장점이다. 현지인이 아니라면 알기 어려운 도시의 매력적인 장소를 구석구석 돌아볼 수 있도록 최적화된 도보 루트를 제공하며, 가족·커플·친구 등 그룹 단위로 함께 즐길 수 있어 프라이빗한 투어를 원하는 여행객에게도 제격이다.

일정	상시 운영, 2시간 30분 소요 (*추천 일정 : 수~일요일 12:00~18:00)
투어 장소	Downtown Canmore
포함 사항	현지 음식 시식
가격	그룹당(최대 4인) 50캐나다달러
웹사이트	albertafoodtours.ca/alberta-food-finder-canmore/

07 Canmore

숨 막히는 산악 절경은 덤! 자전거로 떠나는 미식 어드벤처

Canmore Food Bike Tours

캔모어 푸드 바이크 투어



© Food Bike Tour



© Canmore Kananaskis Tourism

배부르기만 한
미식 투어는 사절!
입도, 눈도 즐거운
여행을 선호하는 사람

맛있는 음식 못지 않게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사랑하는 여행자에게 캔모어 푸드 바이크 투어만한 것도 없을 듯! 자전거를 타고 보우강(Bow River)을 따라 달리며 캔모어의 환상적인 산악 풍경을 감상하고 3곳의 미식 스폿을 방문하는 흥미진진한 프로그램이니 말이다. 로컬 레스토랑에서 셰프가 특별히 준비한 식사를 즐기고, 대중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주방을 방문하거나 조리 과정을 엿보는 등의 VIP 체험도 가능하다. 일정에 포함된 각 스폿 간 이동은 자전거로 30분 남짓한 거리

이고, 코스 난이도는 보통 수준이다. 자전거를 탈 수 있고 12세 이상이면 누구나 무리 없이 도전 가능하다. 추가 비용(헬멧 포함 40캐나다달러)을 지불하면 전기 자전거 옵션을 선택할 수도 있다. 푸드바이크 투어는 캘거리, 밴프, 에드먼튼에서도 즐길 수 있다.

일정	수~일요일 12:30~16:30, 4시간 소요
미팅 장소	1 Industrial Pl #109B
포함 사항	셰프 큐레이션 메뉴, VIP 비하인드 투어, 레스토랑 팁
가격	149캐나다달러
웹사이트	foodbiketour.com/products/canmore-food-e-bike-tours

08 Banff

로키산맥의 빙하수로 만드는 증류주의 비밀

Blend Your Own Gin

진 블렌딩 워크숍 & 디스틸러리 투어

술 애호가
이거나 특별한
기념품을 찾는
여행자!



© PARK Distillery

로키산맥 한가운데에 진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디스틸러리가 있다면? 밴프 국립공원 내 유일한 증류소 파크 디스틸러리(Park Distillery)에서 그 특별한 경험이 가능하다. 지역 농장에서 재배한 곡물과 알버타 로키산맥의 빙하수를 사용해 진과 보드카 등 독창적인 수제 증류주를 만드는 곳이다. 증류소 내부를 둘러보며 증류주 생산 과정 전반을 엿보고, 다양한 증류주를 시음할 수 있다. 나만의 진을 직접 만들어 보는 체험도 빼놓을 수 없다. 주니퍼베리(juniper berry), 로즈 페탈(rose petals), 시트러스(citrus) 등 첨가할 식물성 향료를 고르고 완성된 증류주에 커스텀 라벨까지 만들어 붙이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진이 완성된다. 투어 후엔 디스틸러리 내에 자리한 레스토랑과 기념품숍을 둘러보는 것도 잊지 말자.

일정	매일 15:15~16:45, 약 1시간 30분 소요
미팅 장소	219 Banff Ave.
포함 사항	디스틸러리 견학과 진 블렌딩 워크숍
가격	75캐나다달러
웹사이트	parkdistillery.com/pages/distillery-tours

Deep Dive

대자연으로 떠나는
여름 & 가을 미식 휴가

산 정상 혹은 야외 테라스에서 즐기는 다이닝, 캠프파이어 요리와 유서 깊은 티하우스 방문 등 미식을 테마로 밴프 국립공원과 레이크 루이스에서 보내는 일주일간의 잊지 못할 미식 휴가를 제안한다. 밴프 지역에서 5박, 레이크 루이스에서 2박을 머무는 일정으로, 여름과 가을 시즌의 로키산맥을 만끽하기에도 좋은 코스다.

www.banfflakelouise.com/trip-ideas/summer-foodie-getaway

BANFF

밴프

DAY ①

- 주니퍼 비스트로

1950년대 처음 문을 연 더 주니퍼 호텔(The Juniper Hotel)은 밴프 국립공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장소 중 하나다. 호텔 내 레스토랑 주니퍼 비스트로(Juniper Bistro)에서 로키산맥이 펼쳐지는 야외 테라스에 자리를 잡고 현지 식자재를 활용한 창의적 요리를 맛볼 수 있다.

DAY ②

- 팜 & 파이어
- 밴프 다운타운에서 쇼핑
- 미네완카 호수 유람선
- 루포 이탈리아 리스토란테 & 파티오

밴프의 인기 레스토랑 팜 & 파이어(Farm & Fire)에서 신선한 지역 식자재로 만든 브런치로 하루를 시작해 밴프 다운타운에서 쇼핑을 즐긴다. 오후에는 미네완카 호수(Lake Minnewanka) 크루즈에 탑승해 현지에서 생산한 수제 맥주를 맛보며 밴프 국립공원의 장엄한 풍경을 감상하자. 2023년 캐나다 100대 레스토랑에 선정된 루포 이탈리아 리스토란테 & 파티오(Lupo Italian Ristorante & Patio)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한다.

DAY ③

- 블루버드 스테이크하우스
- 마차 탑승과 카우보이 스타일의 야외 식사



© Bluebird

밴프 중심부에 위치한 장작구이 스테이크하우스 블루버드(Bluebird)에서 수플레 팬케이크를 주문해 아침 식사를 한다. 오후에는 사륜마차를 타고 서부 개척 시대로 시간 여행을 떠나자. 밴프 국립공원에 있는 유서 깊은 오두막 쓰리 마일 캐빈(3 Mile Cabin)을 방문하면 먹음직스러운 스테이크 식사가 기다린다.

DAY ④

- 메이플 리프 스테이크 & 시푸드
- 버밀리온 호수에서 카누 타기
- 페어몬트 밴프 스프링스 호텔 푸드 투어
- 쇼쿠 이자카야



© Travel Alberta/Mary Lauren Gunn

메이플 리프 스테이크 & 시푸드(The Maple Leaf Steak & Seafood)는 알버타산 소고기와 신선한 해산물 등 최고급 현지 식자재로 만든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이다. 아침 식사 후엔 버밀리언 호수(Vermilion Lakes)에서 카누를 타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낸다. 오후에는 페어몬트 밴프 스프링스 호텔에서 진행되는 투어에 참여해 럭셔리한 미식 경험을 즐기고 일식 요리와 각테일 메뉴가 준비된 쇼쿠 이자카야(Shoku Izakaya)를 방문한다.

DAY ⑤

- 화이트바크 카페
- 버밀리온 호수 자전거길
- 리프트에 탑승해 마운트 노케이 풍광 감상하기
- 클리프하우스 비스트로
- 척스 스테이크 하우스

밴프 최고의 커피를 맛보고 싶다면 화이트바크 카페(Whitebark Cafe)로 향하자. 자전거를 빌려 버밀리언 호수 자전거길을 달린 뒤엔 체어 리프트를 타고 마운트 노케이(Mt. Norquay)에 오른다. 정상에 도착하면 클리프하우스 비스트로(Cliffhouse Bistro)에서 멋진 경치를 배경으로 특별한 다이닝 경험을 할 수 있다. 오후에는 다시 밴프로 돌아와 척스 스테이크 하우스(Chuck's Steakhouse)의 야외 파티오에서 알버타산 소고기로 저녁 식사를 한다.

LAKE LOUISE

레이크 루이스

DAY ⑥

- 레이크 아그네스 티하우스 트레일
- 모레인 호수

아침 일찍 레이크 루이스로 출발한다. 신비로운 호수 풍광을 즐기고 야생동물을 관찰하며 레이크 아그네스 티하우스(Lake Agnes Tea House)까지 하이킹에 도전해보자. 여름철 레이크 루이스 지역에서 운행하는 셔틀을 이용하면 모레인 호수(Moraine Lake)까지 둘러볼 수 있다. 예약은 필수다.



© Banff & Lake Louise Tourism/Roam Creative



© Banff & Lake Louise Tourism/Roam Creative



© Travel Alberta/Corey Myke

DAY ⑦

- 트레일헤드 카페
- 레이크 루이스 곤돌라 탑승
- 화이트혼 비스트로
- 스테이션 레스토랑



© Banff & Lake Louise Tourism/Dan Evans

마지막 날은 현지인이 사랑하는 트레일헤드 카페(Trailhead Café)에서 아침 메뉴를 맛본 뒤 레이크 루이스 곤돌라를 타고 화이트혼 마운틴(Whitehorn Mountain)에 오른다. 정상에선 다양한 하이킹 코스가 펼쳐진다. 출출해질 무렵엔 화이트혼 비스트로의 야외 파티오에서 레이크 루이스를 내려다보며 식사를 할 수도 있다. 일주일간의 미식 여행을 특별하게 마무리하고 싶다면, 100여 년 전 기차역을 개조한 스테이션 레스토랑(Station Restaurant)에서의 로맨틱한 디너를 추천한다.

09 Banff

우아한 성에서 펼쳐지는 럭셔리 미식 경험

Eat the Castle at The Fairmont Banff Springs Hotel

페어몬트 밴프 스프링스 호텔에서의 잇 더 캐슬 투어



럭셔리한 미식과 문화,
예술이 어우러진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은 여행자



© Travel Alberta/FOODBOOM GmbH

‘로키산맥의 성(Castle in the Rockies)’이라는 닉네임이 붙은 페어몬트 밴프 스프링스 호텔에서 진행되는 프라이빗 럭셔리 미식 투어. 1888년 처음 문을 연 이래 밴프의 유서 깊은 명소로 자리 잡은 호텔의 흥미로운 스토리를 들으며 런들 바(Rundle Bar)부터 그레이프(Grapes), 1888 춤 하우스(1888 Chop House), 버밀리온 룸(Vermillion Room), 스톡 푸드 & 드링크(STOCK Food & Drink)까지 5곳의 바와 레스토랑을 방문해 맛있는 음식과 음료를 즐길 수 있다. 실내에서 미식과 함께 감상하는 밴프의 아름다운 풍경은 덤. 런들 바의 시그니처 칵테일로 시작해 1888 춤 하우스에서 알버타 주 최고급 농산물을 활용한 요리를 맛보고 스톡 푸드 & 드링크에서 직접 로스팅한 커피와 디저트로 마무리되는 코스다. 최대 12명까지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투어로, 실내 일정으로만 이루어져 날씨에 구애 받지 않고 안락하고 맛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일정	금요일 15:00~18:00(여름 시즌에는 수·목요일 진행) 3시간 소요
미팅 장소	405 Spray Ave.
포함 사항	호텔 내 프리미엄 레스토랑과 바 5곳 방문, 식사와 음료 페어링
가격	195캐나다달러
웹사이트	albertafoodtours.ca/tours/eat-the-castle-at-fairmont-banff-springs-hotel

10 Jasper

재스퍼 도심에서 즐기는 로컬 미식 산책

Downtown Foodie Tour

다운타운 미식가 투어



로컬 음식을
중심으로
재스퍼의 문화와
역사를 알아보고
싶은 여행자

© Travel Alberta/Nancy Ferreira



© Travel Alberta/Nancy Ferreira

재스퍼는 아름다운 자연과 소도시의 매력을 품은 덕분에 하이킹이나 산악 자전거 타기 등 야외 액티비티에 관심 있는 이들이 즐겨 찾는 작은 산악 마을이다. 재스퍼에서 로컬 음식, 술, 그리고 역사와 문화 스토리텔링이 어우러진 입체적인 미식 체험을 원한다면 이 투어가 제격. 도심의 로컬 레스토랑 4곳을 차례로 방문해 대표 요리와 로컬 주류를 맛보며 현지 미식을 만끽할 수 있다. 식사 사이사이에는 걸어서

숨은 명소를 둘러보며 마을의 역사를 훑어본다. 로컬 가이드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 미식 경험에 문화적 깊이를 더할 수 것이 이 투어만의 차별점. 만 18세 이상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일정	매일 14:30~17:30, 약 3시간 소요
미팅 장소	Visitor Information Center, 500 Connaught Drive
포함 사항	현지 레스토랑 4곳 견학, 시식과 시음 코스
가격	125캐나다달러
웹사이트	jasperfoodtours.com/downtown-foodie-tour-1

11 Edmonton

트렌디한 도시 분위기를 200% 즐기는 법

Savour Strathcona Food Tour

스트래스코나 푸드 투어



© Alex Scuccato

현지 먹거리 시식은 기본,
로컬 비즈니스의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궁금한 여행자



© Alex Scuccato

에드먼튼의 올드 스트래스코나(Old Strathcona)는 활발한 예술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미술관, 극장, 트렌디한 레스토랑과 카페가 여럿 자리한 동네다. 특색 있는 현지 음식을 찾아 나서는 푸드 투어는 짧은 시간에 스트래스코나의 매력과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듯하다. 현지 전문 가이드가 동행해 음식 문화부터 역사, 예술, 건축까지, 에드먼튼의 다양한 매력을 알려주고, 지역 내 레스토랑과 카페에 들러 어디서도 접할 수 없는 로컬 비즈니스의 뒷이야기도 풀어 놓는다. 텍사스 스타일의 바비큐 샌드위치, 갓 구운 쿠키와 도넛, 알버타산 유기농 아이스크림 등 로컬 푸드 시식은 단연 이 투어의 매력 포인트. 한 달에 한 번, 토요일에 최대 12인까지 참가할 수 있는 소규모 투어로 진행된다.

일정	매달 1회, 토요일 11:00~14:00, 약 3시간 소요
미팅 장소	MEAT Restaurant
포함 사항	레스토랑 5곳 방문과 시식
가격	125캐나다달러
웹사이트	albertafoodtours.ca/tours/savouryandsweetstrathcona/



Wellness Retreats

01 Spa

Kananaskis Nordic Spa

카나나스키스 노르딕 스파



산봉우리에 둘러싸인 복합 스파 시설. 하이드로테라피를 위한 냉온수 수영장과 핀란드식 사우나, 러시아식 사우나, 유칼립투스 한증막 등 다양한 실내외 시설을 갖췄고, 해먹이나 캠프파이어 같은 휴식 공간도 마련돼 있다. 전문 테라피스트가 제공하는 마사지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비스트로에서 건강한 식사를 하며 여유롭게 휴식을 즐길 수 있다. 캘거리에서 차로 1시간 정도 걸린다.

가격 종일권 135캐나다달러부터
야간권 115캐나다달러부터

웹사이트 knordicspa.com

02 Hotel

MTN House by Basecamp

MTN 하우스 바이 베이스캠프



캔모어에 본사를 둔 호스피털리티 브랜드 베이스캠프 리조트(Basecamp Resort)에서 운영하는 부티크 호텔이다. 캔모어 다운타운에서 가깝고 밴프 국립공원과 카나나스키스 컨트리(Kananaskis Country) 사이에 위치해 자연 속 모험과 럭셔리한 휴식을 모두 원하는 여행자에게 어울리는 장소. 재활용 목재와 돌 등 자연 소재를 활용한 인테리어 덕분에 편안하고 아늑한 분위기다.

Wellness Experience

2025년 가을 와일드우드 노르딕 스파(Wildwood Nordic Spa)가 호텔 내 새롭게 문을 연다. 호텔과 마찬가지로 자연 친화적 재료를 사용하는 한편, 전 세계 웰니스 전통과 자연의 에너지에 중점을 두고 설계했으며, 하이드로테라피, 한증막, 사우나, 레스토랑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가격 1박 134캐나다달러부터

웹사이트 www.basecampresorts.com

03 Hotel

Fairmont Banff Springs

페어몬트 밴프 스프링스

19세기 후반 캐나다 동부와 서부를 연결하는 대륙 횡단 철도를 건설하며 함께 문을 연 유서 깊은 호텔이다. 밴프 타운에서 차로 5분 정도 달리면 웅장한 산을 배경으로 '로키의 성'이라는 별칭에 걸맞은 고풍스러운

외관이 모습을 드러낸다. 여기에 수려한 전망과 고급스러운 다이닝 경험, 하이킹, 스키, 골프 등의 다양한 액티비티, 1888년부터 이어져온 오랜 전통과 세심한 서비스가 더해져 여전히 수많은 여행자의 발길을 끌어당긴다.

Wellness Experience

캐나다 로키의 아름다운 자연 풍경과 맑은 공기 속에서 즐기는 웰니스 체험은 페어몬트 밴프 스프링스의 빼놓을 수 없는 매력 요소다. 약 3,720제곱미터 면적의 스파 시설에선 실내 수영장과 냉온수 풀, 야외 온수 욕조, 사우나, 한증막, 프라이빗 라운지를 이용할



© Travel Alberta/Room Creative



© Travel Alberta/Room Creative



© Travel Alberta/North Grove Creative

수 있고, 로키산맥 아래에서 진행되는 야외 요가 수업 등 웰니스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가격 1박 679캐나다달러부터

웹사이트 www.fairmont.com/en/hotels/banff/fairmont-banff-springs.html

04 Hotel Resort

The Rimrock Resort Hotel

더 림록 리조트 호텔

설퍼산(Sulphur Mountain) 중턱에 등지를 튼 더 림록 리조트 호텔에선 밴프 타운과 그 주변의 로키산맥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 고즈넉한 자연에 폭 파묻힌 채 힐링을 원하는 이들에게 추천할 만하다. 밴프 타운에서 산 정상까지 이어지는 밴프 곤돌라(Banff Gondola) 탑승장이 바로 인근에 자리해 환상적인 일몰과 일출, 보드 워크 산책로, 전망대 등 정상의 즐길 거리를 누리기에 최적의 위치다.

Wellness Experience



© Travel Alberta

스파 트리트먼트 외에 퍼스널 트레이닝, 요가와 명상, 필라테스 등의 클래스를 운영한다. 보름달이 뜨는 밤에 진행되는 사운드 배딩(Sound

Bathing)은 이곳만의 독특한 웰니스 프로그램. 밴프 국립공원 하이킹, 보우강 패들링 같은 아웃도어 액티비티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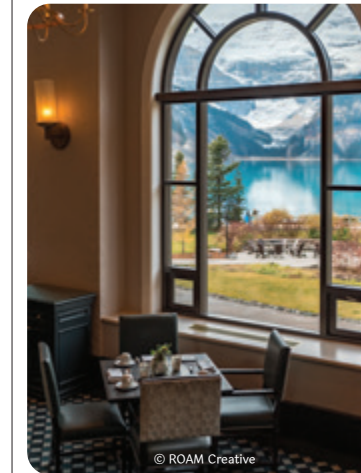
가격 1박 379캐나다달러부터

웹사이트 www.rimrockresort.com

05 Hotel

Fairmont Chateau Lake Louise

페어몬트 샤토 레이크 루이스



© ROOM Creative

에메랄드빛 레이크 루이스와 아찔하게 솟은 산봉우리. 페어몬트 샤토 레이크 루이스는 캐나다 로키를 떠올릴 때 상상하는 그림 같은 장면이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지는 장소다. 19세기 철도 여행의 유산을 간직한 채 여러 차례 리노베이션을 거쳐 캐나다 로키를 대표하는 로맨틱한 호텔로 자리 잡았다. 539개의 우아한 객실은 산과 호수를 아우르는 멋진 전망을 자랑하고, 호텔 내 다양한 식음료 공간에선 지역 최고의 식자재로 선보이는 미식이 여행자를 사로잡는다.

Wellness Experience

다양한 명상 프로그램부터 피트니스 클래스, 하이킹 같은 산악 액티비티까지, 페어몬트 샤토 레이크 루이스에서의 웰니스 여정은 레이크 루이스의 정적인 에너지와 로키산맥의 생동감 넘치는 매력이 조화를 이룬다. 2025년 여름에는 최첨단 친환경 온열 테라피 공간인 베이스 글레이셜 워터스(BASIN Glacial Waters)가 오픈한다.



© Fairmont Chateau Lake Louise

가격 1박 499캐나다달러부터

웹사이트 www.chateau-lake-louise.com

06 Camping Glamping

Lodge

Métis Crossing

메티스 크로싱



© Travel Alberta/Cooper & O'Ha

에드먼튼에서 차로 1시간 20여 분 떨어진 스모키 레이크에 가면 캐나다 선주민과 유럽인의 혼혈인 메티스(Métis) 공동체의 뿌리를 확인할 수 있다. 알버타 주 최초의 메티스 문화 센터 메티스 크로싱 덕분이다. 이곳은 전시 관람은 물론, 공예 체험, 야생 투어, 숙박까지 가능한 복합 관광 단지다. 숙박 시설은 40개의 럭셔리 룩지와 천체 관측을 위한 돔형 객실, 캠핑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투숙객은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메티스 전통 음식도 맛볼 수 있다.

Wellness Experi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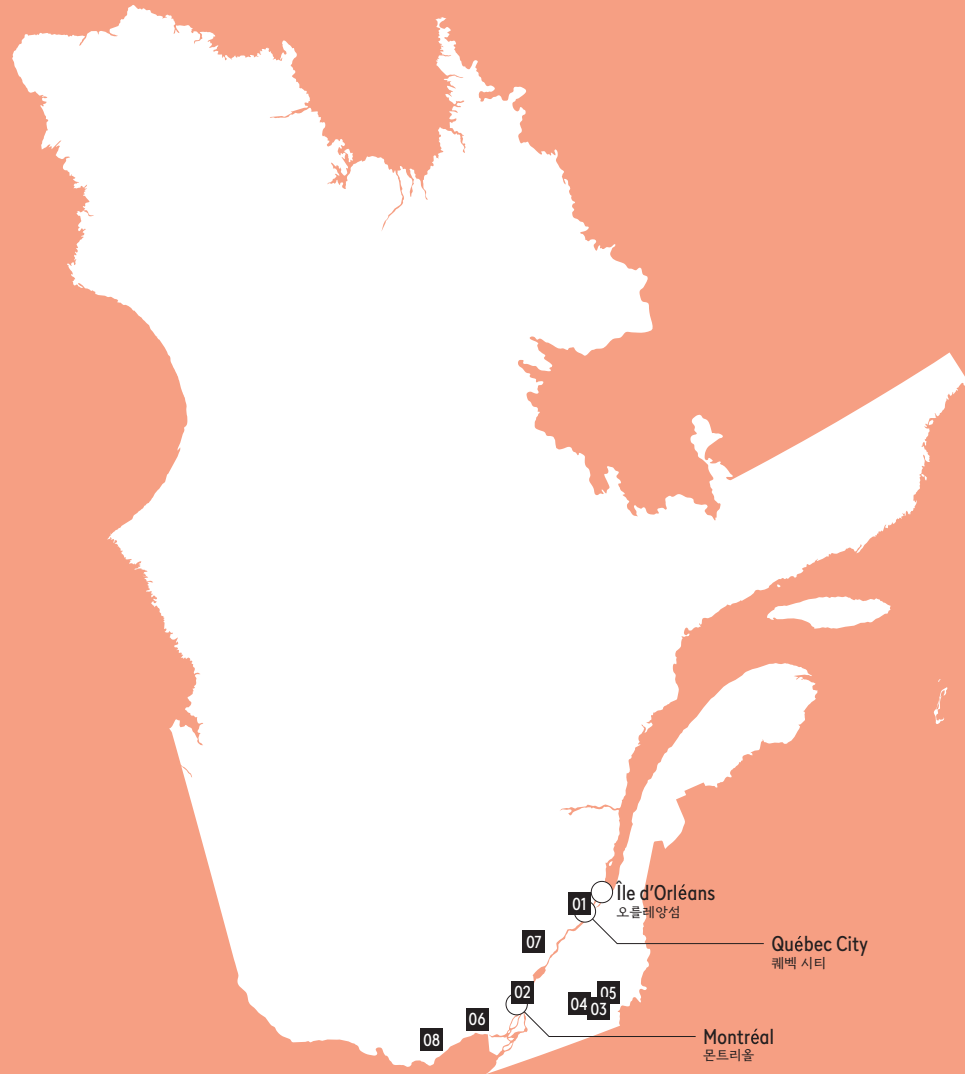
알버타 주 중부의 평화로운 자연과 메티스의 독특한 문화가 만난 색다른 웰니스 리트리트를 즐길 수 있다. 노스사스카추완강(North Saskatchewan River)이 내려다보이는 룩지 혹은 밤하늘을 오롯이 마주할 수 있는 스카이 워칭 돔 어느 곳에 머물든 잊지 못할 특별한 힐링을 선사할 것이다.

가격 룩지 1박 197캐나다달러부터

웹사이트 metisecrossing.com

Québec

퀘벡 주



퀘벡 주는 캐나다 동부의 다채로운 자연과 프랑스의 정취가 짙게 밴 오랜 전통이 조화를 이루며 독특한 매력을 뽐낸다. 유럽풍 건물이 남아 있는 고풍스러운 퀘벡 시티와 대도시 특유의 활기와 에너지가 느껴지는 몬트리올을 중심으로 프랑스계 캐나다인의 정체성을 경험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메이플 시럽과 치즈, 사과주 등이 특산물로 꼽히며, 프랑스식 요리법과 현지 식자재가 만나 형성된 독자적인 식문화도 흥미롭다. 사계절이 뚜렷하고 산악 지대와 울창한 숲, 계곡, 수많은 강과 호수를 모두 아우르는 풍요로운 자연환경 덕분에 봄과 여름에는 피크닉과 캠핑, 카야킹, 가을에는 단풍 트레킹과 스파 등 연중 내내 즐길 거리가 무궁무진하다.



Culinary Adventure

푸드 투어 프로그램으로 떠나는 미식 여행

Québec City 퀘벡 시티	01	A Taste of History 테이스트 오브 히스토리
	02	Broue-Tours 맥주 투어
	03	5-Course Gourmet Food and Historical Tour 5코스 미식과 역사를 즐기는 투어
Around Québec City 퀘벡 시티 근교	04	Epicurean Journey 미식이 있는 특별한 여정
	05	Taste Trail on the Island of Orleans 오를레앙섬 미식 트레일
	06	Beyond the Jean-Talon Market 장탈롱 마켓 너머로
Montréal 몬트리올	07	Micro-Distillery and Mixology 소규모 디스틸러리와 믹솔로지
	08	Montreal : Ultimate Chocolate Expedition 몬트리올, 궁극의 초콜릿 탐험
	09	Old Montreal Food & Drink Tour 올드 몬트리올 푸드 & 드링크 투어
	10	Under the Surface : Montreal's Chinatown 몬트리올 차이나타운의 이면

Wellness Retreats

자연 속 휴식처로 떠나는 웰니스 여행

Québec City 퀘벡 시티	01	Le Monastère des Augustines 르 모나스테르 데 오귀스틴
Montréal 몬트리올	02	Le Mount Stephen 르 마운트 스테픈
Eastern Township 이스턴 타운십	03	Manoir Hovey 마누아르 호비
	04	Spa Eastman 스파 이스트만
	05	Strøm Nordic Spa 스트럼 노르딕 스파
Laurentides 로랑티드	06	Calumet Falls - Retreat & Spa 칼뤼메 폴즈 리트리트 & 스파
Saint-Paulin 생폴랭	07	Le Baluchon Eco-Villégiature 르 발뤼송 에코 빌레지아튀르
Chelsea 첼시	08	Nordik Spa Village Chelsea 노르딕 스파 빌리지 첼시

Culinary Adventure

01 Québec City

역사 공부와 미식 경험을 동시에!

A Taste of History

테이스트 오브 히스토리



짧은 시간에
퀘벡 시티의
음식 문화와
역사를
파악하고 싶은
여행자



© GouvQc/Pierre Gouyou Beauchamps

퀘벡 시티에 머물며 관광과 미식 체험,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섭렵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지역 전문가와 함께 3시간가량 도시 곳곳을 거닐며 현지 전통 음식을 시식하고 역사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테이스트 오브 히스토리 투어에 참여하면 된다. 몽모랑시 공원 국가유적지(Lieu Historique National du Canada du Parc-Montmorency), 퀘벡 노트르담 대성당(Notre-Dame de Québec Basilica-Cathedral) 등 프랑스의 영향이 남아 있는 유산부터 세인트로렌스강(Saint Lawrence River)을 따라 이어지는 산책로 테라스 뒤프랭(Dufferin Terrace)까지 퀘벡 시티의 주요 명소를

둘러보고, 중간중간 도시의 유명 음식점에 들러 시식도 경험하는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

일정	수~토요일 15:00~18:00, 3시간 소요
미팅 장소	2 Rue Sainte-Anne
포함 사항	명소 입장료, 현지 레스토랑에서의 시식과 시음
가격	82.63캐나다달러
웹사이트	cicerone.ca/en/tour/visitors

02 Québec City

생로흐의 ‘힙’한 수제 맥주 문화를 즐기는 법

Broue-Tours

맥주 투어



© Étienne Dionne/Destination Québec cité



© Étienne Dionne/Destination Québec cité

수제 맥주를 사랑하고
퀘벡 로컬 브루어리가
궁금한 여행자

생로흐(Saint-Roch)는 미식, 문화, 패션, 나이트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활기차고 자유로운 분위기 덕분에 퀘벡 시티의 힙한 동네로 손꼽힌다. 캐나다 IT 기업의 본사들이 이 지역에 자리를 잡으면서 도시의 주요 상업 지구이자, 디지털 산업의 허브로 떠오르고 있다. 활발한 로컬 브루어리 문화 역시 생로흐의 매력 요소. 이 투어에 참여하면 현지 주민이 사랑하는 생로흐의 소규모 브루어리 3곳을 방문해 대표 수제 맥주를 시음하며 이 지역의 브루어리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 수제 맥주 생산자를 만나 맥주 양조 과정 전반에 대해 들을 수 있는 자리도 마련돼 있다. 맥주에 곁들일 간식으로 지역 식자재를 활용한 먹거리가 제공된다.

일정	토요일 14:00~17:00, 3시간 소요
미팅 장소	Noctem Artisans Brasseur
포함 사항	브루어리 3곳 견학과 맥주 9종 시음
가격	69캐나다달러
웹사이트	broue-tours.ca/en/tournees/st-roch

03 Québec City

미식과 문화가 결합된 이색 미식 경험

5-Course Gourmet Food and Historical Tour

5코스 미식과 역사를 즐기는 투어



© Ludovic Gauthier/Destination Québec cité

맛과 멋,
둘 다 챙기고 싶은
여행자



© Étienne Dionne/Destination Québec cité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올드 퀘벡(Old Québec)에서 고풍스러운 거리 풍경과 이 지역의 전통 미식을 함께 즐기는 투어. 전문 가이드의 안내로 올드 퀘벡의 어퍼 타운과 로어 타운을 구석구석 둘러보고 명성 높은 로컬 레스토랑 4곳에서 다양한 미식을 차례로 경험할 수 있다. 100년 된 석조 주택에 들어선 레스토랑에서 현지인이 사랑하는 수제 맥주와 양파 수프를 음미하고, 1956년 문을 연 레스토랑에서 현지 스타일로 재해석한 프랑스 요리를 맛보는 코스가 포함돼 있다. 각 코스마다 로컬 브루어리에서 생산된

Québec

맥주 또는 현지 와인 등이 함께 제공돼 한층 풍성한 시간을 만들어줄 것이다.

일정	매일 14:00~17:30 / 14:30~18:00 / 15:00~18:30 3시간 30분 소요
미팅 장소	Hq Services Touristiques
포함 사항	레스토랑 4곳 방문, 식사와 음료, 푸니쿨라 탑승료
가격	245캐나다달러
웹사이트	hqst.ca/tour/old-quebec-evening-gourmet-food-tour/#more

04 Around Québec C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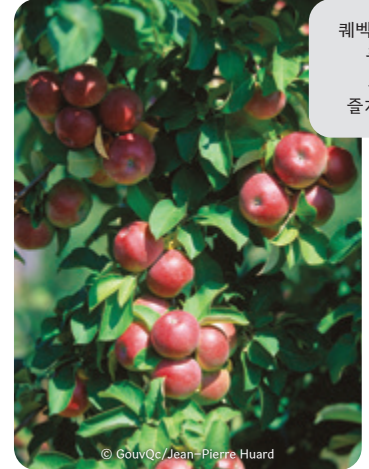
고급 SUV와 함께하는 프라이빗 투어

Epicurean Journey

미식이 있는 특별한 여정



© GouvQc/Mathieu Dupuis



© GouvQc/Jean-Pierre Huard

퀘벡 근교의 평화로운
풍경과 미식을
프라이빗하게
즐기고 싶은 여행자

퀘벡 근교의 아름다운 자연 풍경과 독특한 현지 미식을 체험하고 싶은 이들에게 추천하는 투어. 고급 SUV를 타고 오를레앙섬과 몽모랑시 폭포 공원(Parc de la Chute-Montmorency)의 자연 경관을 감상하고 소규모 맥주 양조장, 와인러리, 농장을 방문하며 생산자와 교류하는 특별한 경험을 누릴 수 있다. 특히 몽모랑시는 퀘벡에서 가장 큰 규모의 폭포와 더불어 숲과 강이 어우러진 경치로 자연을 사랑하는 여행자에게 멋진 기억을 선사한다. 최대 2명까지 참여할 수 있는 프라이빗 투어로, 픽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행 일정은 참가자의 관심사에 맞춰 유연하게 조정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높은 만족도를 보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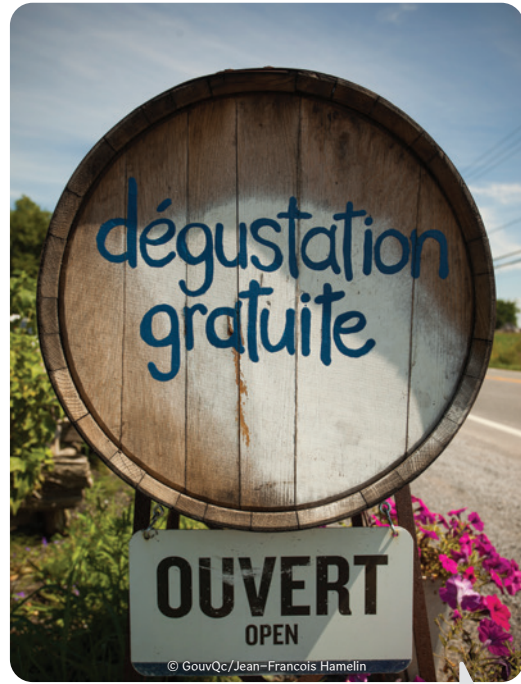
일정	별도 문의, 5시간 소요
포함 사항	교통편, 픽업 서비스, 미식 체험, 기념 사진 앨범
가격	675캐나다달러
웹사이트	conciergerieduterroir.com/en/our-specialty-epicurean-journey

05 Around Québec City

섬으로 떠나는 맛의 여정

Taste Trail on the Island of Orleans

오르레앙섬 미식 트레일



역사에 관심이 많고,
퀘벡 시티
근교의 풍경이 궁금한
여행자!

세인트로렌스강 위에 있는 오르레앙섬은 퀘벡 시티 도심에서 동쪽으로 약 5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17세기 프랑스 정착민이 발을 들이기 시작한 무렵에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으로, 당시에 지은 유서 깊은 건축물이 잘 보존돼 있다. 이 투어에 참여해 퀘벡 주에 남아 있는 당시의 문화 유산을 살펴보고 이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지역 생산자와

만나 소통하고 아이스 사이더, 와인, 누가, 초콜릿 등 다양한 현지 특산물을 맛볼 기회도 주어진다. 퀘벡 시티 올드타운에서 전용 버스를 타고 출발해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것도 장점. 퀘벡 시티를 여행하며 반나절 정도 시간을 내 근교 여행을 즐기고 싶은 이들에게 추천한다.

일정	매일 10:00~13:30 / 14:00~17:30, 약 3시간 30분 소요
미팅 장소	17 Rue du Fort Québec
포함 사항	교통편, 현지 미식 시식
가격	44.95캐나다달러
웹사이트	quebecbustour.com/services/taste-trail-on-the-island-of-orleans

Deep Dive

퀘벡 시티에서 농치면
안 될 미식 스폿

2019년 처음 문을 연 르 그랑 마르세 드 퀘벡(Le Grand Marché de Québec)은 퀘벡 시티의 새로운 미식 명소로 통한다. 도시에 있던 옛 농산물 시장을 대신해 지역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현대적 미식 허브로 자리 잡았다. 르 그랑 마르세 드 퀘벡을 방문하면 퀘벡 시티를 포함한 대도시 권역의 농산물 생산자와 가공업자, 식품 장인 등 100여 개 업체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현지 농부들이 재배한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구입하고, 시장 내 자리한 레스토랑과 카페에서 다양한 먹거리를 즐겨보자. 지역 예술가와 장인의 작품도 판매하고 야외 공연, 홀리데이 마켓 등의 이벤트가 마련되며 계절별로 제철 식자재 시식, 쿠킹 클래스 등의 워크숍이 수시로 열려 지역의 식문화를 좀 더 심도 있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www.legrandmarchedequebec.com



Deep Dive

장인의 손길로 태어나는
퀘벡 자연의 맛

퀘벡의 풍요로운 자연은 깊은 맛의 식자재를 탄생시켰고, 사계절 내내 행복한 식사를 선사해준다. 단풍나무의 수액으로 만든, 그 유명한 메이플 시럽부터 달콤새콤한 사이더와 블루베리, 신선한 버섯, 향긋한 치즈에 이르기까지, 퀘벡 음식의 근원을 이루는 것들을 논하려면 끝이 없을 듯하다. 전통을 지키며 혁신을 주저하지 않는 장인의 노력에 힘입어 퀘벡 자연의 맛은 즐거움의 절정을 향해 나아간다.

사계절의 풍미

메이플 시럽은 퀘벡을 대표하는 식자재다. 슈거 Shack(Sugar Shack)이라고 부르는 숲속의 오두막에서 증류한 메이플 시럽은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전통에 뿌리를 둔다. 단풍나무에서 채취한 수액을 가공해 제조한 시럽은 겨울을 인내하며 세상에 그 맛을 드러낸다. 깨끗한 눈 위에 시럽을 뿌려서 막대 사탕처럼 만들어 먹는 메이플 태피(maple taffy)는 여행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디저트 중 하나다.



© GouvQc/Mathieu Dupuis

즐기면서 퀘벡에 봄이 왔음을 실감한다. 달콤함의 절정 앞에서 칼로리에 대한 저항은 무너질 것이다. 일상의 미식 축제에 참석하고 싶다면, 퀘벡의 전원 마을에 들어선 슈거 Shack을 방문해보자. 몬트리올 인근의 라 카반느 뒤 쿠퍼르(La Cabane du Coureur)와 카반느 아 수크레 콘스탄틴(Cabane à Sucre Constantin), 퀘벡 시티에서 가까운 오레랑섬의 르 릴레 데 팡(Le Relais des Pins) 등을 추천한다.



© GouvQc/Michel Paquet

여름에는 퀘벡의 농산물 시장이 다채로운 과일과 채소로 가득 차고, 수확의 축제가 시작된다. 사람들은 현지 농장을 방문해 딸기, 블루베리, 라즈베리를 직접 수확하는 시간을 갖기도 한다. 이 계절, 퀘벡에서 즐길 수 있는 미식 체험의 하이라이트는 농가 레스토랑인 타블 샹페트르(tables champêtres)라 할 수 있다. 야외에 차려진 식탁에는 현지 식자재로 조리한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이 놓이고 농부가 안내하는 테이스팅을 통해 식자재의 원산지과 재배 과정에 대한 속 깊은 이야기도 들을 수 있다. 싱그러움 자연에 둘러싸여 경험하는 야외에서의 만찬은 음식을 향한 사랑의 감정을 싹트게 한다. 타블 샹페트르보다 거대한 미식 행사는 라 페트 데 방당쥬(La Fête des Vendanges)다. 보통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열리며, 이스턴 타운십의 멤프리메이고그 호수(Lake Memphremagog)를 따라 펼쳐진다. 1993년부터 퀘벡의 농부와 장인들이 모여 시작했는데, 오늘날 퀘벡에서 가장 큰 야외 미식 축제로 발전했다. 와이너리, 브루어리, 디스틸러리, 농장과 장인 등 300개 이상의 지역 업체가 동참한다.



© GouvQc/Dominique Lafond

보물처럼 채취자의 손길을 기다린다. 퀘벡 중부 지역에서 재배되는 크랜베리는 가을 음식에 상큼함을 더해준다. 이내 겨울이 오면, 눈 덮인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소나무 잎차 같은 독특한 겨울의 맛을 느낄 수 있다. 소나무 잎차는 오렌지 주스보다 3배 많은 비타민 C를 함유했다고 알려져 있다. 퀘벡의 겨울 땅은 고요하고 잠잠해지지만, 이내 또 다른 미식의 계절이 다가올 것이다.

장인의 열정을 담다



© GouvQc/Michel Paquet

음식의 장인들은 퀘벡의 특별한 땅과 기후에서 최고의 풍미를 이끌어낸다. 이 지역 음식 문화의 전통과 혁신은 그들의 열정에서 비롯된다. 추운 겨울과 온화한 여름, 적절한 습도 덕분에 퀘벡은 사과 재배에 이상적 기후를 갖췄다. 퀘벡의 농부와 장인은 아무리 보잘것없는 식자재일지라도 최대한 맛있게 활용하려는 욕망을 품은 듯하다. 평범한 사이더가 스파클링 사이더와 애플 아이스 사이더로 변주되는 것처럼 말이다. 이러한 혁신적 발상은 1980년대 후반에 로버트(Robert)와 조엘 데모이(Joëlle Demoy)와 같은 사람들이 몽테레지(Montréal)의 헤밍포드(Hemmingford)에 있는 시드레리 뒤 미노(Cidrierie du Minot)에서 스파클링 사이더를 생산하면서 시작되었다. 1990년대에 등장한 애플 아이스 사이더는 라 시드레리 생니콜라스(La Cidrierie St-Nicholas)에서 처음 판매됐다. 특히 도맹 피나클(Domaine Pinnacle)은 애플 아이스 사이더 빈티지의 선두 주자로 알려져 있으며, 60개 이상의 수상 경력을 자랑한다. 퀘벡 전역에는 다양한 사이더 체험이 기다리고 있다. 이스턴 타운십의 클로 사라냐(Clos Saragnat)와 유니옹 리브르 시드르 에 뱅(Union Libre Cidre et Vin), 로랑티드 지역의 도맹 라프랑스(Domaine Lafrance)와 시드레리 라크루아(Cidrierie Lacroix) 같은 사이더리를 방문해보자.



© GouvQc/POST 480

치즈의 장인은 미식 애호가들이 스모키한 치즈부터 풀바디, 짙직한 커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을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로리진 드 샬브와(L'Origine de Charlevoix)다. 20일에서 25일간 숙성한 부드러운 혼합 치즈로, 헤이즐넛 향이 오래 남는 저온 살균 우유로 제조한다. 이는 유제품 생산업체로 시작해 1990년대에 치즈 생산업체로 전환한 레테리 샬브와(Laiterie Charlevoix)가 자랑하는 고급 치즈 중 하나다. 이스턴 타운십에서는 다양한 수상 경력의 양젖 치즈를 생산하는 프로마주리 누벨 프랑스(Fromagerie Nouvelle France)나 가족이 운영하는 프로마주리 라 스타시옹(Fromagerie La Station) 등의 흥미로운 가게를 찾을 수 있다. 퀘벡 시티와 가까운 프로마주리 데 그롱딘(Fromagerie des Grondines)은 유기농 인증 치즈로 유명하다. 몬트리올 인근의 프로마주리 오 그레 데 샹(Fromagerie Au Gré des Champs)은 생우유로 치즈를 만들며, 단단하고 과일 향이 나는 카리냥 샬리에르(Carignan-Salières)부터 특 소는 페닝구앵(Péningouin)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을 선보인다.



© GouvQc/David Maman



© GouvQc/Jean-François Frenette

버섯과 블루베리는 어울리지 않는 한 쌍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야생의 본질을 공유한다. 퀘벡에서는 사그네 라크생장(Saguenay-Lac-Saint-Jean)의 야생 블루베리, 샬브와와 바생로랑(Bas-Saint-Laurent), 모리시(Mauricie)의 살구버섯과 모델 버섯은 요리의 품격을 높이고자 하는 셰프에게 거부할 수 없는 귀중한 보물이다. 다시 말하지만, 자연은 야생의 텃밭을 제공하고 요리사는 이를 최대한 활용한다. 사그네 라크생장의 메인 스트리트에 있는 식료품 부티크인 델리스 뒤 라크생장(Délices du Lac-Saint-Jean)도 잊지 말 것. 잼, 시럽, 사탕 등 야생 블루베리 향이 특징인 다양한 유기농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퀘벡 지역 숲의 아한대 생태계와 산성 토양은 희귀한 버섯을 탄생시키기도 하다. 모리시에서 발견할 수 있는 킹 볼리트(king boletes)나 블랙 트럼펫(black trumpets) 버섯은 매력적이고 독특한 맛과 향이 뛰어나다. 최근에는 퀘벡의 애팔래치아 지역에서 발견되는 북미 토착 품종인 애팔래치아 송로버섯도 달콤하고 복합적인 향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9월에 바생로랑 지역의 카무라스카(Kamouraska) 마을을 방문한다면, 샹피옹 포레스티에 축제(Festival des Champignons Forestiers)에서 온갖 버섯의 향연을 맡아볼 수 있다.

Deep Dive

퀘벡의 로컬 식자재를
찾아가는 미식 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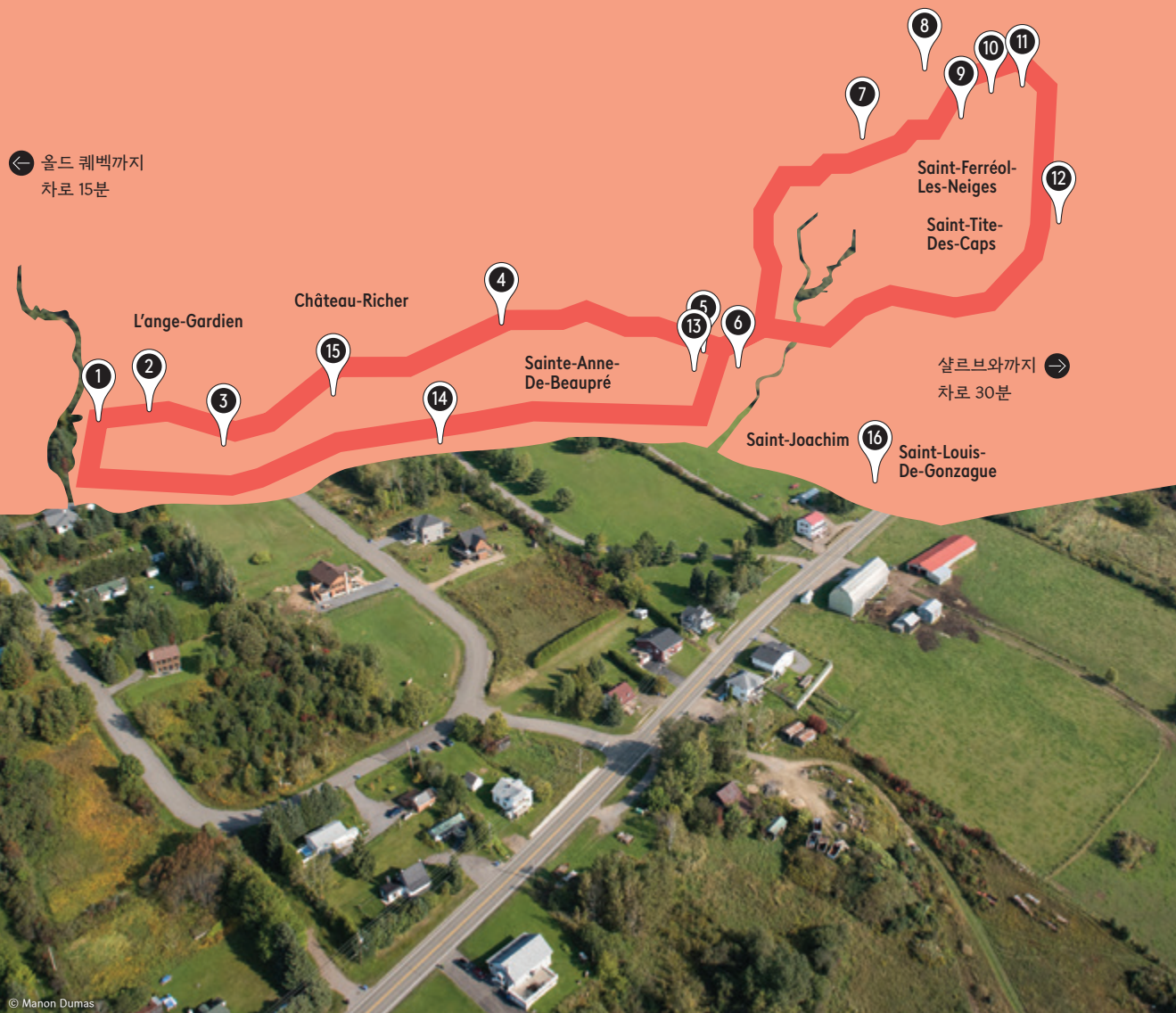
퀘벡 시티에서 세인트로렌스
강을 따라 북동쪽으로
약 40킬로미터 떨어진
코트드보프레(Côte-de-
Beaupré)는 평화로운
목가적 풍경과 오랜 농업
문화를 간직한 지역이다.
코트드보프레의 풍부한 농업
유산과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미식 루트를 소개한다.

cotedebeaupre.com/en/
itineraires/circuitgourmand

코트드보프레
미식 루트

110
총길이(km)

16
방문 스폿



2024년 코트드보프레의 소규모 농장과
생산자들이 모여 이 지역의 농업 전통과
장인 정신을 지켜가기 위해 코트드보프레
미식 루트(Côte-de-Beaupré da la
Circuit gourmand)를 공개했다. 지역 고유의
맛을 경험할 수 있는 총 110킬로미터의
여정으로, 이 루트를 따라가며 산과 강,
들판이 어우러진 자연 속에서 독창적인
농업 전통을 지켜온 농부와 생산자를
만나고 지역의 별미를 만끽할 수 있다.

코트드보프레의 농장 대부분은
소규모 가족 경영 방식으로 운영되고,
17세기 퀘벡 주의 식탁을 책임졌던 전통
농장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것이
특징이다. 로컬 베이커리, 마이크로
브루어리, 꿀 농장, 소규모 와이너리,
목장 등을 방문해 각종 빵과 페이스트리,
꿀, 아이스크림, 와인, 수제 맥주 등
코트드보프레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맛보고,
체험 농장을 방문해 과일과 채소 등을
직접 수확해볼 수도 있다. 현지 식자재를
활용하는 팜투테이블 레스토랑도 곳곳에
자리해 있으니, 중간중간 들러 여유롭게
식사를 즐겨도 좋다.



- 1 **FERME LE COMTE DE ROUSSY**
농장 마켓, L'Ange-Gardien
- 2 **VIGNOBLE DOMAINE L'ANGE GARDIEN**
와이너리, L'Ange-Gardien
- 3 **PRALINE ET CHOCOLAT**
파티스리, Château-Richer
- 4 **CAFÉ APOLLO**
카페, Sainte-Anne-De-Beaupré
- 5 **LES BONYEUSES**
베이커리, Sainte-Anne-De-Beaupré
- 6 **LA GRANGE - BRASSERIE ITALIENNE**
레스토랑, Sainte-Anne-De-Beaupré
- 7 **BISTRO NORDIK**
레스토랑, Du Beau-Pré, Beaupré
- 8 **BRASSEUR DES MONTS**
맥주 브루어리, Saint-Ferréol-Les-Neiges
- 9 **LE SHACK À PATATES**
레스토랑, Saint-Ferréol-Les-Neiges
- 10 **AUBERGE & CAMPAGNE**
레스토랑, Saint-Ferréol-Les-Neiges
- 11 **FERME LES CANARDISES**
오리 농장, Saint-Ferréol-Les-Neiges
- 12 **FERME QUÉBEC-OIES**
거위 농장, Saint-Tite-Des-Caps
- 13 **ÉPICERIE-CAFÉ LES TROIS BECS**
카페, Sainte-Anne-De-Beaupré
- 14 **MICROBRASSERIE BEAUX PRÉS**
맥주 브루어리, Sainte-Anne-De-Beaupré
- 15 **AUBERGE BAKER**
레스토랑, Château-Richer
- 16 **LA GRANDE FERME - SITE HISTORIQUE**
유적지, Saint-Joachim

06 Montréal

로컬 마켓에서 출발하는
미식 여행

Beyond the Jean-Talon Market

장탈롱 마켓 너머로



© GouvQc/André Quenneville



© Tourisme Montréal/Anne-Marie Pellerin

여행지에서
로컬 마켓은
빼놓지 않고
찾아가는
시장 마니아라면!

몬트리올의 뿌띠 이탈리아(Petite Italie) 지역 중심부에 자리한 장탈롱 마켓은 몬트리올의 오래된 시장 중 하나다. 현지인과 여행객 모두에게 사랑받는 몬트리올의 대표 명소. 제철 농산물을 판매하는 노점은 물론, 정육점, 빵집, 식료품점 등 소규모 상점이 가득해 다양한 지역 특산물을 구할 수 있다. 투어에 참여해 장탈롱 마켓과 뿌띠 이탈리아 지역을 걸어 다니며 현지에서 생산된 신선한 농산물과 먹거리를 시식해보자. 로컬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시고 현지 초콜릿 공장을 방문하며 시장에서 샤키테리와 지역 특산품도 맛볼 수 있다. 투어가 끝난 후에는 가이드가 알려주는 현지인 추천 맛집 리스트를 참고해 나만의 투어를 이어가도 좋다.

일정	매일 12:00~15:00 / 13:00~16:00, 약 3시간 소요
미팅 장소	Resto Los Planes
포함 사항	현지 시장 견학과 시식
가격	95캐나다달러
웹사이트	spadeandpalacio.com/montreal-food-tour

07 Montréal

칵테일로 맛보는
몬트리올

Micro-Distillery and Mixology

소규모 디스틸러리와 믹솔로지



© Nikker MTL



© rabihrechdan,photographer

새로운 경험과
지식에 목마른 여행자와
애주가

지역 특산주와 칵테일을 맛보며 몬트리올의 매력에 취하는 시간. 고품질 증류주를 소규모로 생산하는 현지 마이크로 증류소를 방문해 증류 과정과 역사에 대해 배우고, 다양한 증류주와 독특한 칵테일을 시음할 수 있는 투어다. 전문 바텐더가 진행하는 클래스를 통해 전통 칵테일부터 창의적인 음료까지 다양한 제조 기법의 기초도 배울 수 있다. 몬트리올의 로컬 증류주와 다양한 칵테일을 시음하며 이 도시의 술 문화를 제대로 즐기고 싶은 여행자에게 특히 추천한다.

일정	별도 문의, 약 5시간 소요
포함 사항	칵테일 바 견학과 시음
가격	195캐나다달러
웹사이트	www.roundtablefoodtours.com/tour/micro-distillery-and-mixology

08 Montréal

달콤한 도시,
몬트리올 초콜릿 완전 정복

Montreal: Ultimate Chocolate Expedition

몬트리올, 궁극의 초콜릿 탐험



© Josée Marino

몬트리올
빈투바 초콜릿의
비밀을
파헤치고 싶은
초코홀릭이라면!



© Sarah-Jade Champagne/Agence KICK inc.

몬트리올이 초콜릿으로 유명한 도시라는 사실을 아는지? 특히 초콜릿의 원료가 되는 카카오 빈 선택부터 가공, 생산까지 전 과정을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만드는 빈투바(Beano-to-bar) 초콜릿 문화가 발달한 도시로 손꼽힌다. 초콜릿 애호가라면 이 투어를 놓치지 말자. 싱글 오리진 초콜릿을 포함해 몬트리올에서 만드는 9종의 초콜릿을 맛보고, 초콜릿의 역사와 빈투바 초콜릿 생산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자리다. 수상 경력에 빛나는 몬트리올 초콜릿은 물론, 초콜릿을 테마로 한 달콤 쌉쌀한 미식을 맛보고 현지의 초콜릿 장인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기다리고 있다. 트렌디한 카페와 개성 있는 상점이 모여 있어 젊은 층과 예술가들이 즐겨 찾는 몬트리올 마일엔드(Mile End) 지역에서 진행되는 투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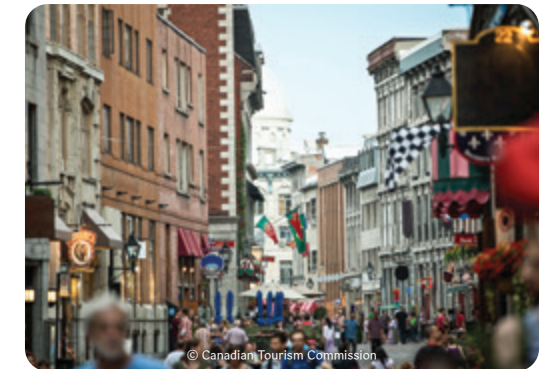
일정	수~금요일 9:45~14:00 / 12:45~17:00 약 4시간 15분 소요
미팅 장소	5333 Casgrain Ave.
포함 사항	초콜릿 공장 견학, 초콜릿 시식 및 시음 코스
가격	165캐나다달러
웹사이트	www.roundtablefoodtours.com/tour/montreal-ultimate-chocolate-expedition

09 Montréal

올드 몬트리올의 맛과
역사 속으로

Old Montreal Food & Drink Tour

올드 몬트리올 푸드 & 드링크 투어



© Canadian Tourism Commission



© Le Petit Dep Saint Paul

지속 가능한
여행을
실천하고 싶은
미식가

지속 가능한 여행 철학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고 현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 여행사 로컬 몬트리올 투어즈(Local Montreal Tours)가 운영하는 도시 탐험 투어다. 카페와 레스토랑, 수제 맥주 양조장을 방문해 훈제 연어 베이글, 선인장 잎 타코, 푸틴, 카눌레 등 현지 먹거리를 맛보며 이 지역만의 미식 문화를 폭넓게 경험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전문가 가이드와 함께 몬트리올 구시가지의 역사적인 명소와 건축물을 둘러보는 동안 도시의 유서 깊은 면모도 함께 엿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일정	월·수·목요일 13:00~16:00 금요일 13:00~16:00 / 13:30~16:30 토요일 11:00~14:00 / 11:30~14:30 / 12:00~15:00 일요일 11:00~14:00, 약 3시간 소요
미팅 장소	Crew Collective & Café
포함 사항	현지 미식으로 구성된 시식 코스
가격	124캐나다달러
웹사이트	localfoodtours.com/montreal/tours/old-montreal-food-tour

10 Montréal

몬트리올 차이나타운
들여다보기

Under the Surface : Montreal's Chinatown

몬트리올 차이나타운의 이면



몬트리올 차이나타운의
속살을 경험하고 싶은
이에게 추천!

몬트리올은 다양한 아시아계 커뮤니티가 공존하는 도시다. 몬트리올에서 인기 있는 아시아 음식이 궁금하다면? 몬트리올 차이나타운의 매력을 파헤치는 투어가 그 답을 찾는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 19세기 말 이 도시로 건너온 중국 이민자들이 모여 형성한 차이나타운의 기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지역의 변화를 살피고 정통 중국 요리를 만날 수 있는 5곳의



레스토랑을 방문한다. 각 음식점에서는 쓰촨, 후난 등 중국 각 지역 특색이 돋보이는 요리와 디저트를 맛보며 이민 역사와 차이나타운에 얽힌 독특한 이야기를 접할 수 있다. 음식과 문화, 역사를 하나로 묶어 몬트리올의 문화적 다양성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일정	매일 11:30~15:30, 약 4시간 소요
미팅 장소	De Maisonneuve monument in Place D'armes
포함 사항	차이나타운 견학과 시식
가격	120캐나다달러
웹사이트	www.roundtablefoodtours.com/tour/montreal-chinatown

Auberge La Chocolatiere

① 오베르주 라 쇼콜라티에르
노스 해틀리(North Hatley)는 이스턴 타운십에 속한 작은 마을로, 마사위피 호수(Lake Massawippi)의 그림 같은 풍경과 구릉 지대가 어우러진 곳이다. 오베르주 라 쇼콜라티에르(Auberge La Chocolatière)를 방문해 달콤한 여정을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 지역 농산물을 사용해 초콜릿 장인이 만드는 고급 초콜릿과 다양한 디저트, 로컬 꿀과 케이폴시럽 등 다양한 먹거리를 판매하는 곳이다. 원하는 디저트를 골라 호숫가 산책을 즐기며 맛봐도 좋다.



Bistro Le Tap Room

② 탭 룸 비스트로
마사위피 호숫가에 자리한 유서 깊은 부티크 호텔 마누아 호비(Manoir Hovey)에 지역 최고로 손꼽히는 캐주얼 비스트로 탭 룸(Tap Room)이 있다. 퀘벡산 와규 버거, 랍스터 롤 등의 지역 별미와 현지 식자재를 활용한 제철 메뉴를 선보인다.



Domaine Ives Hill & Marché de Soir de Compton

③ 도멘 이브 힐 & ④ 컴튼 저녁 시장
이스턴 타운십의 농업 중심지로 불리는 컴튼(Compton)으로 향한다. 농업 관광이 발달한 곳으로, 로컬 농산물과 농장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다. 블랙커런트 농장과 와이너리가 자리한 도멘 이브 힐(Domaine Ives Hill)을 둘러보고, 매주 목요일 오후에 열리는 컴튼 저녁 시장(Compton Evening Market)도 놓치지 말자. 치즈, 과일, 채소, 베이커리 등 현지 먹거리가 가득하다.



Deep Dive

식도락가를 위한
이스턴 타운십 당일 여행
추천 코스

퀘벡 남동부의 평화로운 전원 풍경과 미식, 예술이 조화를 이룬 이스턴 타운십은 퀘벡의 숨은 보석이라 불린다. 몬트리올에서 차로 2시간 남짓이면 갈 수 있어 주말 여행지로도 인기. 하루쯤은 자연 속에서 여유를 만끽하며 미식을 즐기고 싶은 이들에게 이스턴 타운십 여행 코스를 추천한다.

www.easterntownships.org/
trip-ideas/88/a-one-day-foodie-getaway-in-the-region

코스

- ① 오베르주 라 쇼콜라티에르
- ② 탭 룸 비스트로
- ③ 도멘 이브 힐
- ④ 컴튼 저녁 시장
- ⑤ 르 생키엠 엘레망
- ⑥ 스타시옹 뒤 센 루즈

총길이
52km



© GouvQc/Gaëlle Leroyer



© GouvQc/Gaëlle Leroyer

Le 5e Élément

⑤ 르 생키엠 엘레망

퀘벡 주의 농업 & 미식 관광 인증 마크인 '테루아 에 사브어 뒤 퀘벡(Terroir et Saveur du Québec)'을 받은 생키엠 엘레망(Le Cinquième Élément)은 이스턴 타운십 미식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 팜투테이블 콘셉트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독창적인 요리를 선보인다.



© GouvQc/Gaëlle Leroyer



© GouvQc/Gaëlle Leroy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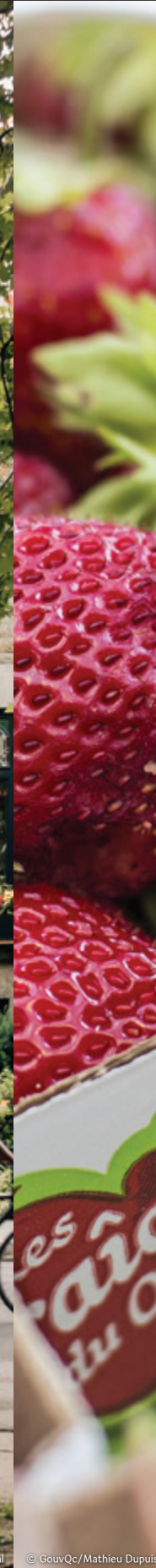
Station du Chêne Rouge

⑥ 스타시옹 뒤 셴 루즈

당일 여행으로 마무리해도 되지만, 이스턴 타운십에서 하룻밤 머물고 싶다면 스타시옹 뒤 셴 루즈(Station du Chêne Rouge)를 추천한다. 노스 해틀리 인근의 산악 지대에 자리한 글램핑 리조트로, 울창한 나무에 둘러싸인 채 미니 샬레 또는 사파리 텐트에 머물며 힐링을 경험할 수 있다.



© Laurene Tinel/Tourisme Montréal



© GouvQc/Mathieu Dupuis



© Tourisme Montréal/Madone - Maude Chauvin



© GouvQc/Bianca Des Jardins

© Le Monastere des Augustines

Wellness Retreats

Québec

01 Hotel

Le Monastère des Augustines

르 모나스테르 데 오귀스틴



퀘벡 시티 구시가지에 자리한 르 모나스테르 데 오귀스틴의 원형은 1639년에 설립된 북미 최초의 병원으로, 18세기 초 이후에는 수녀원으로 사용됐다. 그후 2015년에는 10년간의 대규모 복원 프로젝트를 통해 웰니스 리트리트로 새롭게 태어났다. 수녀원의 소박한 생활 방식을 재현한 전통적 객실과 미니멀리즘 디자인의 현대적 객실로 나뉘며, 호텔 내 레스토랑 르 비부아(Le Vivoir)에서는 식사 자체를 명상처럼 즐기는 ‘마인드풀 이팅(Mindful Eating)’을 선보인다. 유기농 로컬 식자재로 만든 건강식을 제공하는데 글루텐 프리, 비건, 저염식 옵션이 준비돼 있다. 투숙객들은 수녀원과 병원의 주요 자료와 유물 5만여 점을 소장한 건물 내 의료 역사 박물관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다.

Wellness Experience



유서 깊은 수도원 건물에서 요가, 명상, 자연 치유 워크숍, 맞춤형 마사지와 트리트먼트 등 몸과 마음의 균형에 초점을 맞춘 여러 프로그램이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운영된다. 개인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식습관, 스트레스 관리, 수면 패턴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웰빙

전략을 제시하는 개별 상담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수녀원의 옛 전통을 그대로 이은 ‘침묵의 아침(Silent Morning)’은 이곳만의 상징적인 의식으로, 말 그대로 침묵 속에서 아침 식사를 하며 하루를 의미 있게 시작하도록 돕는다.

가격 웰니스 익스피리언스 2박 패키지 1인 769캐나다달러부터

웹사이트 monastere.ca

02 Hotel

Le Mount Stephen

르 마운트 스테픈



몬트리올의 중심가 골든 스퀘어 마일(Golden Square Mile)에 자리한 르 마운트 스테픈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럭셔리 부티크 호텔이다. 19세기 말에 지은 캐나다의 철도 재벌 조지 스티븐 경(Sir George Stephen)의 저택을 리노베이션해서 2017년에 개장했다. 외관은 빅토리아풍의 섬세한 조각과 웅장한 석조 구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안으로 들어서면 세련된 인테리어와 현대적 시설이 조화를 이룬다. 총 90개의 객실과 스위트룸을 보유하고 있으며, 모든 객실은 크로모테라피 레인 샤워, 자동화 조명 및 온도 제어 시스템, 네스프레소 커피 머신 등을 갖췄다. 몇몇 스위트룸은 고풍스러운 대형 창문과 천장 물딩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 마치 역사 속 한 장면에 머무는 듯한 느낌을 준다.

Wellness Experience

르 마운트 스텝은 자체 스파 브랜드 엠비오스파 프레스티지(MBIOSPA Prestige)를 운영하고 있다. 맞춤형 안티 에이징 프로그램, 딥 티슈 마사지, 페이스 트리트먼트 등의 스파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표 프로그램인 ‘시그니처 이스케이프(Signature Escape)’는 천연 재료와 향을 응용한 감각적인 트리트먼트가 특징이다. 최신식 기구를 구비한 피트니스 센터도 24시간 이용 가능하다.

가격 1박 459캐나다달러부터
웹사이트 www.lemountstephen.com

03 Hotel

Manoir Hovey

마누아르 호비



마사워피 호수를 바라보고 있는 마누아르 호비는 자연 속 고요함에 둘러싸인 5성급 리트리트 호텔이다. 200여 년 전 미국 남부 출신의 사업가가 여름 별장으로 사용했던 웅장한 저택을 개조한 곳으로, 37개의 객실과 스위트를 갖췄다. 북미의 전통적 별장 스타일과 현대적 감각이 절묘하게 어우러지고 대부분의 객실에 테라스가 딸려 있다. 객실마다 벽난로, 대형 욕조, 고급 침구를 구비한 덕분에 투숙객은 따뜻한 별장에 머무는 듯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호텔 내 레스토랑 르 하틀리(Le Hatley)는 로컬 식자재를 사용한 프렌치 캐나다인 요리를 선보이며, 계절마다 달라지는 테이스팅 메뉴를 낸다.

Wellness Experience

호수가 마주보이는 실외 인피니티 온수 풀과 사우나 등의 시설이 마련되어 있으며, 전용 스파 공간에서는 맞춤형

마사지와 트리트먼트를 받을 수 있다. 투숙객을 대상으로 한 요가 프로그램이나 숲속 트레일을 따라 걷는 명상 산책도 인기가 높다. 계절에 따라 마사워피 호수 위에서 카약이나 패들보드 액티비티도 즐길 수 있다.

가격 1박 460캐나다달러부터
웹사이트 manoirhovey.com

04 Hotel

Spa Eastman

스파 이스트만



1977년 오픈한 스파 이스트만은 캐나다 웰빙 문화의 선구자 중 하나로 평가받는 곳이다. 몸과 마음의 건강은 물론, 식생활까지 아우르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리트리트 프로그램으로 유명하다. 약 134만 제곱미터 넓이의 방대한 부지 안에 총 10개의 숙박용 파빌리온과 68개의 객실이 자리해 있는데, 모든 객실에 텔레비전과 전화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디지털 디톡스를 위해 외부 파빌리온에선 와이파이도 제공하지 않는다.

Wellness Experience

스파 이스트만의 웰니스 시설은 18개 이상의 온천 풀과 냉탕, 사우나, 실내의 휴게 공간을 아우른다. 최신 항염증 영양학, 스트레스 관리, 면역 증진 등을 주제로 열리는 전문가의 다양한 워크숍과 액티비티 프로그램도 강점. 특히 몸의 즉각적인 변화를 위해 글루텐, 유제품, 정제 설탕을 배제하고

저염과 항염 레시피로 구성된 ‘활력 식단(Tonique Cuisine)’은 이곳만의 차별화 요소로 꼽힌다.

가격 홀리스틱 리트리트 4박 패키지 1인 1,612캐나다달러부터
웹사이트 www.spa-eastman.com

05 Spa

Strøm Nordic Spa

스트럼 노르딕 스파



캐나다 퀘벡 주에서 5개 지점을 운영하는 스트럼 노르딕 스파는



북유럽식 열 테라피(Thermotherapy)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웰니스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 2009년 몬트리올 언즈 아일랜드(Nuns’ Island)에 첫 번째 지점을 열었고, ‘자연, 웰빙 그리고 아름다움의 조화’를 핵심 콘셉트로 삼아 퀘벡 시티, 셔브룩 등에 차례로 스파를 확장했다. 모든 지점은 주변의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도록 설계해 고요함 속에서 깊은 몰입을 유도한다. 인피니티 풀, 사우나, 스팀룸, 플로테이션 배스, 냉탕 시설을 갖춰 뜨거운 사우나와 냉탕을 오가는 온열 테라피를 체험할 수 있고, 마사지와 페이스 트리트먼트부터 플로테이션 테라피, 사운드 힐링, 명상 프로그램, 맞춤형 스파 패키지까지 폭넓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부지 내 레스토랑에서는 퀘벡 로컬 농가와 협업해 공급받은 식자재로 조리한 건강식을 맛볼 수 있다.

가격 온열 테라피 64캐나다달러부터
웹사이트 www.stromspa.com

06 Hotel

Calumet | Falls - Retreat & Spa

칼뤼메 폴스 리트리트 & 스파



몬트리올과 오타와 사이, 자연 그대로의 숲과 강이 살아 숨 쉬는 곳에 자리한 칼뤼메 폴스 리트리트 & 스파는 깊은 휴식을 선사하는 곳이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도시를 벗어나 조용한 웰니스 리트리트를 찾는 이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라 할 수 있다. 독채형 객실은 자연 경관을 최대한 실내로 끌어들이도록 설계되었는데, 창밖으로 펼쳐지는 숲과 폭포를 바라보면 마음 깊은 곳까지 평온해지는 기분이 들 것이다.

Wellness Experience

칼뤼메 폴스 리트리트 & 스파는 ‘자연과 함께하는 치유’를 강조한다. 요가, 명상, 웰빙 컨설팅은 물론, 아로마 테라피, 사운드 힐링, 포레스트 테라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아침에는 폭포 옆 숲길을 걷고, 낮에는 요가 매트를 들고 나가 자연 속에서 수련을 하며, 저녁에는 별빛 아래에서 명상에 전념할 수 있다. 현지 오가닉 식자재로 만든 건강식을 제공하며 비건, 글루텐 프리, 케토 등의 식단 옵션도 요청할 수 있다.



가격	독채 캐슬 객실 1박 800캐나다달러부터
웹사이트	calumetfalls.com

07 Lodge Res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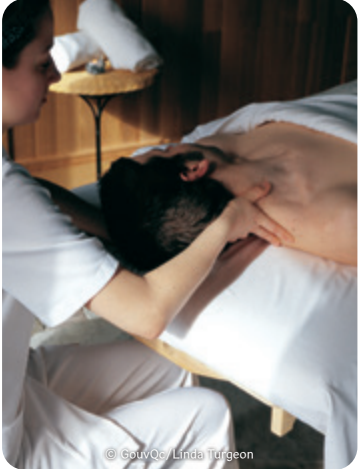
Le Baluchon
Eco-Villegiature

르 발뤼송 에코 빌레지아튀르



르 발뤼송 에코 빌레지아튀르는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에코 리조트다. 약 404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광활한 자연 속에 자리해 있으며, 에코 롯지 스타일의 숙박 시설은 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설계됐다. 객실마다 달려 있는 대형 창문과 발코니에서는 일출과 일몰, 별빛 가득한 하늘을 감상할 수 있고, 레스토랑에서는 지역 농산물을 80퍼센트 이상 활용하는 팜투테이블 정책에 따라 건강하고 창의적인 로컬 요리를 맛볼 수 있다.

Wellness Experience



고요한 숲과 강을 배경으로 자리한 웰니스 시설은 스파와 실내 수영장, 사우나를 포함한다. 그중 야외 스파 공간에서는 강을 바라보며 온수 목욕을 경험할 수 있고, 마사지와

트리트먼트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35킬로미터로 이어지는 산책로를 따라 하이킹과 사이클링을 즐기거나 승마, 카야킹 등의 액티비티를 통해 자연의 기운을 오롯이 느껴보길 추천한다.

가격	스파 패키지 1인 409캐나다달러부터
웹사이트	baluchon.com

08 Spa

Nordik Spa Village
Chelsea

노르딕 스파 빌리지 첼시

‘웰니스 마을’을 콘셉트로 시작한 스파 브랜드 노르딕 스파 빌리지의 첫 번째 시설로, 2005년 오타와에 인접한 퀘벡 주 첼시에 문을 열었다. 9개의 야외 온천과 7개의 테마 사우나, 20여 개의 실내외 마사지 공간, 4개의 레스토랑 등 북미 최대 규모의 스파 시설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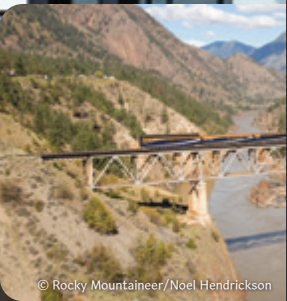
자랑한다. 특히 입욕 시 사해처럼 몸이 저절로 뜨는 엡섬 염수 풀, 향과 증기, 움직임을 통해 오감을 자극하는 핀란드식 아우프구스(Aufguss) 사우나 같은 독특한 시설이 눈길을 끈다. 야외 파티오와 정원, 몽골식 유르트, 야외 캠프파이어, 음악 휴게실 등 휴식 공간도 다양하게 마련돼 있고, 시골 마을을 연상시키는 친근한 공동체 분위기와 편안한 자연환경이 어우러져 만족스러운 힐링 경험을 선사한다.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가티노 공원(Gatineau Park) 입구에 자리해 하이킹과 사이클링, 스키 등 계절별 액티비티를 즐긴 뒤 스파로 피로를 풀면 완벽한 여행 코스다. 오타와에서도 차로 15분 거리에 위치해 오타와 여행 중 함께 방문하기에도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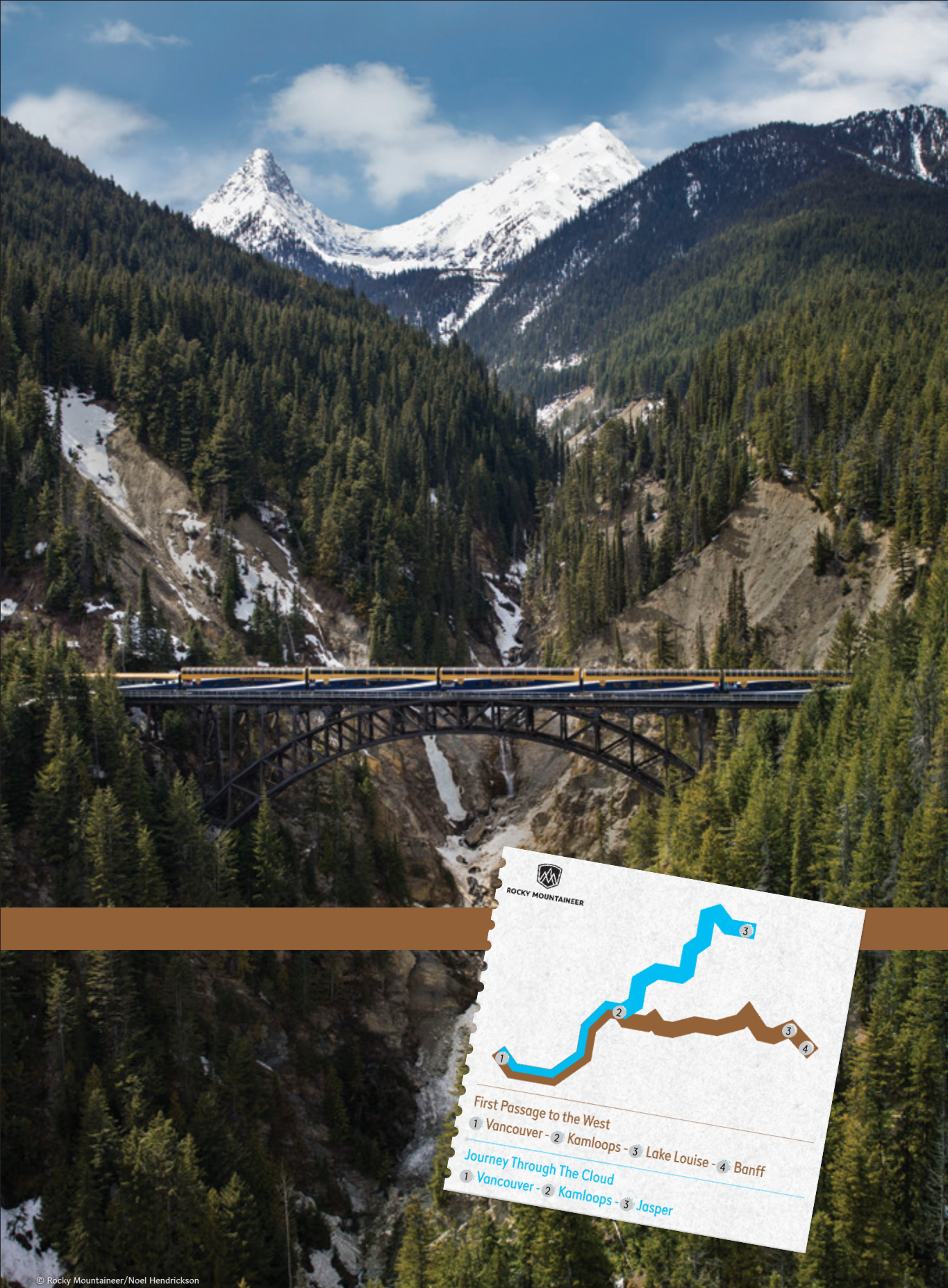
가격	입장권 98달러부터
웹사이트	chelsea.lenordik.com

Gourmet Trains across Canada

미식이 있는 기차 여행

캐나다 여행에서 기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 그 이상이다. 대도시와 그 주변 소도시는 물론,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오지까지 쉽고 편안하게 안내한다. 그뿐인가. 신비로운 빙하호와 눈 덮인 봉우리, 끝없이 펼쳐지는 평원 등 차창 밖으로 캐나다의 대자연을 감상하는 여정은 그 자체로 여행의 목적이 된다. 특히 붉은빛, 황금빛으로 물든 단풍이 철길을 따라 이어지는 가을은 기차 여행의 진가를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계절. 가을의 눈부신 절경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가 찾아오면 수많은 이들이 기차에 오르는 까닭도 바로 그 때문이다. 캐나다 전역을 연결하는 다양한 노선 중 멋진 풍광과 미식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노선을 만나본다.





객차 인테리어와 호화로운 서비스는 많은 사람이 로키 마운티니어를 캐나다 최고의 여행 경험으로 손꼽는 이유. 미식과 웰니스를 중심으로 한 최고급 서비스 또한 로키 마운티니어만의 차별점이다. 좌석은 골드 리프(Gold Leaf)와 실버 리프(Silver Leaf)로 나뉘는데, 어느 쪽을 선택하든 창문이 지붕까지 이어지는 유리 돔 형태의 객차 디자인 덕분에 여정 내내 시시각각 변하는 풍경이 파노라마로 펼쳐지고, 아침 식사와 점심



식사가 제공된다. 특히 복층 구조의 골드 리프는 1층에 전용 레스토랑이 마련돼 있어 전문 셰프가 선보이는 코스 요리와 5성급

호텔에 버금가는 수준 높은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의 연어, 알버타 소고기 등 신선한 로컬 식자재를 활용한 요리에 지역 맥주나 와인을 곁들이는 동안 로키의 그림 같은 장면이 감동을 배가시킨다. 평균 시속 약 50km로 달리기 때문에 느긋하게 여유를 만끽하며 재충전의 시간을 갖기에도 더할 나위 없다.

로키 마운티니어 기차 여행은 낮 동안 이동하며 경치를 감상하고 밤에는 정차역에 내려 숙박하는 일정으로 짜여진다. 여러 구간 중 가장 인기 있는 노선은 밴쿠버에서 캄루프스(Kamloops)를 거쳐 밴프까지 가는 ‘퍼스트 패시지 투 더 웨스트(First Passage to the West)’. 울창한 숲과 계곡, 협곡을 아우르는 자연경관과 나선형으로 설계된 스파이럴 터널(Spiral Tunnels)은 이 노선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다. 밴프와 레이크 루이스를 거쳐 재스퍼까지 가는 ‘저니 스루 더 클라우드(Journey Through The Cloud)’도 그에 못지않은 경험을 선사한다. 열차가 아니면 접근하기 어려운 거대한 피라미드 폭포를 스쳐 지나고 만년설 덮인 롭슨산(Mt. Robson)의 장엄한 얼굴을 마주할 수 있다. 같은 구간이라도 1박 2일부터 2주까지, 다양한 일정의 여행 상품이 있어 예산과 코스, 기간에 따라 선택의 폭이 넓다. www.rockymountaineer.com





비아레일(VIA Rail)은 캐나다를 여행하는 가장 시적인 방법이다. 1977년 설립된 국영 여객 철도로, 거대한 대륙을 천천히 가로지르며 대도시와 작은 마을, 황량한 들판과 장엄한 산맥, 아름다운 바다를 하나의 선으로 연결한다. 동부에서 서부까지 캐나다를 가로지르는 횡단 열차, 중부의 광활한 초원을

지나 북극권까지 가는 열차, 퀘벡과 온타리오를 오가는 열차 등 비아레일의 노선은 캐나다의 다채로운 매력을 발견하도록 안내한다. 그중에서도 오션은 캐나다 동부의 숨은 보석 같은 기차 여행 구간이다. 역사가 1904년으로 거슬러오르는 캐나다에서 가장 오래된 장거리 열차로, 몬트리올에서 대서양 연안의 할리팩스까지 약 1,346킬로미터를 달린다. 퀘벡 주 세인트로렌스 강변을 따라가다 뉴브런즈윅의 울창한 숲과 구릉지대,

그 사이사이의 작은 마을을 차례로 지나고 노바스코샤 주 대서양을 향해 달려가는 1박 2일의 여정이다.

차창 밖



풍경만큼이나 열차 안에서의 경험 또한 특별하다. 좌석은 슬리퍼 플러스(Sleeper Plus) 클래스와 이코노미(Economy) 클래스로 이루어져 있는데, 낮에는 아늑한 의자였다가 밤에는 풀 베드로 변신하는 슬리퍼 플러스 좌석은 1박 2일 기차 여행을 한층 아늑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도와준다. 여정에 포함된 세 끼의 식사는 오션 열차에 몸을 실는 또 하나의 이유다. 슬리퍼 플러스 탑승객에 한해 예약제로 운영되는 다이닝 카(Dining Car)는 낭만 그 자체. 은은한 조명과 흰색 천이 깔린 테이블의 조화는 클래식한 분위기를 풍기고, 노바스코샤산 랍스터와 신선한 생선, 퀘벡 주의 메이플 시럽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별미가 코스 요리로 제공된다. 여기에 커다란 창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 혹은 저녁 노을빛이 더해지면 기차 여행 특유의 감성은 한층 진해진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만을 위한 힐링이 필요하다면 비아레일의 오션 구간은 훌륭한 선택이다. 대서양 해안을 따라 천천히 달리며 보석 같은 해안 마을과 바다 풍경을 감상하고 캐나다 동부의 자연과 문화, 미식을 진하게 음미하는 시간이 될 테니까. www.viarail.ca

Ontario

온타리오 주



캐나다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온타리오 주는 캐나다의 수도 오타와, 경제 중심지 토론토가 자리해 있어 캐나다의 경제·문화 중심지 역할을 한다. 다채로운 문화와 미식을 경험할 수 있는 세련된 도시와 더불어, 온타리오 호수를 포함한 25만여 개의 호수, 세계적인 명소 나이아가라 폭포 등 경이로운 자연 풍경은 온타리오 주의 빼놓을 수 없는 매력이다. 여름에는 아웃도어 액티비티 애호가들이 무스코카(Muskoka)나 알곤퀸 주립공원(Algonquin Provincial Park)을 찾고, 가을에는 단풍 투어를, 겨울에는 스키 여행을 즐기려는 여행객이 모여 든다. 대도시의 세련된 면모와 풍요로운 자연이 조화를 이룬 온타리오 주에선 미식과 자연, 문화와 예술을 아우르는 완벽한 캐나다 여행을 경험할 수 있다.



Culinary Adventure

푸드 투어 프로그램으로 떠나는 미식 여행

Toronto 토론토	01	Vip Early Access Food Tour of St. Lawrence Market 세인트 로렌스 마켓 VIP 투어
	02	Kensington Market International Food Tour 켄싱턴 마켓 세계 미식 투어
	03	The Distillery District Breakfast Tour 디스틸러리 디스트릭트 조식 투어
Around Toronto 토론토 근교	04	Collingwood Food Tour 콜링우드 푸드 투어
	05	Eat More Scarborough Food Tours 스카보로 푸드 투어
Prince Edward County 프린스 에드워드 카운티	06	The County Food Tour 카운티 푸드 투어
Niagara Region 나이아가라 지역	07	Niagara Falls Walking Food Tour 나이아가라 폭포 워킹 푸드 투어
	08	The Falls & Wine Region of Niagara 나이아가라 폭포 & 와인 지역 투어
	09	East Ottawa Wine Tour 이스트 오타와 와인 투어
Ottawa 오타와	10	Taste of the ByWard Market Tour 바이워드 마켓 투어
	11	Classic Kingston 클래식 킹스턴
Kingston 킹스턴		

Wellness Retreats

자연 속 휴식처로 떠나는 웰니스 여행

Toronto 토론토	01	Four Seasons Hotel 포시즌스 호텔 토론토
	02	Elora Mill Hotel & Spa 엘로라 밀 호텔 & 스파
	03	Grail Springs Retreat 그레일 스프링스 리트리트
Around Toronto 토론토 근교	04	Langdon Hall Country House Hotel & Spa 랭던 홀 컨트리 하우스 호텔 & 스파
	05	Ste. Anne's Spa 세인트 앤즈 스파
	06	Thermea Spa Village Whitby 서메아 스파 빌리지 윌비
	07	Vettä Nordic Spa 베타 노르딕 스파
Niagara Region 나이아가라 지역	08	124 on Queen Hotel & Spa 124 온 퀸 호텔 & 스파
Muskoka 무스코카	09	JW Marriott The Rosseau Muskoka Resort & Spa JW 메리어트 더 로소 무스코카 리조트 & 스파
Blue Mountain 블루 마운틴	10	The Westin Trillium House, Blue Mountain 더 웨스틴 트릴리움 하우스 블루 마운틴
Algonquin Highlands 알곤퀸 하이랜즈	11	Dimensions Algonquin Highlands 디멘션즈 알곤퀸 하이랜즈
Prince Edward County 프린스 에드워드 카운티	12	The Wilfrid 더 윌프리드
	13	Wander the Resort 원더 더 리조트

Culinary Adventure

01 Toronto

시장에서 로컬 라이프 엿보기

Vip Early Access Food Tour of St. Lawrence Market

세인트 로렌스 마켓 VIP 투어



여행지에서 로컬 마켓은
빼놓지 않고 찾아가는
시장 마니아라면!

세인트 로렌스 마켓은 200년 넘는 역사를 간직한 토론토의 대표 명소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선정한 세계 최고의 푸드 마켓 10곳 중 하나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마켓 내 매장 우선 입장 혜택이 제공되어 마켓의 인기 먹거리를 다양하게 섭렵할 수 있다는 것이 세인트 로렌스 마켓 VIP 투어의 가장 큰 매력. 최대 8명으로 진행되는 소규모 투어로, 토론토 명물로 꼽히는 피밀 베이컨과 에그 샌드위치, 온타리오 주에서 생산된 샤퀴테리, 대서양산 훈제 연어 등 18여 가지의 지역 특산 미식을 골고루 맛볼 수 있다. 치즈 전문가와 함께하는 치즈 테이스팅 체험이 포함돼 있고, 생산자와 판매자를 직접 만나 이야기도 나눌 수 있다.

일정	목~토요일 8:30~10:30, 약 2시간 소요
미팅 장소	프론트 스트리트 이스트(Front St. East)와 마켓 스트리트(Market St.)의 남서쪽 코너, 주류숍 LCBO 앞
포함 사항	시식, 커피 혹은 차, 치즈 테이스팅 체험 등
가격	119캐나다달러
웹사이트	culinaryadventureco.com/tour/vip-early-access-food-tour-of-st-lawrence-market

02 Toronto

토론토에서 전 세계 음식 즐기기

Kensington Market International Food Tour

켄싱턴 마켓 세계 미식 투어

다문화가 어우러져 독특한 분위기를 풍기는 켄싱턴 마켓은 19세기 후반 이민자들이 정착하면서 형성된 동네다. 유럽, 남미, 동남아시아 등 각 지역의 문화적 특색이 반영된 음식점과 상점이 모여 있는 덕분에



예술적 감성을
추구하는
보헤미안
여행자!

토론토의 문화적 다양성을 확인하기 가장 좋은 장소로 꼽힌다. 켄싱턴 마켓을 도보로 탐방하며 세계 각국의 음식을 맛보는 투어에 참여하면 중동식 베이글 전문점, 자메이카와 칠레 등 중남미 음식 전문점, 스웨덴식 디저트 가게 등 이 지역의 인기 맛집을 줄 서지 않고 입장해 대표 메뉴를 시식할 수 있다. 빈티지 숍, 독립 서점, 소규모 식료품 점 등 다양한 상점과 거리를 화려하게 장식한 그래피티 아트도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다. 미식과 함께 켄싱턴 마켓의 예술적 면모를 확인하고 싶은 이들에게 추천한다.

일정	매일 11:00~13:30, 2시간 30분 소요
미팅 장소	NU Bügel, 240 Augusta Ave.
포함 사항	음식점 6곳 방문과 시식
가격	119캐나다달러
웹사이트	localfoodtours.com/toronto/ours-tours/kensington-market-international-toronto-food-tour

03 Toronto

특별한 아침 식사로 문을 여는 토론토에서의 하루

The Distillery District Breakfast Tour

디스틸러리 디스트릭트 조식 투어



토론토 여행 중 호텔에서 제공하는 뷔페식 조식이 식상하게 느껴진다면, 이 투어를 눈여겨볼 것. 도시 최고의 커피와 아침 식사 메뉴를 찾아 다운타운 동쪽에 자리한 디스틸러리 지구(Distillery District)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19세기 중반 대규모 증류주



여행지에서 조식은 절대
놓치지 않는 당신!

공장이 자리해 이 같은 이름이 붙은 디스틸러리 지구는 붉은 벽돌로 지은 당시의 공장 건물을 활용해 미식과 예술이 어우러진 매력적인 동네로 거듭났다. 차량 통행이 제한된 보행자 전용 구역이라 산책하기에 좋고, 감각적인 카페와 레스토랑, 갤러리 등 즐길 거리도 가득하다. 디스틸러리 지구의 유서 깊은 건축물과 독특한 역사를 살펴보고, 인파로 붐비기 전에 인기 카페를 방문해 맛있는 커피와 음식으로 여유롭게 하루를 시작해볼 수 있다.

일정	토·일요일 9:30~10:45, 약 1시간 15분 소요
미팅 장소	Go Tours Canada, 11 Gristmill Lane
포함 사항	아침 식사
가격	65캐나다달러
웹사이트	www.gotourscanada.com/distillery-district-breakfast-tour

Tip

토론토 브루어리 탐방의 필수품

토론토에서 브루어리 탐방을 할 예정이라면, 도시 최고의 수제 맥주 브루어리를 방문하고 시음도 할 수 있는 브루 패스(Brew Pass)를 살펴봐야 한다. 토론토 전역에 자리한 수제 맥주 브루어리 20여 곳 중 원하는 곳을 방문해 1일 최대 4회 시음을 할 수 있다. 패스는 1일권과 3일권으로 나뉘며, 패스 참여 브루어리 한 곳당 1회 시음이 가능하다. 최초 사용 후 24시간 혹은 72시간 동안 유효하고, 구입 시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모바일 전용 패스다. 비용은 1일권 22캐나다달러, 3일권 32캐나다달러. 구매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해야 한다. 브루 패스 참여 업체는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www.destinationtoronto.com/things-to-do/special-offers

Ontario

04 Around Toronto

토론토 근교 도시로 떠나는 미식 여행

Collingwood Food Tour

콜링우드 푸드 투어



© Destination Ontario



© Destination Ontario

토론토에 머물며
당일 코스로 근교 여행을
즐기고 싶다면

조지안 베이(Georgian Bay) 남쪽 끝에 자리한 콜링우드는 아름다운 해안 풍경과 수상 액티비티를 즐기려는 이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미식과 문화 예술 이벤트도 이곳을 찾는 이유 중 하나. 토론토에서 차로 2시간 거리라 당일치기로 방문하기에도 무리 없다. 콜링우드 푸드 투어는 현지 가이드와 함께 역사적인 다운타운을 둘러보며 로컬 레스토랑과 명소를 방문하는 프로그램이다. 각 레스토랑과 음식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최소 2인부터 진행된다. 주류 페어링 옵션(11.30캐나다달러)을 추가하면 각 요리에 어울리는 술도 곁들일 수 있다.

일정	금요일 13:00~16:00, 3시간 소요
미팅 장소	투어 진행 전 이메일로 사전 공지
포함 사항	6곳
가격	118.65캐나다달러
웹사이트	www.collingwoodfoodtours.com

05 Around Toronto

스카보로에서 만나는
세계의 맛

Eat More Scarborough Food Tours

스카보로 푸드 투어

캐나다에서
만나는
다문화 미식이
궁금한 사람

© Eat More Scarborough

토론토 동부 교외 지역에 속한 스카보로(Scarborough)는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공존하는 매력적인 도시다. 동남아시아와 중동을 포함한 세계 각지의 이민자가 정착해 ‘다문화 음식의 중심지’로 불릴 만큼 풍요로운 미식 문화를 자랑하는 곳. 스카보로의 미식 전문가가 이끄는 ‘잇 모어 스카보로(Eat More Scarborough)’는 이 도시에서만 접할 수 있는 색다른 맛의 세계로 안내하는 최고의 가이드다. 스카보로의 숨은 맛집을 소개하고, 아시아 요리, 비비큐와 그릴 요리, 미쉐린 가이드 선정 레스토랑 등 스페셜 테마 투어도 운영한다.

일정	투어별 상이
미팅 장소	투어별 상이
포함 사항	레스토랑 방문, 시식
가격	투어별 상이
웹사이트	www.eatmorescarborough.com

06 Prince Edward County

농장과 공방을 찾아가는
프라이빗 푸드 투어

The County Food Tour

카운티 푸드 투어

로컬 푸드 생산자와
장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여행자

© Destination Ontario/Ryan Lee

토론토에서 차를 타고 동쪽으로 2시간여, 온타리오호를 따라 달리는 동안 차창 밖으로 목가적 풍경이 펼쳐진다. 프린스 에드워드 카운티는 캐나다의 주요 와인 생산지 중 하나이자, 전통 농업문화와 비옥한 자연환경 덕분에 신선한 유기농 농산물, 치즈, 과일 등 지역 특산물이 풍부한 지역이다. 로컬 푸드 투어에 참여해 그 진가를 확인해보는 건 어떨까? 수제 치즈 공방, 블루베리 농장, 도넛 상점 등을 방문해 생산자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지역 별미도 바로 맛볼 수 있는 기회. 맞춤형 프라이빗 투어로, 픽업 서비스는 물론, 기호와 요구를 반영한 일정을 제공해 여행의 만족도를 한층 높여준다.

포함 사항	픽업 서비스, 맞춤 투어
가격	245캐나다달러
웹사이트	thecountypicnic.com/wine-%26-food-tours

07 Niagara Region

로컬 푸드와 와인으로 즐기는
나이아가라

Niagara Falls Walking Food Tour

나이아가라 폭포 워킹 푸드 투어

나이아가라
지역의
숨은 맛집을
탐방하고 싶은
여행자

© Destination Ontario

나이아가라 지역의 미식 경험을 큐레이션해 소개하고, 지역의 훌륭한 식당을 지원하는 나이아가라 푸드 투어스(Niagara Food Tours)가 선보이는 미식 투어다. 나이아가라 폭포 일대를 도보로 탐험하며 로컬 레스토랑의 음식을 맛보고, 지역 커뮤니티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며 나이아가라의 매력을 확인할 수 있다. 가이드가 엄선한 레스토랑의 현지 미식 시식 코스와 로컬 크래프트 비어, 온타리오 지역에서 생산된 와인 중 엄격한 품질 기준을 충족한 와인에 부여하는 VQA 와인을 함께 즐기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일정	매주 토요일 17:30~20:30, 약 3시간 소요
미팅 장소	Niagara Falls City Hall
포함 사항	현지 미식 시식 코스
가격	125캐나다달러
웹사이트	niagarafoodtours.ca/guided-tour

08 Niagara Region

대자연의 장관과
와인을 즐기는 한나절

The Falls & Wine Region of Niagara

나이아가라 폭포 & 와인 지역 투어



© Destination Ontario/Ryan Lee

하루 동안 나이아가라의
매력을 온전히
체험하고 싶은 여행자

© Destination Ontario/Natasha Gerschon

온타리오 주의 와이너리와 나이아가라 폭포를 한 번에 탐방할 수 있는 독특한 투어. 나이아가라 지역에 자리한 3곳의 프리미엄 와이너리에서 전문적인



© Destination Ontario/Niagara Falls Tourism

와인 테이스팅을 즐기고, 드라이브 코스를 따라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온타리오 호수까지 이어지는 장관을 만끽할 수 있다. 현지 고급 레스토랑에서 맛보는 3코스 식사 역시 즐거움을 더하는 요소. 픽업 서비스와 교통편을 제공해 하루 동안 편안하고 여유롭게 나이아가라 일대를 둘러볼 수 있다.

일정	월~토요일 9:30~18:30, 약 9시간 소요
포함 사항	교통편, 현지 레스토랑 3코스 요리, 나이아가라 폭포 견학, 와이너리 견학과 시음
가격	260캐나다달러부터
웹사이트	ontariogrouptouringcompanies.com/products/the-falls-wine-tour

09 Ottawa

오타와 와인 지역의
개척 정신을 엿보다

East Ottawa Wine Tour

이스트 오타와 와인 투어



© East Ottawa Wine Tour

오타와의 개성 있는
와이너리를 하루
일정으로 둘러보고
싶은 여행자

오타와 동부의 소규모 부티크 와이너리를 연결하는 파이오니어 와인 트레일(Pioneer Wine Trail)을 따라가는 와인 투어다. 작은 시골 마을 나반(Napan)에서 시작해 동쪽으로 약 30킬로미터 떨어진 생파스칼 바이용(Saint-Pascal-Baylon)까지 이동하며 3곳의 와이너리를 방문하는 코스. 지역 최초의 포도밭으로 알려진 도맹 페로(Domaine Perrault), 스위스 스타일의 와인을 생산해 ‘리틀 스위스’라 불리는 클로 뒤 불리(Clos du Vully), 과일 와인 전문 농장인 레 베르제르 빌뇌브 & 블루베리 농장(Les Vergers Villeneuve & Blueberry Farm)을 방문하고 각 와이너리의 시그니처 와인 3~10종을 시음할 수 있다.

일정	7월 26일, 10월 19일 11:00~17:00, 약 6시간 소요
미팅 장소	St. Laurent Shopping Centre
포함 사항	와이너리 견학과 시음, 교통편
가격	159캐나다달러
웹사이트	lavidalocal.ca/products/east-ottawa-wine-fruit-tour

10 Ottawa

현지 먹거리와 공예품을 한자리에서!

Taste of the ByWard Market Tour

바이워드 마켓 투어

활기찬
시장 일대를
오타와
현지인처럼
누비고 싶은
여행자



신선한 현지 식자재와 해산물 등을 판매하는 전통시장과 지역 공예품, 기념품, 의류 등을 판매하는 상점으로 이루어진 바이워드 마켓은 오타와의 상업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다. 다채로운 먹거리와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 현지의 일상을 엿보고 싶다면 이 투어가 답이다. 피자, 부리토 등 간단한 음식부터 달콤한 디저트 빵을 파는 비버테일(BeaverTail) 같은 오타와 명물까지 한번에 다양하게 맛볼 수 있다. 시장 탐방과 함께 주변 명소를 방문해 역사 이야기를 들어보고, 지역 생산자를 만나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다. 음료 페어링 옵션을 추가할 수 있고, 프라이빗 투어 역시 신청 가능하다.

일정	매일 13:00~16:00, 약 2시간 30분 소요
미팅 장소	오타와 예술 학교(Ottawa School of Art) 앞 토텐 기둥
포함 사항	현지 미식으로 구성된 시식 코스와 지역 명소 도보 견학
가격	115캐나다달러
웹사이트	cestbonottawa.ca/taste-of-byward-market-tour

11 Kingston

캐나다 옛 수도의 매력을 찾아서

Classic Kingston

클래식 킹스턴

토론토에서 차를 타고 동쪽으로 2시간 30분 정도 달리면 캐나다의 첫 수도였던 킹스턴에 이른다. 온타리오 호수 북동쪽 끝자락이자, 세인트로렌스강의 시작점에 자리한



캐나다의 역사에
관심 있는 미식가!

전략적 요충지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도시다. 규모는 아담하지만, 로컬 마켓과 특색 있는 카페, 레스토랑, 마이크로 브루어리 등이 자리해 미식의 도시로도 알려져 있다. 클래식 킹스턴 푸드 투어는 이름 그대로 가장 킹스턴다운 매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다. 최대 10인까지 참여 가능한 소규모 투어로, 현지 가이드와 함께 킹스턴 다운타운을 둘러보며 도시의 역사, 문화와 함께 미식까지 경험할 수 있다. 2시간 동안 총 1.3킬로미터를 도보로 이동하며, 킹스턴 최고의 레스토랑에서 경험하는 특별 시식이 포함돼 있다.

일정	수~일요일 11:00~13:00, 약 2시간 소요
미팅 장소	209 Ontario Street, Kingston
포함 사항	음식과 음료 시식
가격	99캐나다달러
웹사이트	www.kingstonfoodtours.ca/tours





Wellness Retreats

Ontario

01 Hotel

Four Seasons Hotel Toronto

포시즌스 호텔 토론토



© Four Seasons

토론토 도심의 세련된 요크빌 (Yorkville) 지역에 위치한 포시즌스 호텔 토론토는 고급스러움과 현대적인 디자인이 결합된 5성급 호텔이다. 캐나다의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인테리어와 뛰어난 서비스로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며, 도시의 복잡함에서 벗어나 편안하고 우아한 휴식을 제공한다. 통창 너머로 시원한 도시 전망을 품은 프리미어룸부터 토론토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최상층의 로열 스위트 룸까지 총 259개의 객실은 최고의 안락함을 선사하고, 미쉐린 셰프 다니엘 볼루(Daniel Boulud)가 이끄는 프렌치 비스트로 카페 볼루(Café Boulud)와 칵테일 바 디|바(d|bar)를 비롯한 호텔 내 다이닝 공간에서는 미식 경험을 새롭게 정의한다.

Wellness Experience

포시즌스 호텔 토론토는 여행과



© Four Seasons

휴식이 조화를 이룬 도심 속 안식처다. 호텔 9층에 자리한 풀서비스 스파 시설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웰니스 프로그램과 휴식 공간이 조성돼 있다. 고급 마사지와 스킨케어 등 맞춤형 스파 트리트먼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망 좋은 실내수영장부터 온수 욕조, 스팀룸, 최신식 장비를 갖춘 피트니스 센터까지 두루 갖춰 피로를 풀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피트니스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라이빗 요가와 필라테스 클래스 외에 숲 테라피 같은 계절별 테마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가격 1박 800캐나다달러부터

웹사이트 www.fourseasons.com/toronto

02 Hot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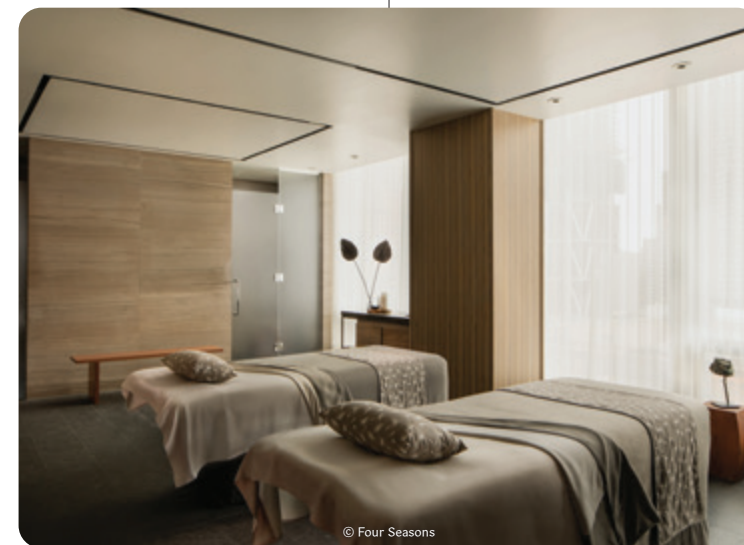
Elora Mill Hotel & Spa

엘로라 밀 호텔 & 스파



© Destination Ontario

온타리오 주 웰링턴 카운티의 175년 된 석조 방앗간 건물이 부티크 호텔로 재탄생했다. 호텔이 자리한 엘로라 마을은 작지만 예술적 분위기를 물씬 풍기고 강과 협곡이 장관을 이루는 주변 환경 덕분에 토론토에서 주말 여행지로 인기 있는 곳이다. 19세기 방앗간의 원형을 유지한 채 고풍스러운 매력을 더한 건물에는 30여 개의 객실이 자리한다. 대부분의 객실에 벽난로와 대형 욕조가 마련돼 있으며, 지역 장인이 만든



© Four Seasons

Tip

도심 속 또 하나의 오아시스

샹그릴라 토론토(Shangri-La Toronto) 호텔 내에 자리한 미라지 Hammam 스파(Miraj Hammam Spa)는 토론토를 대표하는 도심 속 웰니스 공간 중 하나다. 고대 중동의 전통 웰니스 의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스파 시설로, 대리석과 금빛 장식이 어우러진 이국적 분위기 속에서 고온의 스팀룸, 전통 의식에서 영감을 받은 트리트먼트 프로그램 등을 경험할 수 있다.

mirajhammamtoronto.com

가구와 석회암 벽, 원목 바닥 등 자연 소재가 조화를 이루어 편안하면서도 로맨틱한 휴식을 즐길 수 있다. 지역 미식을 선보이는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이 제안하는 미식 여정도 이곳의 빼놓을 수 없는 매력. 제철 식자재로 계절마다 새로운 메뉴를 제공하며 테라스 바에서는 협곡을 따라 흐르는 그랜드 리버(Grand River)를 감상할 수 있다.

Wellness Experience

엘로라 밀 호텔 & 스파는 과거와 현재,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바탕으로, 심신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집중한다. 강이 내려다보이는 전용 스파 시설은 회복을 위한 스팀룸, 사우나, 야외 온수 욕조 등을 갖췄고 천연 원료를 활용한 맞춤형 트리트먼트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전문 테라피스트의 마사지와 바디 케어는 물론, 사계절 내내 변화하는 풍경 속에서 요가, 명상, 자연 산책 등 여유로운 웰빙 활동을 즐길 수 있다.

가격 1박 600캐나다달러부터

웹사이트 www.eloramill.ca

03 Resort

Grail Springs Retreat

그레일 스프링스 리트리트



© Grail Springs Retreat

토론토에서 차를 타고 북동쪽으로 약 3시간을 달리면 밴크로프트(Bancroft)에 도착한다. 조용한 호수와 울창한 숲에 둘러싸여 힐링 여행에 이상적인 장소다. 1993년 이곳에 문을 연 그레일 스프링스 리트리트는 캐나다를 대표하는 전인적 웰니스의 성지로 불린다. 신체·정신·영적 균형을 목표로, 온전한 치유와 자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것. 약 40.5헥타르 면적의 숲속에 총 13개의 프라이빗 객실과 레스토랑,

스파 시설이 들어서 있고, 모든 객실은 전자기파 차단 시스템과 천연 소재 침구를 갖춰 숙면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 투숙객은 원하는 일정에 따라 맞춤형 웰니스 프로그램을 선택하거나 카누잉, 하이킹, 수영 등의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즐기며 자연에 몰입하는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다.

Wellness Experience



© Grail Springs Retreat

그레일 스프링스 리트리트에서는 매일 아침 명상과 요가 수련으로 하루가 시작된다. 건습식 사우나와 적외선 사우나, 냉·온탕, 노르딕 샤워, 요가 데크가 마련된 스파 시설에서는 페이스 트리트먼트부터 명상과 스트레스 관리까지 종합적인 웰니스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알칼리성 지하수가 흐르는 부지 내 찰리스 호수(Chalice Lake)는 리트리트를 위한 또 다른 무대. 고요하게 명상에 빠져들거나 카누잉, 수영을 즐기며 자연과의 대화를 이어가고, 클렌징 식단과 침묵의 시간, 모닥불 대화, 치유 관련 강의 등을 통해 진정한 웰니스 여정을 완성할 수 있다.

가격 리트리트 패키지
1인 1박 495캐나다달러부터

웹사이트 www.grailsprings.com

04 Hotel

Langdon Hall Country House Hotel & Spa

95

랭던 홀 컨트리 하우스 호텔 & 스파



© Langdon Hall Country House Hotel & Spa

1902년 미국 상류층 애스터(Astor) 가문의 후손이 지은 여름 별장을 개조해 문을 연 부티크 호텔이다. 영국식 컨트리 하우스 스타일의 저택은 숲과 정원이 어우러진 너른 부지를 차지하고 있다. 토론토에서 차로 1시간 반이면 닿을 수 있는 소도시 캠브리지에 자리해 한적한 휴식을 원하는 여행자에게 인기가 높다. 총 60개의 객실은 각기 다른 분위기로 꾸몄다. 대부분 벽난로와 대형 욕조, 전용 테라스를 갖췄고 앤틱 가구, 대리석 욕실, 원목 바닥 등 섬세한 디테일이 더해져 고전적인 우아함과 현대적인 편안함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2024년에는 호텔 내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이 캐나다 최고의 레스토랑에 이름을 올리며 미식 여행지로도 주목받고 있다. 호텔 인근 유기농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식재료를 활용해 캐나다의 인기 셰프 제이슨 뱅거터(Jason Bangerter)가 계절마다 새롭게 구성한 미식 코스를 선보인다.

Wellness Experience



© Langdon Hall Country House Hotel & Spa

랭던 홀의 스파는 몸과 마음의 깊은 이완과 회복을 위한 고요한 휴식처다. 숲과 정원이 내려다보이는 전용 스파 공간은 스팀룸, 사우나, 실내외 월풀 욕조로 이루어져 있고, 자연 성분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트리트먼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수영장과 5개의 산책로, 테니스 코트, 크로켓 필드가 마련돼 있고,



© Destination Ontario

94



© Langdon Hall Country House Hotel & Spa

프라이빗 요가 클래스와 정원 투어, 와인 테이스팅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휴식과 레저가 조화를 이루는 진정한 쉼을 경험할 수 있다.

가격	1박 465캐나다달러부터
웹사이트	www.langdonhall.ca

05 Resort

Ste. Anne's Spa

세인트 앤즈 스파

토론토 동쪽, 온타리오 호수 북쪽 언덕에 자리한 세인트 앤즈 스파는 돌로 지은 1800년대 시골 저택을 개조한 곳. 평화로운 전원 마을의 목가적 풍경 속에서 즐기는 올인클루시브 웰니스 체험으로 유명하다. 산과 들, 정원, 말 목장이 어우러진 방대한 규모의 부지에 유서 깊은 옛 저택과 새로 지은 현대적 건물이 조화를 이루고 장미 정원, 허브 정원, 일본 양식의 젠 정원, 라벤더



발 등이 그 주변을 감싼다. 시골풍의 따뜻한 인테리어로 꾸민 총 33개의 객실은 숙박 인원과 타입에 따라 선택 가능하고, 팜투테이블 콘셉트로 운영하는 식당에선 세 끼 식사와 애프터눈 티를 제공한다. 부지 내 정원에서 식자재 대부분을 공수하며, 전원에서 영감을 받은 건강식과 글루텐프리 베이커리도 즐길 수 있다.

Wellness Experience

북유럽식 전통 워터 테라피와 현대적 트리트먼트의 결합이 세인트 앤즈 스파의 핵심. 숙박, 스파와 트리트먼트, 미식이 모두 포함된 올인클루시브 패키지로 완벽한 휴양을 보장한다. 투숙객은 체크인 후 아로마 테라피, 바디랩, 핫스톤 마사지 등의 스파 트리트먼트로 피로를 풀고 야외에 마련된 온탕과 냉탕, 스팀룸과 사우나를 자유롭게 오가며 휴식을 즐기고 애프터눈 티와 4코스 저녁 식사를 곁들이며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스트레칭, 노르딕 폴 워크, 요가, 불 명상, 사운드 명상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데이 스파 패키지와 웰니스 클래스도 다양하게 운영해 당일치기 웰빙 여행을 즐기기에 부담 없다.

가격	1인 1박 570캐나다달러부터
웹사이트	www.steannes.com

06 Spa

Thermea Spa Village Whitby

서메아 스파 빌리지 횃비



퀘벡에서 처음 시작된 캐나다 스파 브랜드의 세 번째 지점으로, 2022년 온타리오 주 횃비에 문을 열었다. 약 38만 5,000제곱미터 면적에 총 8개의 사우나와 냉수·온수 욕조, 식당, 라운지, 정원 등 스파 및 휴게 시설이 자리해 있고, 스웨덴식 마사지와 맞춤형 트리트먼트, 스트레칭과 명상 클래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레스토랑과 비어 가든을 포함한 식음료 공간에선 아침부터 밤까지 미식과 다양한 음료를 즐길 수 있다. 토론토 도심에서 차로 45분 떨어져 있어 접근성이 좋다.

가격	입장료 119달러부터
웹사이트	thermea.com/whitby

07 Spa

Vettä Nordic Spa

베타 노르딕 스파



온타리오 주의 인기 리조트 지역 중 하나인 호스슈 밸리(Horseshoe Valley)에 자리한 전통 핀란드식 웰니스 시설이다. 다양한 온도의 야외 수영장 6개와 사우나, 스팀룸을 통해



하이드로테라피 경험을 선사한다. 이외에 핫스톤룸, 소금 스크럽룸 같은 휴식 공간과 스웨덴식 마사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고, 부지 내 2개의 레스토랑에서는 핀란드 음식에서 영감을 받은 식사와 샌드위치, 샐러드 같은 캐주얼한 메뉴를 즐길 수 있다. 호스슈 밸리 리조트와 연계해 숙박 패키지도 제공한다.

가격	입장료 105캐나다달러부터
웹사이트	vettaspa.com

08 Hotel

124 on Queen Hotel & Spa

124 온 퀸 호텔 & 스파



고풍스러운 건축물이 늘어선 나이아가라 온 더 레이크(Niagara-on-the-Lake)의 중심가 퀸 스트리트(Queen Street). 2011년 이 거리에 문을 연 124 온 퀸 호텔 & 스파는 모던한 부티크 호텔로, 올드 타운의 멋스러운 분위기와 현대적 럭셔리가 조화를 이루는 곳이다. 디럭스룸부터 최대 6인까지 투숙 가능한 투 베드룸 빌라까지 다양한 형태의 객실을 갖춰 휴양, 레저, 비즈니스 등 여러 목적의 여행자를 폭넓게 만족시킨다. 이곳이 지역 최고의 호텔로 꼽히는 또 다른 이유는 주변에 쇼핑과 미식 스폿이 밀집해 있고 나이아가라 와인 루트를 비롯한 지역 명소로의 접근성이 탁월하다는 점 때문이다. 2022년 대대적인

리노베이션과 확장 공사를 통해 다양한 부대 시설과 야외 정원, 이벤트 공간 등이 더해져 한층 품격 있는 휴식이 가능해졌다.

Wellness Experience



약 1,115제곱미터 규모의 ‘스파 앳 큐(Spa at Q)’는 이번 리노베이션을 통해 탄생한 웰니스 시설이다. 냉·온수풀과 사우나, 스팀룸으로 이루어진 하이드로테라피 서킷, 캐나다 유일의 스노우룸, 할로테라피 소금 라운지 등 다채로운 공간이 마련돼 있고, 웰니스에 초점을 맞춘 스파 패키지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호텔 내 레스토랑과 바에선 지역



© 124 on Queen Hotel & Spa

농부들이 생산한 제철 식자재로 만든 팜투테이블 요리를 맛보며 건강한 미식 경험까지 즐길 수 있다.

가격	스파 & 웰니스 패키지 1박 약 400캐나다달러부터
웹사이트	124queen.com

09 Hotel

JW Marriott The Rosseau Muskoka Resort & Spa

JW 메리어트 더 로소 무스코카 리조트 & 스파



© JW Marriott The Rosseau Muskoka Resort & Spa

자연 그대로의 숲과 1,600개 이상의 호수를 품은 무스코카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 덕분에 사계절 내내 현지인과 여행자를 끌어당긴다. 그중에서도 JW 메리어트 더 로소 무스코카 리조트 & 스파가 자리한 로소 호수(Lake Rosseau) 주변은 조용하고 프라이빗한 분위기로 인기가 높다. 거친 화강암 지형과 깊고 투명한 호수, 그 주위를 에워싼 뾰족한 숲 덕분에 자연의 원시적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것. 더 로소 무스코카 리조트 & 스파는 이러한 주변 경관을 최대한 살리는 한편, 세련되고 현대적인 시설을 더해 고요하고 안락한 휴식을 선사한다. 부지 내 프라이빗 비치와 호수에서 각종 수상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고, 가을 단풍 트레킹, 밤하늘 별 관찰 같은 특별한 경험도 놓칠 수 없다. 리조트 내 5개의 레스토랑은 무스코카의 제철 미식을 맛볼 수 있는 최고의 장소다.

Wellness Experience

리조트 내 다양한 웰니스 시설은 때문지 않은 한적한 자연 속 힐링 경험을 한층 풍요롭게 만들어준다. 전용 수영장과 온수 욕조, 스팀룸, 휴식

라운지로 이루어진 하이드로스파 무스코카(HydroSpa Muskoka)를 중심으로, 다양한 운동 장비가 구비된 피트니스 센터, 연중 이용 가능한 실내외 수영장 등이 자리해 있다. 요가와 필라테스 같은 실내 피트니스 클래스는 물론, 호숫가 명상, 수상 레저, 자연 속 하이킹 등의 야외 프로그램 덕분에 한층 입체적인 웰니스 경험을 누릴 수 있다.

가격	1박 약 400캐나다달러부터
웹사이트	marriott.com

10 Hotel

The Westin Trillium House, Blue Mountain

더 웨스틴 트릴리움 하우스 블루 마운틴



© The Westin Trillium House, Blue Mountain

블루 마운틴은 온타리오 주의 사계절 휴양지로 인기 있는 곳이다. 토론토에서 차로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데다, 여름에는 조지아 만(Georgian Bay)의 탁 트인 수변에서 수상 스포츠를 즐기고 겨울에는 블루 마운틴 리조트에서 스키와 스노보드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블루 마운틴의 보행자 전용 마을 한가운데에 위치한 더 웨스틴 트릴리움 하우스는 블루 마운틴 빌리지를 편안하게 둘러보고 다양한 야외 활동을 즐기기에 탁월한 입지를 자랑한다. 벽난로와 간이 주방이 딸린 객실은 모던하면서도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고, 발코니에서 조지아

만 또는 나이아가라 절벽(Niagara Escarpment)을 조망할 수 있다. 토론토의 유명 레스토랑 오너들이 이끄는 올리버 & 보나치니(Oliver & Bonacini)에선 현지 식자재에서 영감을 받은 독창적이고 수준 높은 미식이 휴가를 한층 풍성하게 만들어준다.

Wellness Experience

리조트 내에 24시간 운영되는 피트니스 센터와 대규모 야외 수영장, 사계절 내내 이용 가능한 온수 풀 등이 마련되어 있어, 블루 마운틴 일대에서 활동적인 하루를 보낸 후 몸과 마음을 재충전할 수 있다. 계절에 따라 하이킹, 산악자전거, 스노보드, 스키 등 다양한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고, 미니 골프, 아이스 스케이팅, 해변 배구 등을 위한 전용 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블루 마운틴을 대표하는 스파 시설 스칸디나브 스파 블루 마운틴(Scandinave Spa Blue Mountain)이 가까이에 자리한 것도 장점. 반나절 정도 머물며 핀란드식 사우나, 스팀룸, 온수와 냉수 욕조 등을 통해 하이드로테라피를 경험할 수 있다.

가격	1박 132캐나다달러부터
웹사이트	marriott.com

11 Spa

Dimensions Algonquin Highlands

디멘션즈 알곤퀸 하이랜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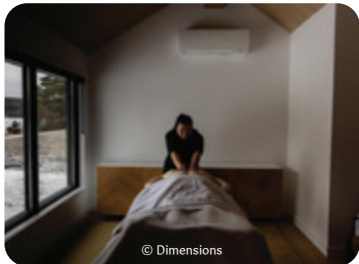
© Dimensions

온타리오 주 북부의 메이플 호수(Maple Lake) 인근에 위치한 디멘션즈 알곤퀸 하이랜즈는 약 16헥타르의 울창한 숲과 맑은 호수를 품은 사계절 웰니스 리트리트다. 토론토에서 차로 약 3시간 거리에 자리해 있으며,



자연과의 깊은 교감을 통해 진정한 휴식과 자기 회복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이상적인 여행지다. 성인 전용 올인클루시브 숙소로, 숲 또는 호수 전망의 캐빈 스위트 총 15채로 이루어져 있다. 모든 객실에 커다란 창이 있어 실내로 자연광을 한가득 끌어들이고, 프라이빗 테크에서는 자연의 소리에 집중한 채 고요한 휴식에 빠져들 수 있다. 야생화 관찰, 카야킹과 패들링, 야생버섯 채취, 스노슈잉 등 계절마다 자연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기회도 제안한다.

Wellness Experience



계절과 테마에 따라 최소 2박 일정으로 진행되는 웰니스 리트리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 일정 숙소와 식사는 물론, 삼림욕, 사운드 베스, 계절별 야외 활동이 포함돼 있고, 주제에 따라 요가나 필라테스, 명상, 마사지 등의 프로그램이 추가된다. 식사 역시 이곳의 중요한 웰니스 요소다. 부지 내 자리한 메이플 루지 다이닝룸에선 아침부터 저녁까지 심신을 정화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건강식을 맛볼 수 있다.

가격	프로그램에 따라 상이
웹사이트	dimensionsretreats.com/algonquin-highlands

12 B&B The Wilfrid

더 윌프리트



셰프 남편과 디자이너 아내가 운영하는 프린스 에드워드 카운티의 부티크 B&B. 1850년대에 지은 농가를 개조해 문을 열었다. 세심한 디자인과 미식 경험이 결합돼 특별하면서도 프라이빗한 휴식을 원하는 이들에게 적합하다. 3개의 객실은 각기 다른 스타일로 꾸몄고 성인 전용으로 운영된다. 숙소로 사용되는 팜하우스, 노르딕 사우나 서킷, 포도밭과 와이너리, 옛 헛간 등이 약 2만 제곱미터 규모의 부지에 자리해 있다. 더 윌프리트의 오너이자 셰프가 매일 아침 준비해주는 조식은 이곳의 자랑. 현지에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공수한 식자재와 고급 와인으로 구성된 브런치 메뉴와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 그 외 시간에는 커피와 차, 캐비어와 굴 등의 간단한 먹거리와 음료를 제공한다.

Wellness Experience
농장 부지 한편에 객실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마련된 웰니스 공간은 더 윌프리트의 숨은 오아시스다. 통나무 배럴 사우나와 냉·온수풀, 야외 샤워장이 자리하고 그 주변에는 나무 데크가 깔려 있어 사우나와 온탕, 냉탕을 편안하게 오가며 노르딕 스파를 즐길 수 있다. 투숙객 전용 공간으로, 예약제로 운영해 2시간 동안 프라이빗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가격	1박 380캐나다달러부터 (최소 2박 이상)
웹사이트	www.thewilfrid.com

13 Resort Wander the Resort

원더 더 리조트
프린스 에드워드 카운티의 웨스트레이크(West Lake)에 자리한 현대적인 리조트다. 평화로운 호반 풍경과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노르딕 디자인이 어우러져 세련되면서도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총 10개의 캐빈형 객실은 호수 전망 4채와 수영장 전망 6채로 이루어져 있는데, 프라이빗 야외 다이닝 공간과 주방, 벽난로가 설치된 거실을 갖춰 최대 6인까지 머물며 여유로운 휴식을 즐길 수 있다.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와인 지역에 자리해 자연 속 휴식을 즐기며 로컬 문화를 체험하기에도 적합한 장소다. 아름다운 해변과 자연공원으로 모험을 떠날 수도 있다.

Wellness Experience

원더 더 리조트는 온타리오 주 최초의 호반 노르딕 스파로 유명하다. 온수 욕조와 전통 핀란드식 사우나, 호숫가 사우나, 스팀룸, 냉탕 등 온열요법을 위해 마련된 다양한 시설을 이용하고, 마사지와 트리트먼트를 받을 수 있다. 호수 전망을 자랑하는 레스토랑 개더(Gather)에서는 지역 특산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창의적인 메뉴를 선보인다. 객실에서 즐길 수 있는 와인 시음과 치즈 시식 프로그램, 지역 와이너리와 양조장을 방문하는 자전거 투어 프로그램도 신청할 수 있다.

가격	1박 795캐나다달러부터
웹사이트	www.wandertheresort.com

Deep Dive

노던 온타리오로 떠나는
소도시 힐링 여행

온타리오 주 전체 면적의 약 90퍼센트를 차지하는 노던 온타리오는 캐나다의 대자연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지역이다. 광활한 면적에 비해 총인구는 78만여 명에 불과해 인구 밀도가 상당히 낮은 편. 토론토와 나이아가라 지역 같은 관광지를 벗어나 북쪽으로 향하다 보면, 끝없이 펼쳐진 숲과 드넓은 호수, 수 억 년의 세월을 품은 암석 지대가 숨죽이며 펼쳐진다. 길 위에서 마주치는 소도시들은 대자연이 품은 휴식처 같은 존재. 몸과 마음을 살피고 일상의 여유를 되찾을 수 있는 최적의 여행지다.

destinationnorthernontario.ca

Ontario

Wawa

Sault Ste.
Marie

Sudbury

North Bay

Toronto



© Destination Ontario



© Destination Ontario



© Destination Ontario

Sudbury

서드버리

노던 온타리오에서 가장 큰 도시인 서드버리의 외곽 도로에 들어서면, 저 멀리 우뚝 솟은 굴뚝이 보인다. 바로 이곳의 홍망성쇠를 좌우한 니켈 광산업의 흔적이다. 니켈을 제련할 때 생기는 황산 오염물을 높게 날려보내기 위해 캐나다에서 가장 높은 굴뚝을 세웠다고 한다. 물론 오늘날에는 굴뚝의 연기는 멈췄고 광산업도 환경 보호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1980년부터 산업 구조를 다양화하고 친환경 프로그램을 적극 실천한 덕분에 서드버리는 캐나다 지역 재생의 모범사례로 꼽히기도 한다. 굴뚝을 머릿속에서 지우면, 이 도시가 광산업으로 성장했다는 역사를 믿기 어렵다. 거리의 위트 있는 그래피티, 아름다운 수변 공원 자연보호 구역, 로컬 마켓과 브루어리, 다이닝 레스토랑을 아우르는 맛집을 탐험하다 보면 서드버리의 멋진 변화를 실감할 수 있다. 캐나다만의 문화적 다양성도 잘 유지하고 있으며, 온타리오 주에서 프랑스어 사용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이기도 하다. discoversudbury.ca

North Bay

노스베이

노던 온타리오는 호수와 숲이 지배하는 땅이라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 노스베이는 노던 온타리오로 향하는 관문 도시 같은 곳. 도시의 애칭도 ‘북쪽으로 가는 문(Gateway of the North)’이다. 역사적으로 대서양과 오대호를 연결하는 강줄기를 따라 교역품을 나르던 카누 루트가 이곳을 통과했으며, 오늘날에는 캐나다를 동서로 잇는 트랜스 캐나다 하이웨이가 지나간다. 이런 지리적 이점으로 노스베이에는 항상 오가는 외지인이 많다. 여름 시즌에는 니피싱 호수(Nipissing Lake)를 중심으로 카누잉과 리버 크루즈, 비치 액티비티가 주된 즐길 거리. 겨울철에는 스키와 크로스 컨트리도 체험할 수 있다. 숙박이나 레스토랑 등의 여행 인프라도 탄탄하기 때문에 노던 온타리오 여행의 시작점으로 딱 알맞다. tourismnorthbay.com



© Destination Ontario



© Destination Ontario



© Destination Ontario

Sault Ste. Marie

수생마리
수생마리는 휴런 호수(Lake Huron)와 수페리어 호수(Lake Superior)의 교차점을 지키는 소도시다. 생마리강을 경계로 북쪽은 캐나다의 수생마리, 남쪽은 미국 미시건주의 수생마리다. 온타리오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한 곳으로, 강과 호수가 주는 혜택을 누리며 성장해왔다. 수로를 타고 프랑스 이주민과 오지브웨(Ojibwe)족 선주민이 주도한 모피 무역을 시작으로 운하와 수력 발전을 활용한 물류와 제지업, 철강업 등이 흥했기 때문이다. 제조업이 주축한 오늘날에는 지속 가능성을 놓치지 않은 변신을 통해 캐나다의 주요 여행지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 아가와 캐년(Agawa Canyon)으로 향하는 동화 같은 단풍 열차, 중심가를 지키는 고풍스러운 19세기 건축물, 수변을 따라 조성된 낭만적인 공원, 수준 높은 문화 예술 전시장 등 문화와 자연을 아우르는 흥미진진한 볼거리와 체험 거리가 생생하게 살아 있다. saulttourism.com



© Hur Taewoo



© Hur Taewoo



© Hur Taewoo

Wawa

와와
와와는 18세기 모피 무역로의 경유지로 처음 형성된 소도시다. 19세기 말에 금과 철광석 광맥이 발견되면서 급격히 번성한 이곳은 오늘날 노던 온타리오의 야생을 찾는 이들에게 여러 흥미거리를 던져준다. 캐나다 횡단 고속도로가 마을을 관통하고 바다 같은 슈페리어 호수와 가깝기 때문에 자동차 여행자를 상대하는 레트로한 인(inn)이 몇 개 자리하고, 마을 입구에는 이곳의 상징인 야생 거위(와와) 조각상이 서 있다. 마을 주변에는 강과 호수, 숲이 펼쳐지는데, 너무나도 깨끗하고 때문지 않았다. 그 속에서 하이킹부터 낚시와 사냥까지 모험가가 된 듯한 야외활동을 체험할 수 있다. 캐나다를 대표하는 미술가 집단인 그룹 오브 세븐(Group of Seven)도 이런 와와의 풍경에 반해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 와와의 샌디 비치 에코 공원(Sandy Beach Echo Park)의 해변에서는 그들이 묘사했던 풍경과 작품을 설명하는 설치물을 볼 수 있다.

Atlantic Canada

아틀란틱 캐나다

Newfoundland and
Labrador
뉴펀들랜드 앤 레브라도

Chalottetown
샬럿타운

New
Brunswick
뉴브런즈윅

Nova Scotia
노바스코샤

Burncoat Head Park
번코트 헤드 파크

Halifax
할리팩스
Lunenburg
루넬버그

01

02

03

04

05

06

07

캐나다 동부, 대서양을 마주한 아틀란틱 캐나다는 그림 같은 해안선과 매력적인 어촌 마을, 바다의 풍미를 가득 머금은 신선한 먹거리가 기다리는 곳이다. ‘새로운 스코틀랜드’라는 뜻의 노바스코샤 주에선 이 지역에 뿌린 내린 스코틀랜드 전통을 경험하고 랍스터와 함께 흥미진진한 미식 여정을 떠나며 조용한 해변과 울창한 숲이 어우러진 자연 속에서 요가와 명상을 할 수 있다. 소설 〈빨강머리 앤〉의 무대로 알려진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는 초록빛 초원과 붉은모래해변이 어우러진 목가적 풍경으로 여행자를 단번에 매료시킨다. 청정 자연에서 자란 품질 좋은 과일과 채소는 물론, 굴을 비롯한 각종 해산물, 현지 원료를 활용한 수제 맥주와 진 등 다채로운 미식 경험이 가능하고, 자전거를 타거나 하이킹을 하며 섬에서의 평화로운 순간을

만끽할 수 있다. 뉴펀들랜드 앤 레브라도 주(Newfoundland and Labrador)와 뉴브런즈윅 주(New Brunswick) 역시 바닷바람과 함께 살아가는 어촌의 특유의 분위기를 간직한 지역이다. 대서양 연안이 선사하는 식자재의 풍미를 만끽하고, 이색적인 웰니스 리트리트에 머물며 느린 속도와 여유로운 리듬을 회복해보자.



Culinary Adventure

푸드 투어 프로그램으로 떠나는 미식 여행

Nova Scotia 노바스코샤	Halifax 할리팩스	01	Halifax Waterfront Seafood Tour 할리팩스 워터프론트 시푸드 투어
	Lunenburg 루넬버그	02	Spirits with a Story & A Guided Tasting 증류주 이야기 & 가이드 시음 체험
	Burncoat Head Park 번코트 헤드 파크	03	Dining on the ocean floor 다이닝 온 더 오션 플로어
	Sydney 시드니	04	Taste of Sydney Food Tour 테이스트 오브 시드니 푸드 투어
Prince Edward Island 프린스에드워드 아일랜드	Chalottetown & Around 샬럿타운 & 주변	05	Tong & Shuck 굴 채취와 굴 까기 체험
		06	Lobster Lovers 랍스터 러버스
		07	Craft Your Own Gin Workshop 나만의 진 만들기 워크숍
		08	Bannock and clams in the sand 배넉 & 클램스 인 더 샌드
		09	Out Of This Swirled Tour : PEI's Spirited Adventure! PEI의 술과 함께하는 흥미로운 모험

Wellness Retreats

자연 속 휴식처로 떠나는 웰니스 여행

Nova Scotia 노바스코샤	Yarmouth & Arcadian Shores 야머스 & 아카디안 쇼어	01	Trout Point Lodge 트라우트 포인트 롯지
	Cumberland County 컴벌랜드 카운티	02	Fox Harb'r Resort 폭스 하버 리조트
	South Shore 사우스 쇼어	03	Sensea Nordic Spa 센시 노르딕 스파
Prince Edward Island 프린스에드워드 아일랜드	Chalottetown & Around 샬럿타운 & 주변	04	Mysa Nordic Spa & Resort 미사 노르딕 스파 & 리조트
		05	Nature Space Resort & Retreat Centre 네이처 스페이스 리조트 & 리트리트 센터
New Brunswick 뉴브런즈윅	Bay of Fundy 펀디만	06	Hope-Wellness Eco-Resort 호프 웰니스 에코 리조트
Newfoundland 뉴펀들랜드	Fogo Island 포고 아일랜드	07	Fogo Island Inn 포고 아일랜드 인

Culinary Adventure

01 Halifax

노바스코샤의 해산물을 제대로 즐기는 법

Halifax Waterfront Seafood Tour

할리팩스 워터프론트 시푸드 투어



© Tourism Nova Scotia/Patrick Rojo



노바스코샤 주의
해산물 요리와
와인의
페어링이 궁금한
여행자

노바스코샤의 주도 할리팩스는 대서양을 마주한 항구 도시로, 18세기 중반부터 군사적 요충지로 발달했다. 오늘날에는 19세기에 지은 시타델 국립사적지(Citadel National Historic Site) 등의 유적을 통해 이러한 과거를 엿보고 활기찬 워터프론트에서 해양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여행지로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랍스터와 각종 생선, 조개류 등이 풍부한 해산물 애호가에게 천국으로 통한다. 현지 해산물의 정수를 경험하고 싶다면 할리팩스 워터프론트 시푸드 투어를 추천한다. 약 4킬로미터 길이로 이어지는 워터프론트를 따라 걸으며 항구 도시의 역사를 엿보고 로컬 레스토랑 3곳을 방문해 클래식 랍스터 롤, 뉴펀들랜드 스타일의 피시 케이크 등 지역 명물로 꼽히는 해산물 요리를 맛볼 수 있다. 와인 페어링 옵션(15캐나다달러)을 선택하면 노바스코샤에서 생산되는 와인 타이달 베이(Tidal Bay)도 시음할 수 있다.

일정	화~토요일 11:00~13:30, 2시간 30분 소요
미팅 장소	Halifax Marriott Harbourfront Hotel
포함 사항	레스토랑 4곳 방문과 시식
가격	108캐나다달러(세금 별도)
웹사이트	www.curatedfoodtours.ca/food-tours

02 Lunenburg

과거와 현재가 조화를 이룬 로컬 증류소

Spirits with a Story: A Guided Tasting

증류주 이야기 & 가이드 시음 체험



© Tourism Nova Scotia/James Ingram

노바스코샤 주의
과일향 가득한 증류주를
맛보고 싶은 여행자

아이언웍스(Ironworks)는 노바스코샤 주 남쪽 해안의 소도시 루넨버그에 자리한 마이크로 디still러리다. 2009년 문을 연 이래 노바스코샤 주를 대표하는 증류소로 자리 잡았다. 아이언웍스라는 이름은 증류소가 들어선 19세기 조선소의 대장간 건물에서 따온 것. 보드카와 럼, 진, 브랜디, 리큐어 등의 증류주를 생산하는데, 허브와 과일 등 지역 농산물을 적극 활용하고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전통 증류 방식을 고수하는 것이 특징이다. 가이드 시음 투어에 참여하면 증류소 건물의 역사부터 브랜드의 철학, 지역 농부들과의 네트워크, 증류 과정 등을 상세히 들을 수 있다. 중간중간 아이언웍스에서 생산되는 증류주 6종을 시음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최대 10명까지 참여 가능한 소규모 시음 프로그램이다. 할리팩스에서 차로 약 1시간 거리로, 당일 여행이 가능하다.

일정	5월 1일~12월 13일 매일 12:30~13:15 / 14:00~14:45 / 15:30~16:15, 45분 소요
미팅 장소	Ironworks Distillery
포함 사항	증류소 가이드 투어, 증류주 6종 시음
가격	25캐나다달러(세금 포함)
웹사이트	ironworksdistillery.com

03 Burntcoat Head Park

노바스코샤의 이색 자연과 함께하는 다이닝

Dining on the ocean floor

다이닝 온 디 오션 플로어

북서쪽으로 84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번트코트 헤드

Atlantic Canada



© Tourism Nova Scotia/Acorn Art & Photography

대서양을
바라보며 감성
충만한 식사를
즐기고 싶은
미식가

공원을 탐방하고, 현지 식재료로 구성된 식사에 로컬 와이너리와 브루어리의 주류를 페어링할 수 있다. 펀디만에 위치한 번트코트 헤드 공원은 세계에서 가장 큰 조수간만의 차를 자랑하는 곳이다. 간조 때 바닷물이 빠진 해저를 걸으며 독특한 해안 풍광을 즐기고 노바스코샤 지역 특산물인 치즈와 육류, 신선한 해산물과 제철 채소를 활용한 3코스 요리를 통해 현지 미식을 생생하게 경험할 기회. 야외 테이블에서 해안을 마주한 채 식사를 즐기고 노바스코샤에 거주하던 선주민 미크맥족(Mi'kmaq)이 들려주는 역사와 문화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자.

일정	12:00~18:00, 약 6시간 소요
미팅 장소	Burncoat Head Park
포함 사항	지역 미식으로 구성된 3코스 식사와 시음
가격	804.65캐나다달러
웹사이트	foodfantastique.ca/dining-on-the-ocean-floor

04 Sydney

아는 만큼 보인다, 근교 섬 여행

Taste of Sydney Food Tour

테이스트 오브 시드니 푸드 투어



© Tourism Nova Scotia/Phototype

산, 바다, 하늘과 맞닿은
케벳 트레일을 따라
맛집 투어를
즐기고 싶다면?

노바스코샤를 여행하는 이들은 해안 절벽과 구불구불한 산악도로가 이어지는 해안 드라이브를 즐기고 트레킹, 카야킹 등 아웃도어 액티비티에 도전하기 위해 케이프브레튼섬(Cape Breton Island)을 찾는다. 섬 동쪽 해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 시드니는 케이프브레튼 여행의 베이스캠프로 삼기 좋은 곳.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아카디언 등 여러 문화가 공존해 다양한 지역의 전통 음식도 즐길 수 있다. 로컬 가이드와 함께 도시의 대표



© Tourism Nova Scotia/Phototype

명소인 시드니 보드워크(Sydney Boardwalk)를 산책하며 해산물을 비롯해 다국적 요리를 맛보자. 시드니에서 나고 자란 투어 가이드가 섬에 대한 깊은 애정을 바탕으로 미식과 함께 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일정	월~토요일 11:00~14:00, 3시간 소요
미팅 장소	320 Esplanade
포함 사항	레스토랑 방문과 시식
가격	149캐나다달러
웹사이트	www.savourcb.ca

Tip

셰프의 집에서 즐기는 쿠킹 클래스

‘킬티드 셰프(The Kilted Chef)’로 알려진 알랭 보세(Alain Bossé) 셰프와 함께하는 특별한 요리 체험! 노바스코샤 주에 있는 셰프의 주방 혹은 내 주방에서 진행되는 프라이빗 쿠킹 클래스를 신청할 수 있다. 멤버십에 가입해 온라인으로 라이브 요리 수업에 참가하는 방법도 있다. 아카디언의 전통을 바탕으로 지역 식자재를 활용한 레시피와 요리 팁을 배울 수 있는 기회다.

kiltedchef.ca

Deep Dive

노바스코샤 주
푸드 트레일의 모든 것

노바스코샤에는 이 지역의 풍부한 미식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푸드 트레일이 다양하게 마련돼 있다. 랍스터, 차우더 그리고 술을 테마로 떠나는 특별한 미식 여행 코스를 소개한다. 노바스코샤 주 관광청에서 제공하는 테마별 트레일 패스पोर्ट를 소지하면 각 방문지마다 스탬프를 찍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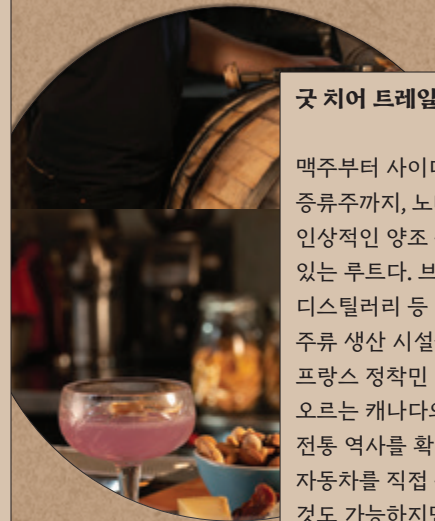
랍스터 트레일

아머스(Yarmouth)에서 할리팩스를 지나 이스턴 쇼어(Eastern Shore)까지 노바스코샤 남부 해안을 따라 이어지는 루트로, 현지 랍스터를 맛볼 수 있는 50여 곳의 레스토랑을 연결한다. 특히 노바스코샤 남서부 해안에 자리한 20개 이상의 등대 지나는 라이트하우스 루트(Lighthouse Route)가 이 구간과 상당 부분 겹쳐 드라이브 코스로도 손색없다. 11월부터 5월까지가 랍스터 시즌이지만, 노바스코샤 주 대부분의 레스토랑이 연중 랍스터 요리를 제공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어부와 함께 바다로 나가 랍스터를 잡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novascotialobstertrail.com



차우더 트레일

노바스코샤 주에는 다양한 스타일의 차우더가 있다. 북부 해안은 랍스터, 남부 해안은 조개류를 주로 활용하는 등 각 지역마다 많이 잡히는 해산물을 사용해 특색 있는 차우더를 즐긴다. 전통적인 크림 베이스부터 맑은 수프까지 종류도 다양하다. 노바스코샤 전역에 있는 차우더 전문 레스토랑을 연결하는 차우더 트레일을 따라가면 지역 별미의 다채로운 변주를 두루 경험할 수 있다. 5월부터 10월까지가 가장 여행하기에 좋고, 노바스코샤 차우더 챔피언십이 열리는 여름 시즌에는 한층 풍성한 즐길 거리가 기다린다. novascotia chowdertrail.com



굿 치어 트레일

맥주부터 사이더, 와인,
증류주까지, 노바스코샤 주의
인상적인 양조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루트다. 브루어리, 와이너리,
디스틸러리 등 전역에 자리한
주류 생산 시설을 둘러보며 초기
프랑스 정착민 시기로 거슬러
오르는 캐나다의 오랜 양조
전통 역사를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를 직접 운전해 여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시음을 제대로
즐기려면 가이드 투어나 자전거
투어에 참여해 여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goodcheertrail.com/
trails/stops/#beer](http://goodcheertrail.com/trails/stops/#beer)

05 Chalottetown & Around

채취부터 시식까지,
신선한 현지 굴 즐기기

Tong & Shuck

굴 채취와 굴 까기 체험



프린스에드워드
아일랜드산 굴을
가장 신선하게 맛보고
싶은 굴 러버.

© Tourism PEI/Heather Ogg



© Tourism PEI/Stephen Harris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는 영양분이 풍부하고 깨끗한 바닷물 덕분에 굴 양식이 발달했다. 해양 생태계를 고려한 친환경 방식의 전통 굴 양식과 채취가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 몇 년에 걸쳐 천천히 자라는 이 지역 굴은 쫄깃한 식감과 균형 잡힌 맛으로 유명하다. 현지 어부를 만나 프린스에드워드산 굴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통해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다. 집게 모양의 도구를 사용해 굴을 채취하는 것을 의미하는 통(tong)과 굴을 까는 과정을 말하는 셔크(shuck)를 조합한 투어 이름 그대로 직접 굴을 채취해 맛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채집 방법과 까는 법은 물론, 이 지역 굴의 성장 과정과 수확하기 적합한 크기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준다.

일정	6~10월 금~수요일 12:00~14:30 / 17:00~19:30 2시간 30분 소요
미팅 장소	Points East Coastal Drive, Cardigan
포함 사항	1인당 굴 24개 시식, 각종 소스와 음료 제공
가격	150캐나다달러
웹사이트	www.alongtheedgeexperiences.com/tong-and-shuck-pei

06 Chalottetown & Around

현지 어부와 함께 신선한
랍스터 맛보기

Lobster Lovers

랍스터 러버스



© Tourism PEI/Berni Wood



© Tourism PEI/Dave Brosha

랍스터와
해양 어드벤처를
사랑하는
모험가!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의 고유한 해양 문화를 경험하고 싶다면 주목! 직접 랍스터 어부가 되어 바다 위에서 특별한 만찬을 즐기는 체험이 기다린다.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에서는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봄과 가을에만 랍스터 낚시가 허용되고, 정부 승인을 받은 전통 랍스터 통발만 사용해야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어업을 이어온 현지의 랍스터 어부들 역시 이러한 전통을 지켜 나가는 일에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 섬 동부 해안의 아담한 소리스 항구(Souris Harbour)에서 출발하는 랍스터 투어에 참여하면 랍스터 어부와 통발 체험을 해보고 갯 잡은 신선한 랍스터를 요리해 배 위에서 만찬을 즐길 수 있다. 섬의 오랜 어업 역사와 전통 랍스터 낚시의 매력, 바다에서 볼 수 있는 섬의 숨은 풍경 등 선장이 알려주는 다양한 이야기와 팁도 놓치지 말 것. 랍스터 요리를 곁들인 만찬 때는 선장의 특별 공연이 더해져 흥을 돋운다.

일정	7월 2일~9월 30일(요일별 출발 횟수와 시간 상이) 3시간 소요
미팅 장소	Souris Marina, 120 Breakwater St., Souris
포함 사항	랍스터 낚시 체험, 랍스터 어부의 음악 공연, 현지식 디너
가격	195캐나다달러
웹사이트	fiddlingfisherman.com/experiences/lobster-lovers

07 Chalottetown & Around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의
추억을 담은 수제 진

Craft Your Own Gin Workshop

나만의 진 만들기 워크숍



© Lake Design

여행을 추억할 특별한
기념품을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보고 싶다면?



© Lake Design

최근 몇 년 사이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는 크래프트 진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역 특산 재료를 활용해

만드는 것이 특징인데, 그중 딥 루츠 디스틸러리는 섬에서 수확한 허브와 과일 등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든 수제 진을 만드는 곳이다. 양조장에서 진행하는 진 만들기 워크숍에 참여하면 나만의 크래프트 진을 만들어 세상에 하나뿐인 여행 기념품을 남길 수 있다. 전문가에게 진 증류 과정을 배우고 30여 가지의 현지산 식물성 원료를 활용해 취향대로 진 레시피를 완성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티켓 1장으로 최대 4명까지 참여 가능하다. 이외에 약 1시간 동안 딥 루츠 디스틸러리의 뿌리인 사과 과수원의 이야기와 증류주 제조 과정에 대해 들을 수 있는 루츠 투 보틀(Roots to Bottle) 투어도 신청할 수 있다(1인 25캐나다달러).

일정	8월 17일 18:00~21:00, 3시간 소요
미팅 장소	Deep Roots Distillery
포함 사항	웰컴 칵테일, 직접 만든 진 2병(1병당 375ml), 스낵과 시음
가격	4인 테이블 299캐나다달러
웹사이트	www.deeprootsdistillery.com

08 Chalottetown & Around

생생한 캐나다 선주민
문화 체험

Bannock and clams in the sand

배넉 & 클램스 인 더 샌드



© Tourism PEI/Stephen Harris



© Lennox Island Tourism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캐나다 선주민
공동체의
살과 문화가
궁금하다면!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북서쪽 해안에 위치한 약 540헥타르 면적의 레녹스 아일랜드(Lennox Island)는 캐나다 선주민 미크맥 공동체의 역사와 문화가 깃든 섬이다. 오늘날에는 선주민의 언어와 일상, 전통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장소로 주목받는다. 레녹스 아일랜드에서 진행되는 이 투어 역시 그중 하나. 모래 속에서 굽는 미크맥 선주민의 전통 빵 배넉을 직접

만들어보고, 즉석에서 모닥불에 구운 굴을 맛보는 색다른 경험이 기다린다. 빵을 준비해 굽는 동안 전문 가이드가 레녹스 아일랜드에서의 전통적인 삶과 선주민 문화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다. 투어는 6월부터 10월 초까지 최소 4인부터 진행된다.

일정	월~목요일 10:00~12:00 / 14:00~16:00, 금 10:00~12:00
미팅 장소	4 Eagle Feather Trail, Lennox Island, North Cape Coastal Drive
포함 사항	배넉 만들기, 굴 시식
가격	75캐나다달러
웹사이트	experiencelennoxisland.com/bannock-and-clams-in-the-sand

09 Chalottetown & Around

지역색이 가득 담긴
수제 주류의 매력 속으로

Out Of This Swirled Tour : PEI’s Spirited Adventure!

PEI의 술과 함께하는 흥미로운 모험



와인부터
사이드까지,
프린스에드워드
아일랜드에서만
맛볼 수 있는
술을 찾아서!

주종을 가리지 않고 모든 술을 즐기는 진정한 애주가에게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여행지다. 규모는 작지만 활기 넘치고 지역 특색이 살아 있는 양조 문화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 이 투어에 참가하면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최고의 와인과 증류주, 사이더를 모두 맛볼 수 있다. 가족이 운영하는 마토스 와이너리 & 디스틸러리(Matoss Winery & Distillery)를 방문해 독특한 풍미를 자랑하는

지역 와인과 증류주를 맛보고, 소규모 수제 증류소 딥 루츠 디스틸러리에서 보드카부터 리큐어까지 독창적인 술을 다양하게 시음한 뒤 마지막으로 레드 아일랜드 사이더(Red Island Cider)에 들러 현지산 사과로 만든 수제 사이더를 음미하는 코스로 진행된다.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의 다양한 주류가 어떻게 생산되고 어떤 특징을 지녔는지 한 번에 훑어보며 이 지역 고유의 양조 문화에 흠뻑 빠져드는 시간이 될 것이다. 각 주류에 맞춰 곁들일 스낵도 정성껏 준비되고 전문 가이드가 함께해 시음 경험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준다.

일정	화~일요일, 13:00~17:00, 4시간 소요
미팅 장소	Charlottetown
포함 사항	주류 시음, 교통편
가격	142캐나다달러
웹사이트	peitastingtours.ca/out-of-this-swirled-tour





© Trout Point Lodge

© Trout Point Lodge

Wellness Retreats

01 Lodge

Trout Point Lodge

트라우트 포인트 롯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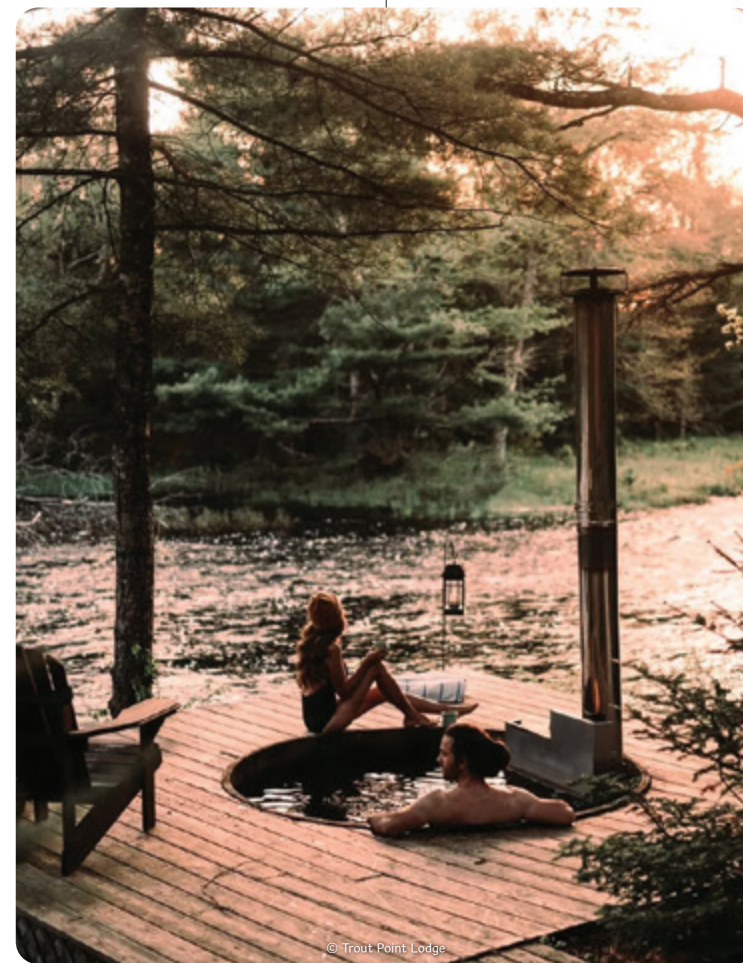
외부와 완벽하게 단절된 채 야생의 자연에 오롯이 기댄 휴가를 꿈꾼다면 트라우트 포인트 롯지가 답이다. 야머스에서 40여 분 거리의 토비에틱 야생보호지구(Tobeatic Wilderness)에 자리한 생태 리조트다. 강 또는 숲 전망의 롯지에 머물며 아카디안 숲(Arcadian Forest) 하이킹, 야생동물 관찰, 카야킹 등 이색적인 야외 활동을 경험하고 지속 가능한 레스토랑 협회(SRA)에 소속된 레스토랑에서 지역 식자재로 만든 4코스 식사를 맛볼 수 있다.

Wellness Experience

요가, 삼림욕, 하이킹 등 맞춤형 가이드 아웃도어 액티비티, 테라피 마사지, 숲속 목욕 체험, 삼나무 배럴



© Trout Point Lodge



© Trout Point Lodge



© Trout Point Lodge

사우나 이용 등이 포함된 3박 4일 리트리트 패키지를 이용하면 트루트 포인트 롯지가 제안하는 디톡스 여행을 완성할 수 있다. 토비에틱 야생보호지구는 북미에서 손꼽히는 별 관측 명소이기도 하다. 맑은 날에는 밤하늘을 관찰하며 특별한 힐링을 경험할 수 있다.

가격 웰니스 3박 패키지
2인 4,678캐나다달러

웹사이트 www.troutpoint.com

02 Resort

Fox Harb'r Resort

폭스 하버 리조트



© Tourism Nova Scotia/Dean Casavechia

석회암 절벽과 곱고 부드러운 모래가 어우러진 노섬벌랜드 해안(Northumberland Shore)의 아름다운 풍경은 폭스 하버 리조트가 추구하는 진정한 럭셔리와 닮아 있다. 커피 브랜드 팀홀튼의 공동 창업자인 캐나다 출신의 사업가 론 조이스(Ron Joyce)가 소유한 곳으로, 노바스코샤 주 북동부의 아름다운 해안을 배경으로 따뜻하고 편안한 시간을 제안한다. 450헥타르 면적의

부지에 자리한 88개 객실은 탁 트인
오션뷰를 선사하고, 리조트 내 2개의
레스토랑에선 제철 지역 식자재로
선보이는 수준 높은 미식을 즐길 수
있다.

Wellness Experience



그레이엄 쿡(Graham Cooke)이
설계한 18홀 챔피언십 골프 코스는
폭스 하버 리조트의 자랑이다. 골프를
비롯해 각종 레저·액티비티를 즐긴
뒤엔 대서양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스파 & 웰니스 센터로 향한다.
‘캐나다 최고의 스파 25곳’에 선정된
곳으로, 대서양을 마주한 채 다양한
트리트먼트 프로그램과 주니어
올림픽 규모의 실내 수영장, 미네랄
풀, 온수 욕조 등을 갖췄다.

가격 1박 310캐나다달러부터
웹사이트 www.foxharbr.com

03 Spa

Sensea Nordic Spa

센시 노르딕 스파
노바스코샤 주 최초의 노르딕 스파



시설. 숲과 해안이 어우러진 작은
마을 체스터(Chester)의 평화로운
자연 속에 자리해 있다. 온탕이나
사우나에서 몸에 열을 낸 뒤 인공
폭포나 얼음 분수에서 체온을 내리는
과정을 수 차례 반복하는 하이드로
테라피를 통해 전신의 이완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 냉·온탕은 물론,
핀란드식 사우나, 터키식 한증막 등의
다양한 온열 시설을 갖췄고 요가
매트와 해먹이 구비된 휴식 공간도
마련돼 있다.

가격 스파 패스 69캐나다달러
웹사이트 www.sensea.ca

04 Resort

Mysa Nordic Spa & Resort

미사 노르딕 스파 & 리조트



세인트 피터스 베이(St. Peters Bay)는 프린스에드워드섬 동부의
고요하고 평화로운 만으로, 미크맥
부족의 전통이 깃든 지역이다. 섬
최초의 노르딕 스파 리트리트인 미사
노르딕 스파 & 리조트는 이 지역의
유산을 간직한 채 아름다운 자연 속
진정한 휴양을 제안한다. 그림 같은

만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코티지
객실에 머물면서 리조트에서 직접
재배한 허브와 지역 식자재로 만든
제철 메뉴를 맛보고 다양한 웰니스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총 17개의
객실은 전용 테라스와 벽난로,
욕조를 갖춰 안락한 휴식을 보장한다.
세인트 피터스 베이 주변의 유서
깊은 마을을 둘러보고 해안선을 따라
산책을 하거나 트레킹, 사이클링,
카야킹 등의 액티비티를 즐길
수도 있다.

Wellness Experience



미사 노르딕 스파 & 리조트의 서멀
익스피리언스(Thermal Experience)는
고대 스칸디나비아의 웰니스
의식에서 영감을 받아 체온 올리기와
내리기, 휴식을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 심신의 긴장을 완화하고 깊은
휴식 상태로 이끈다. 냉·온탕은 물론,
유칼립투스 스팀룸, 핀란드식 사우나,
배럴 사우나, 냉수 샤워 등의 시설을
차레로 오가고, 휴식룸, 세인트 피터스
베이 전망대 등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구성돼 있다.

가격 주중 웰니스 2인 패키지
1박 349캐나다달러부터
웹사이트 mysanordicspa.com

05 Glamping

Nature Space Resort & Retreat Centre

네이처 스페이스 리조트 & 리트리트 센터





4,800제곱미터 면적의 너른 부지에 전통 몽골식 유르트와 코티지 객실, 보트하우스 로프트 스위트 등 다양한 타입의 객실을 갖췄다. 리조트 내 중심 커뮤니티 공간인 비하이프(Bee Hive)에서는 글루텐프리, 채식, 유제품 무첨가 등 맞춤형 건강 식단을 제공하며 자연 친화적 철학을 담아내고, 밤하늘 관찰, 호수 탐험, 삼림욕, 굴 채집 등의 야외 액티비티가 더해져 머무는 동안 자연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돕는다.

Wellness Experience

이곳에서는 요가와 명상뿐 아니라 자연 체험 활동과 식사 또한 리트리트 프로그램의 일부다. 모든 경험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심신의 자연스러운 회복을 추구하는 것. 특히 더 그레이트 블루 헤론(The Great Blue Heron Yurt)이라 불리는 대형 유르트에서의 요가, 해변 요가,



©Tourism PEI/Stephen DesRoches

눈 위에서 즐기는 스노우가(SNOWga) 등 연중 내내 진행되는 다양한 요가 클래스가 돋보인다. 부지 내에 삼나무 장작을 때는 사우나 2개와 냉탕, 명상 산책에 몰입할 수 있는 작은 정원이 마련돼 있고, 올인클루시브 패키지를 비롯해 각종 워크숍과 이벤트도 진행한다.

가격	1박 300캐나다달러부터
웹사이트	naturespaceresort.com

06 Resort

Hope-Wellness Eco-Resort

호프 웰니스 에코 리조트



© New Brunswick Tourism

뉴브런즈윅 남동부, 세상과 단절된 듯한 숲속 한가운데에 아늑하게 자리 잡은 친환경 리조트다. 스칸디나비아식 삶에서 영감을 받은 자연 친화적 객실 디자인과 웰니스 시설이 특징. 모든 객실에 프라이빗 파티오와 자쿠지가 딸려 있고, 부지 내에서는 푸른 숲과 함께 큰 조수간만의 차로 유명한 펀디만을 조망할 수 있다. 친환경 건축 자재와 에너지를 활용해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며, 신선한 로컬 농산물로 만든 건강한 식사, 노르딕 스파와 요가 프로그램, 하이킹과 카야킹 같은 야외 체험이 어우러져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추구한다. 지역 예술가와 함께하는 워크숍에 참여하거나 현지 농장으로 이어지는 산책로를 거닐고 펀디국립공원으로 여행을 떠날 수도 있다. 19세 이상 투숙 가능한 성인 전용 리조트다.

Wellness Experience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는 에코 웰니스 체험을 제안한다. 부지 내 스파 시설인 노르딕 라운지(Nordic Lounge)는 야외

삼나무 사우나, 냉탕, 태양열 해수 수영장과 함께 야외 바, 비어 가든을 갖춰 소음을 제한하는 일반적인 웰니스 센터와 달리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장려한다. 명상과 수련이 필요한 이들은 요가 돔을 이용하면 된다. 투숙객이 아니어도 데이 패스를 통해 스파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가격	1박 279달러부터(최소 2박 이상)
웹사이트	www.hopewellnessresort.ca

07 Hotel Spa

Fogo Island Inn

포고 아일랜드 인



© Megan McLellan



© Destination Canada



© Destination Canada

뉴펀들랜드 본섬에서 약 16킬로미터 떨어진 포고 아일랜드 북부 해안에 자리 잡은 포고 아일랜드 인은 단순한 숙소를 넘어 그 자체로 목적지가 되는 특별한 장소다. 이곳에 머무는 동안 거주민이 750여 명에 불과한 외딴 섬의 독특한 자연환경과 문화를 온전히 체험할 수 있기 때문. 철제 기둥 위에 세운 독특한 건축물은 지역의 전통 건축 양식에서 영향을 받았고, 가구부터 패브릭, 장식품까지 지역 장인이 제작한 제품으로 내부를 꾸몄다. 야생 베리와 북대서양 해산물 등 현지 식자재를 80퍼센트 이상 사용해 지역 전통의 맛을 선보이는 숙소 내 레스토랑도 이곳의 매력 요소. 나아가, 수익금의 일부가 지역 사회에 돌아가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덕분에 여행자가 지역의 환경과 사람들을 배려하는 지속 가능한 여행에 동참하도록 돕는다.

Wellness Experience

포고 아일랜드 인에서의 웰니스 경험은 섬의 자연에 오롯이 기댄 채 이루어진다. 전면이 통유리창으로 되어 있어 탁 트인 바다를 내부로 끌어들이는 객실은 머무는 것만으로도 힐링 그 자체. 오션 뷰 요가와 하이킹, 야생화 워크숍, 조류 관찰, 별 관측 등 자연과의 교감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야외 활동이 숙박에 포함돼 있다. 루프톱 사우나와 자쿠지는 물론, 도서관과 갤러리, 영화관까지 갖춰 취향에 맞게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4~10월에만 운영한다.

가격	1박 2,475캐나다달러부터(최소 3박 이상)
웹사이트	fogoislandinn.ca

Yukon

유콘 준주



캐나다 최북단에 자리한 야생의 땅, 유콘 준주는 이 나라의 또 다른 얼굴을 만날 수 있는 여행지다. 끝없이 펼쳐진 툰드라와 눈 덮인 산맥, 유콘강이 펼쳐진 광활한 자연은 오로라 관측, 빙하 탐사, 야생동물과의 조우 등 색다른 모험을 좇는 이들을 끌어당긴다. 숲에서 채취한 야생 베리, 고산 지역에서 자라는 허브, 북극권 해안에서 잡은 어류로 채워진 식탁은 유콘 준주의 정체성을 엿볼 수 있는 기회. 때문지 않은

원시 자연은 또 어떤가? 여행자는 문명의 세계와 단절된 듯한 자연 속에서 깊은 내면의 평온을 되찾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야생을 누비는 다양한 액티비티와 밤하늘의 신비로운 마법이 더해진 유콘 준주의 웰니스 경험은 잊지 못할 여행의 기억을 선사한다.



Wellness Retreats

자연 속 휴식처로 떠나는 웰니스 여행

Kluane National Park
클루아니 국립공원

Whitehorse
화이트호스

01 Mount Logan EcoLodge
마운트 로건 에코룻지

02 Alpine Escape
알파인 이스케이프

03 Eclipse Nordic Hot Springs
이클립스 노르딕 핫 스프링스

04 Northern Lights Resort & Spa
노던 라이츠 리조트 & 스파

05 Northern Nomad Outdoors
노던 노마드 아웃도어즈



엘로 나이트 ©Destination Canada2

© Destination Canada

Wellness Retreats

01 Cabin Glamping Yurt

Mount Logan EcoLodge

마운트 로건 에코룻지

헤인스 정션(Haines Junction)은 캐나다 최고봉인 마운트 로건(Mount Logan)과 클루아니 국립공원으로 향하는 관문이다. 이 작은 마을에서 유콘 준주의 광활한 자연으로 떠나는 여행이 시작되는 것. 마운트 로건 에코룻지에 머물면 유콘이 선사하는 강렬한 모험과 고요한 휴식, 모두를 누릴 수 있다. 몽골식 유르트부터 골드러시 시대에서 영감을 받은 통나무집, 스쿨버스를 개조한 글램핑까지 자연 친화적 콘셉트의 다양한 객실은 원시 자연을 찾아온 이들의 감성을 자극하기에 충분하고, 리조트 내에서 직접 만든 아침 식사와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저녁 코스 요리는 자연의 맛을 살린 유콘의 미식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Wellness Experience



© Mount Logan EcoLodge

마운트 로건 에코룻지의 웰니스 경험은 야생에서의 치유를 키워드로 한다. 개썰매 체험, 스노슈잉, 얼음낚시, 클루아니 국립공원 트레킹 등 계절별로 가이드와 함께하는 자연 체험 액티비티가 진행되고, 야외 활동 이후에는 핀란드식 사우나와 노천 온수 욕조를 이용하고 마사지를 받으며 피로를 풀 수 있다. 무엇보다 침묵과 명상에 집중할 수 있는 고요한 환경, 환상적인 오로라를 관찰할 수 있는 북극권의 밤하늘은 온전한 휴식을 원하는 여행자에게 완벽한 조건이다.

가격 1박 330캐나다달러부터

웹사이트 mountloganlodge.com



© Mount Logan EcoLodge

02 Glamping

Alpine Escape

알파인 이스케이프



© Mount Sima Kitchen

화이트호스 인근에 자리한 최고의 어드벤처 여행지 시마산(Mt.Sima). 이곳에 자리한 알파인 이스케이프는 유콘 준주의 야생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럭셔리 글램핑 숙소다. 아름다운 지오톰과 3종류의 널찍한 월 텐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기와 와이파이, 샤워시설, 프라이빗 파티오, 야외 주방 등의 편의시설을 갖춰 자연 속 휴식과 편리함, 둘 다 원하는 이들에게 추천한다.

Wellness Experience

낮에는 대자연을 누비는 야외 활동으로 몸을 깨우고 밤에는 별과 오로라를 관찰하며 고요한 시간을 만끽하는 조화로운 웰니스 경험이 가능하다. 부지 내 2개의 호수에서 카누를 탈 수 있고, 주변에는 리프트로 연결되는 다운힐 산악자전거 코스와 다양한 난도의 하이킹 코스가 마련돼 있다.

가격 1박 135캐나다달러부터

웹사이트 mountsima.com/alpine-escape

03 Spa

Eclipse Nordic Hot Springs

이클립스 노르딕 핫 스프링스

스칸디나비아식 전통 사우나 요법에 일본의 온천 문화를 결합한 이색 웰니스 스파이다. 미네랄 온천수를 채운 일본식 온천탕을 포함해 4개의 야외 수영장과 2개의 사우나, 휴식을 위한 따뜻한 라운지 베드와 요가룸으로 이루어져 있다. 간단한 건강식과 음료, 젤라토 등을 판매하는

Tip

웰니스 여행을 위한
맞춤형 예약 플랫폼

캐나다 리트리트 여행의 영감을 얻고 싶은 이들에게 웰니스 프로그램 전문 예약 사이트 북리트리츠(BookRetreats)를 추천한다. 캐나다 전역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리트리트 프로그램을 한눈에 살펴보고 예약할 수 있다. 요가와 명상, 디톡스, 스파와 휴양, 심리치유 등 테마와 여행 지역, 여행 시기에 맞춰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가격대부터 프로그램 기간, 콘셉트, 난이도까지 세부 조건을 적용해 나에게 꼭 맞는 프로그램을 제안해준다.

bookretreats.com/s/wellness-retreats/canada



카페에서 허기를 달래거나 무료 요가 클래스에 참여할 수 있다. 유콘 준주의 유일한 온천 시설로, 화이트호스 시내에서 차로 25분 정도 걸린다.

가격 입장료 55캐나다달러부터
웹사이트 eclipsenordichotsprings.ca

04 Resort Spa

Northern Lights Resort & Spa

노던 라이츠 리조트 & 스파

화이트호스 남쪽에 자리한 노던 라이츠 리조트 & 스파는 울창한 산림과 구릉 지대에 둘러싸여 마치 세상과 동떨어진 듯한 고립감을 안겨주는 곳이다. 가을과 겨울 시즌의 오로라 관측 명소로, 밤하늘을 수놓는 신비로운 빛의 향연을 감상하며 자연 속 힐링을 누릴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따뜻하고 친밀한 분위기와



서비스가 더해져 잊지 못할 경험을 만들어준다. 모던한 오로라 글래스 샬레를 선택하면 실내에서도 편안하게 북극광을 관측할 수 있다.

Wellness Experience

8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독채 샬레와 식사, 맞춤 투어, 오로라 관측, 그리고 스파까지 포함된 올인클루시브 패키지를 제공한다. 화이트호스의 야생을 탐험하고 현지 식자재를 활용한 미식을 즐기며 핀란드식 사우나와 야외 온수 욕조에서 휴식을 취하는 동안 유콘의 자연이 품은 생명력과 고요한 기운이 심신을 채워줄 것이다.

가격 4박 5일 올인클루시브 패키지 1인 2,290캐나다달러부터

웹사이트 northernlightsyukon.com

05 Cabin Camping

Northern Nomad Outdoors

노던 노마드 아웃도어즈



유콘이 품은 자연과 문화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웰니스를 경험하고 싶다면 노던 노마드 유콘은 좋은 선택이다. 선주민이 운영하는 에코투어리즘 기업으로, 이 지역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말을 타고 야생을 누비며 요가와 하이킹, 낚시를 경험하는 투어부터 북극의 밤하늘 아래에서 스키를 타는 오로라 패키지까지 어디서든 접할 수 없는 계절별 맞춤 웰니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1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2인용 프라이빗 슬리핑 캡슐을 운영해 야생에서의 하룻밤도 즐길 수 있다.

웹사이트 www.northernnomadoutdoors.com

Michelin-Starred Restaurants in Canada

캐나다
미쉐린 레스토랑
리스트

British Columbia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AnnaLena

컨템포러리
www.annalena.ca
Vancouver

Barbara

컨템포러리
barbararestaurant.com
Vancouver

Burdock & Co

컨템포러리
www.burdockandco.com
Vancouver

iDen & QuanJuDe Beijing Duck House

중식
quanjudevancouver.com
Vancouver

Kissa Tanto

퓨전
www.kissatanto.com
Vancouver

Masayoshi

일식
www.masayoshi.ca
Vancouver

Okeya Kyujiro

일식
okeya.ca
Vancouver

Published on Main

컨템포러리
publishedonmain.com
Vancouver

St. Lawrence

프랑스식
www.stlawrencerestaurant.com
Vancouver

Sushi Masuda

일식
www.sushimasuda.com
Vancouver

Anh and Chi

베트남식
anhandchi.com
Vancouver

Chupito

멕시코식
www.chupito.ca
Vancouver

Fable Kitchen

컨템포러리
fablekitchen.ca
Vancouver

Farmer's Apprentice

컨템포러리
farmersapprentice.ca
Vancouver

Gary's

프랑스식
www.garysrestaurant.ca
Vancouver

Karma Indian Bistro

인도식
karmaindianbistro.ca
Vancouver

Little Bird Dim Sum + Craft Beer

중식
www.littlebirddimsum.com
Vancouver

Lunch Lady

베트남-캄보디아식
thelunchlady.com
Vancouver

Magari by Oca

컨템포러리
magari-o.ca
Vancouver

Motonobu Udon

일식
motonobuudon.ca
Vancouver

Phnom Penh

베트남식
phnompenhrestaurant.ca
Vancouver

Seaport City Seafood

중식
seaportcityrestaurant.com
Vancouver

Song (by Kin Kao)

태국식
www.songyvr.com
Vancouver

Sushi Hil

일식
www.sushihil.com
Vancouver

Vij's

인도식
www.vijs.ca
Vancouver

Québec

퀘벡 주

Tanière³

창작 요리
taniere3.com
Québec City

ARVI

모던 퀴진
www.restaurantarvi.ca
Québec City

Jérôme Ferrer - Europea

모던 퀴진
jeromeferrer.ca
Montréal

Kebec Club Privé

창작 요리
www.kebecclubprive.ca
Québec City

Laurie Raphaël

모던 퀴진
laurieraphael.com
Québec City

Légende

창작 요리
restaurantlegende.com
Québec City

Mastard

모던 퀴진
restaurantmastard.com
Montréal

Narval

창작 요리
restaurantnarval.ca
Montréal

Sabayon

모던 퀴진
sabayon.ca
Montréal

Annette bar à vin

모던 퀴진
www.annettebaravin.com
Montréal

Battuto

이탈리아식
www.battuto.ca
Québec City

Bistro B

프랑스식
www.bistrob.ca
Québec City

Buvette Scott

지역 요리
www.buvettescott.com
Québec City

Cadet

모던 퀴진
www.restaurantcadet.com
Montréal

Casavant

프랑스식
www.casavantmontreal.com
Montréal

Côté Est

지역 요리
www.cote-est.ca
Kamouraska

Honō Izakaya

일식
izakaya.honorestos.com
Québec City

L'Express

프랜치
restaurantlexpress.com
Montréal

Le Petit Alep

중동식
191 rue Jean-Talon Est,
Montréal
Montréal

Losange

지역 요리
www.losangerrestaurant.com
Rimouski

Iueur

모던 퀴진
laurieraphael.com/ieur
Québec City

Melba

모던 퀴진
restaurantmelba.ca
Québec City

Ouroboros

모던 퀴진
135 rue Saint-Joseph Est,
Québec
Québec City

Parapluie

모던 퀴진
leparapluie.ca
Québec City

Rôtisserie La Lune

전통 요리
rotisserieslalune.com
Montréal

Torii Izakaya

일식
toriiizakaya.ca
Québec City

Alentours

모던 퀴진
www.restaurantalentours.com
Québec City

Ontario

온타리오 주

Sushi Masaki Saito

일식
www.masakisaito.ca
Toronto

Aburi Hana

일식
www.aburihana.com
Toronto

Alo

컨템포러리
alorestaurant.com
Toronto

DaNico

이탈리아식
www.danicotoronto.com
Toronto

Don Alfonso 1890

이탈리아식
www.donalfonsotoronto.com
Toronto

Edulis

지중해식
www.edulisrestaurant.com
Toronto

Enigma Yorkville

컨템포러리
www.enigmayorkville.com
Toronto

Hexagon

컨템포러리
www.hexagonrestaurant.com
Oakville

Kaiseki Yu-zen Hashimoto

일식
www.kaiseki.ca
North York

Kappo Sato

일식
kapposato.com
Toronto

Osteria Giulia

이탈리아식
osteriagiulia.ca
Toronto

Quetza

멕시코식
www.quetzaltoronto.com
Toronto

Restaurant Pearl Morissett

컨템포러리
restaurantpearlmorissett.com
Lincoln

Restaurant 20 Victoria

컨템포러리
www.exploretock.com/
restaurant20victoria
Toronto

Shoushin

일식
www.shoushin.ca
Toronto

The Pine

중식, 1스타
www.thepinecreemore.ca
Creemore

Alma

아시아식
www.almatoronto.com
Toronto

Bar Raval

스페인식
www.thisisbarraval.com
Toronto

BB's

필리핀식
5 Brock Ave., Toronto
Toronto

Berkeley North

컨템포러리
www.berkeleynorth.ca
Hamilton

Champechano

멕시코식
campechano.ca
Toronto

Cherry Street Bar-B-Que

바비큐
www.cherrystbbq.com
Toronto

Chica's Chicken

미국식
www.chicaschicken.net
Toronto

Conejo Negro

캐리비안식
conejonegrotoronto.com
Toronto

Enoteca Sociale

이탈리아식
sociale.ca
Toronto

Favorites Thai

태국식
www.myfavethai.com
Toronto

Grey Gardens

컨템포러리
www.greygardens.ca
Toronto

Guru Lukshmi

인도식
gurulukshmi.com
Mississauga

Indian Street Food Company

인도식
Toronto

Puerto Bravo

멕시코식
1425 Gerrard St. E., Toronto
Toronto

Rasa

컨템포러리
www.rasabar.ca
Toronto

R&D

퓨전
www.rdspadina.com
Toronto

The Ace

가스트로 펍
www.theacetoronto.com
www.indianstreetfoodco.com
Toronto

Tiflisi

중앙아시아식
tiflisitoronto.ca
Toronto

SumiLicious Smoked Meat & Deli

델리
sumilicious.ca
Toronto

Sunnys Chinese

중식
sunnyschinese.com
Toronto

White Lily Diner

창작 요리
whitelilydiner.ca
Toronto

Wynona

이탈리아식
wynonatoronto.com
Toronto

Essential Information

가는 방법

인천과 캐나다의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다양한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다. 대한항공이 인천에서 밴쿠버, 토론토까지 가는 직항편을 운항하고, 에어캐나다, 에어캐나다, 토론토 직항 노선과 몬트리올 시즈널 직항 노선을, 웨스트젯은 캘거리 직항 노선을 운항한다. 여기에 티웨이항공의 밴쿠버 직항편 등 저비용항공사의 노선까지 더해져 쉽고 편리한 캐나다 여행이 가능하다.

비자

관광 목적으로 캐나다를 방문하려면 전자여행허가(eTA)를 발급받아야 한다.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고, 비용은 7캐나다달러다. 5년간 유효하나, 여권 만료 시에는 재발급이 필요하다.

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visit-canada/eta/apply-ko.html

시차

캐나다에는 6개의 시간대가 있다. 동부 해안과 서부 해안의 시차는 4시간 30분. 밴쿠버는 우리나라보다 17시간 느리고, 토론토는 14시간 느리다.

서머 타임

캐나다는 서머 타임을 시행한다. 3월 둘째 일요일에 1시간 앞당기고, 11월 첫째 일요일에 다시 1시간 늦춘다. 단, 사스카추안 주, 누나부트 준주, 유콘 준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서머 타임을 적용하지 않는다.

언어

공식 언어는 영어와 프랑스어다.

날씨

캐나다는 면적이 넓은 만큼 지역에 따라 다양한 기후를 띤다. 토론토와 오타와, 몬트리올이 있는 캐나다 동부는 여름철 30도까지 기온이 오르고, 겨울에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진다. 겨울철 강설량도 많은 편인데, 대도시는 제설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가을에는 단풍이 아름답다. 해안 지역에 속한 캐나다 서부는 날씨가 비교적 온화한 편이다. 특히 밴쿠버는 캐나다에서 겨울철 가장 따뜻한 도시로 꼽힌다. 여름에도 쾌적한 편이고, 봄과 가을에는 비가 자주 내린다. 일교차가 큰 중부와 극지방 기후를 띠는 북부 모두 여름은 짧고 겨울이 길다.

유용한 웹사이트

캐나다관광청 공식 웹사이트
travel.destinationcanada.com/ko-kr

캐나다관광청 공식 블로그
blog.naver.com/canadawow

캐나다관광청 인스타그램
instagram.com/explorecanada_kr

할인 패스

Discovery Pass

디스커버리 패스

캐나다 내 국립공원과 국립해양보호지역, 국가역사유적지 등 80곳 이상의 자연·역사 명소를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다. 유효기간은 1년이고, 일부 장소에서는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 2025년 6월 말부터 8월 말까지 캐나다 스트롱 패스(Canada Strong Pass)가 도입돼 국립공원 무료입장과 캠핑 이용료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 성인 75.25캐나다달러
- 차량 1대(최대 7인) 151.25캐나다달러

parks.canada.ca/voyage-travel/admission

Toronto City Pass

토론토 시티 패스

CN타워, 리플리스 아쿠아리움 오브 캐나다(Ripley's Aquarium of Canada)를 포함해 토론토의 주요 명소 5곳을 방문할 수 있는 할인 패스. 총 9일간 사용 가능하고, 일부 명소는 방문 전 예약이 필요하다.

- 성인 129.96캐나다달러

www.citypass.com/toronto

Ottawa Museum Pass

오타와 박물관 패스

캐나다 항공 우주 박물관(Canada Science and Technology Museum), 캐나다 국립미술관(National Gallery of Canada) 등 오타와에 있는 박물관과 갤러리 9곳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패스. 1일권과 3일권 중 선택 가능하고, 구입일부터 60일간 유효하다.

- 1일권 성인 40캐나다달러

visitottawapasses.ca

The Niagara Falls Pass

나이아가라 폭포 패스

WEGO 버스와 나이아가라 폭포 푸니쿨라 같은 현지 교통수단 2일권과 인기 명소 입장이 포함된 패스. 추가로 나이아가라 공원 내 일부 레스토랑과 상점에서 사용 가능한 할인 쿠폰도 제공된다.

- 성인 89캐나다달러

www.niagaraparks.com

Passport MTL

패스포트 MTL

몬트리올 미술관(The Montreal Museum of Fine Arts), 몬트리올 관람차(La Grande Roue de Montréal) 등 도시의 대표 명소와 즐길 거리를 무료 혹은 할인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는 관광 패스다. 공연 관람 할인, 무료 시식 등의 추가 혜택도 다양하게 제공된다. 3개 어트랙션 이용권과 5개 어트랙션 이용권으로 나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하면 된다.

- 3개 어트랙션 이용권 56캐나다달러
- 5개 어트랙션 이용권 86캐나다달러

www.mtl.org